

逸波式
速記學概論

今

逸波 張基燾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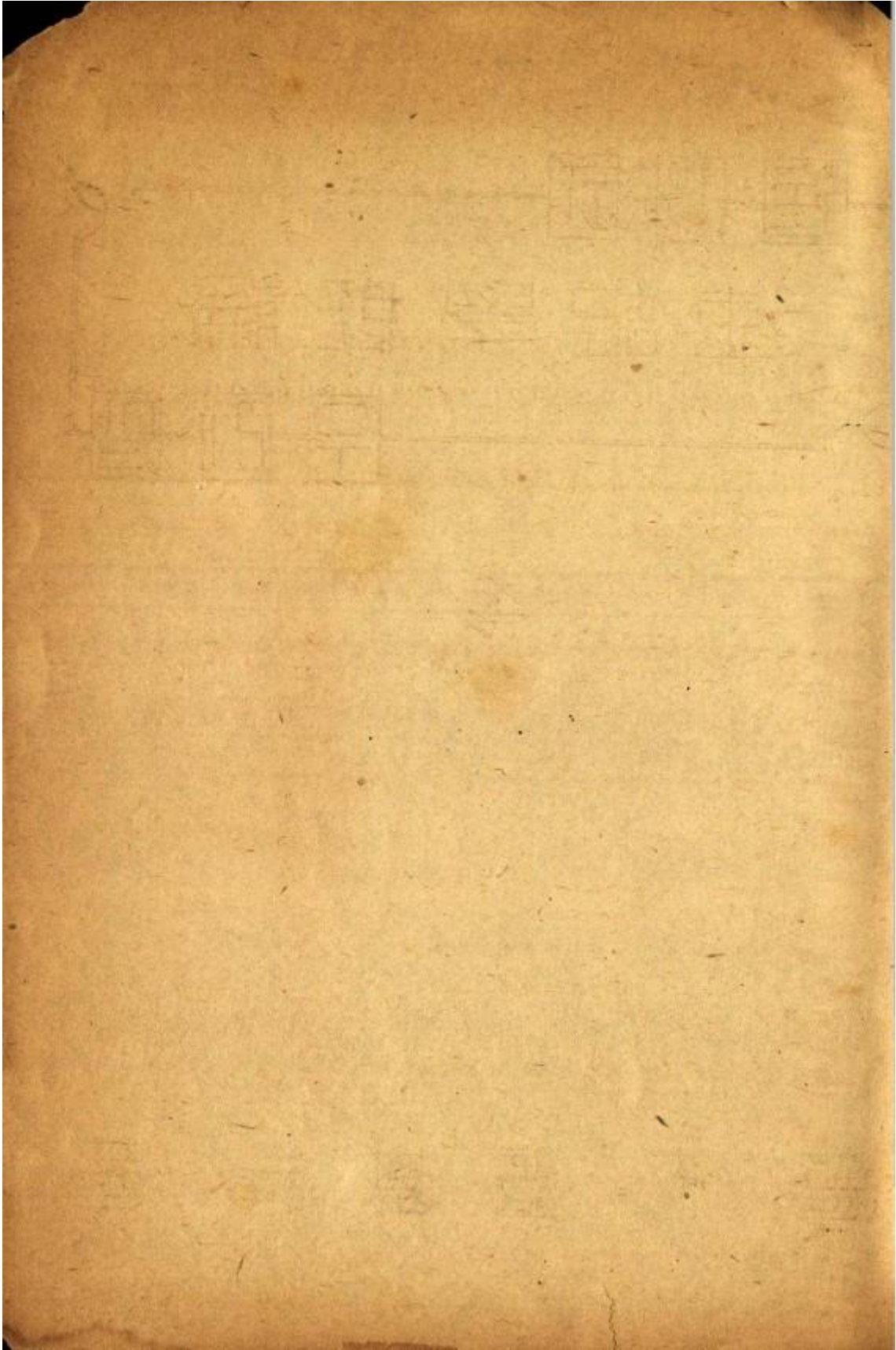
逸波武

速記學概論

유리말



逸波張基泰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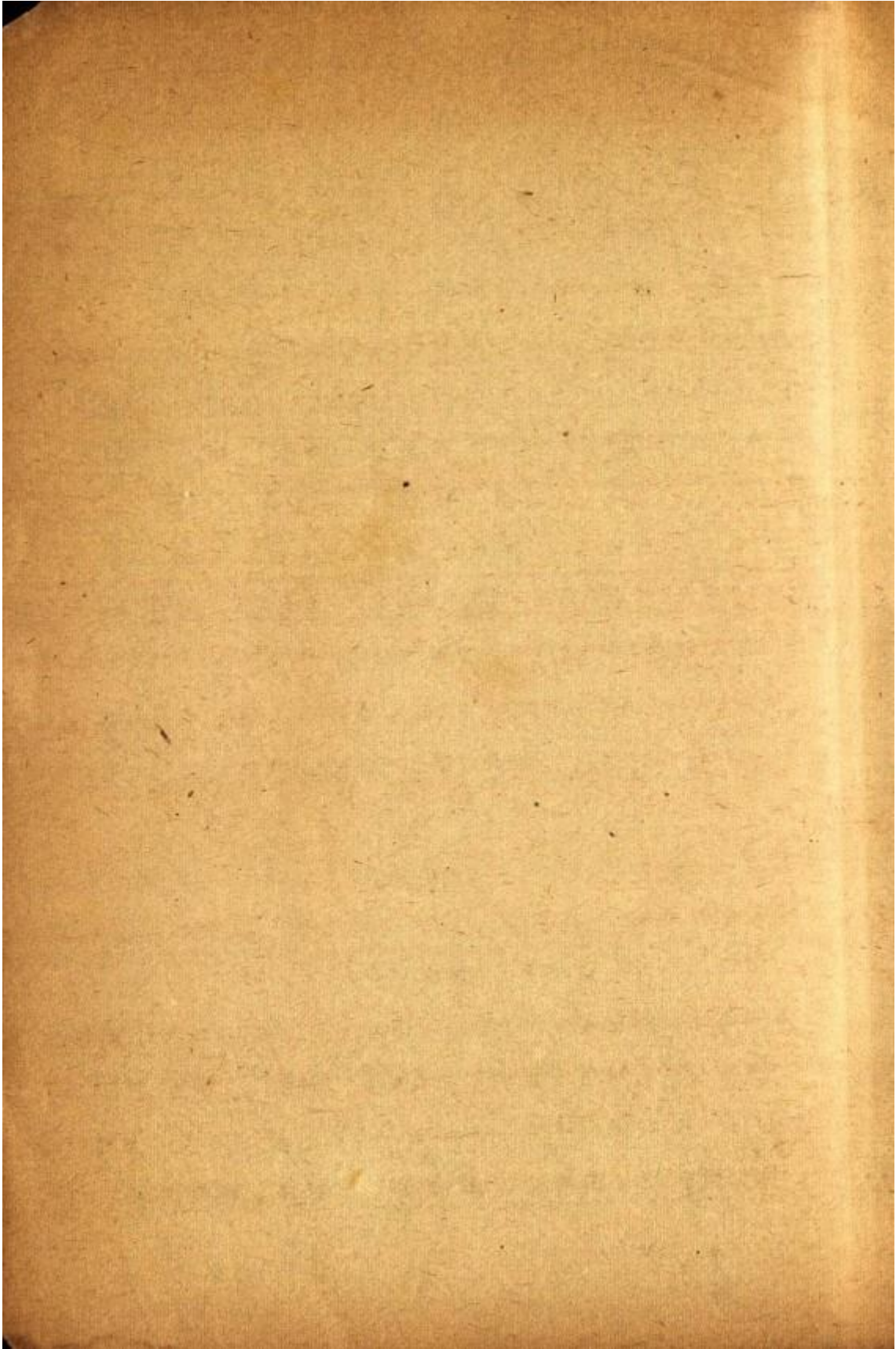
逸波武

速記學概論

ヨリヨリ



逸波張基泰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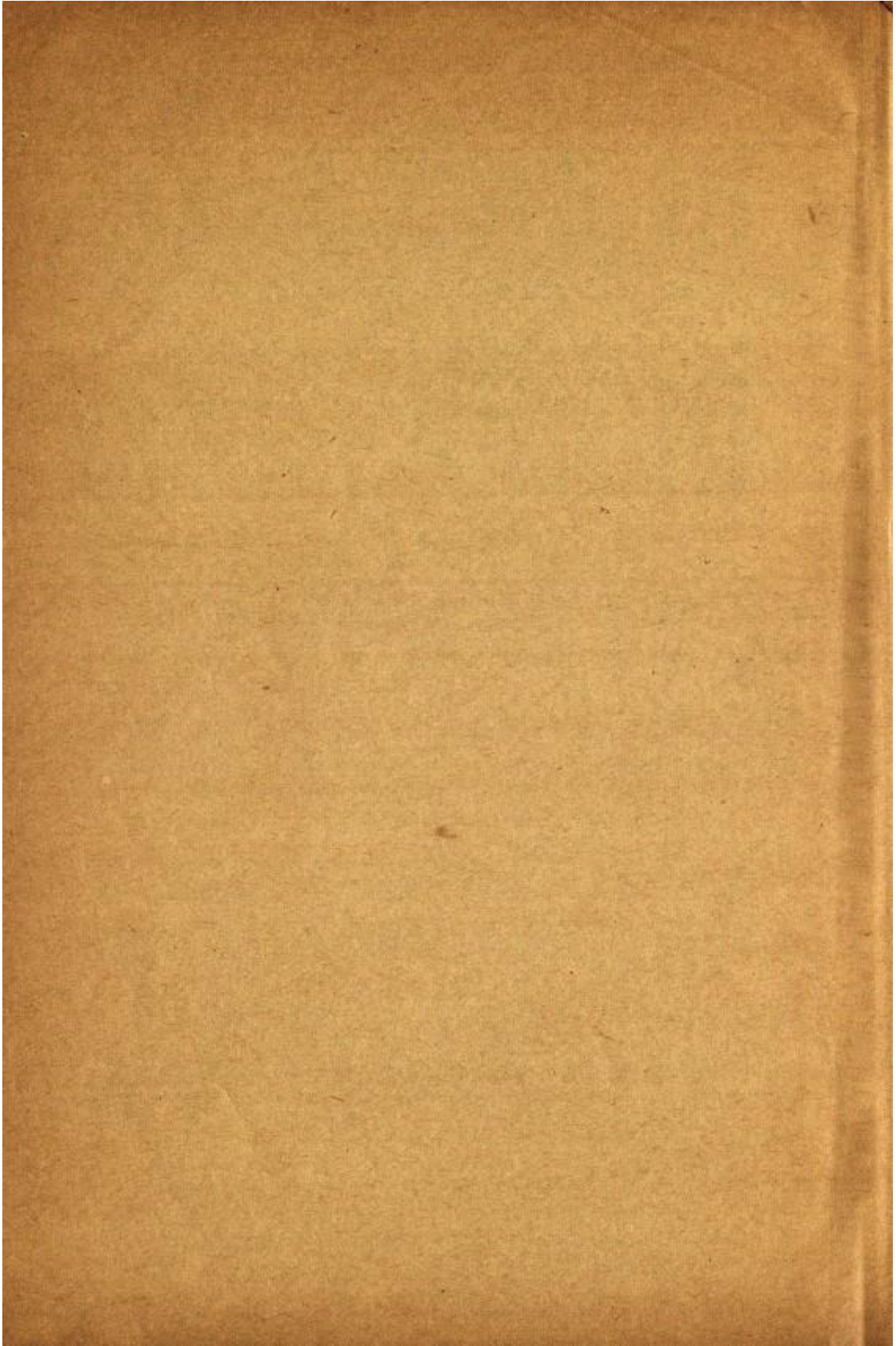
卷 頭 言

生覽 なる대로 又は 其時 形便 대로 自身の 缺
齋的 記号로 併 速記業務에 從事 했던 때와는 伊然
히 区分 되어야 翁을 段階에 이른것이 今日에 速記
學인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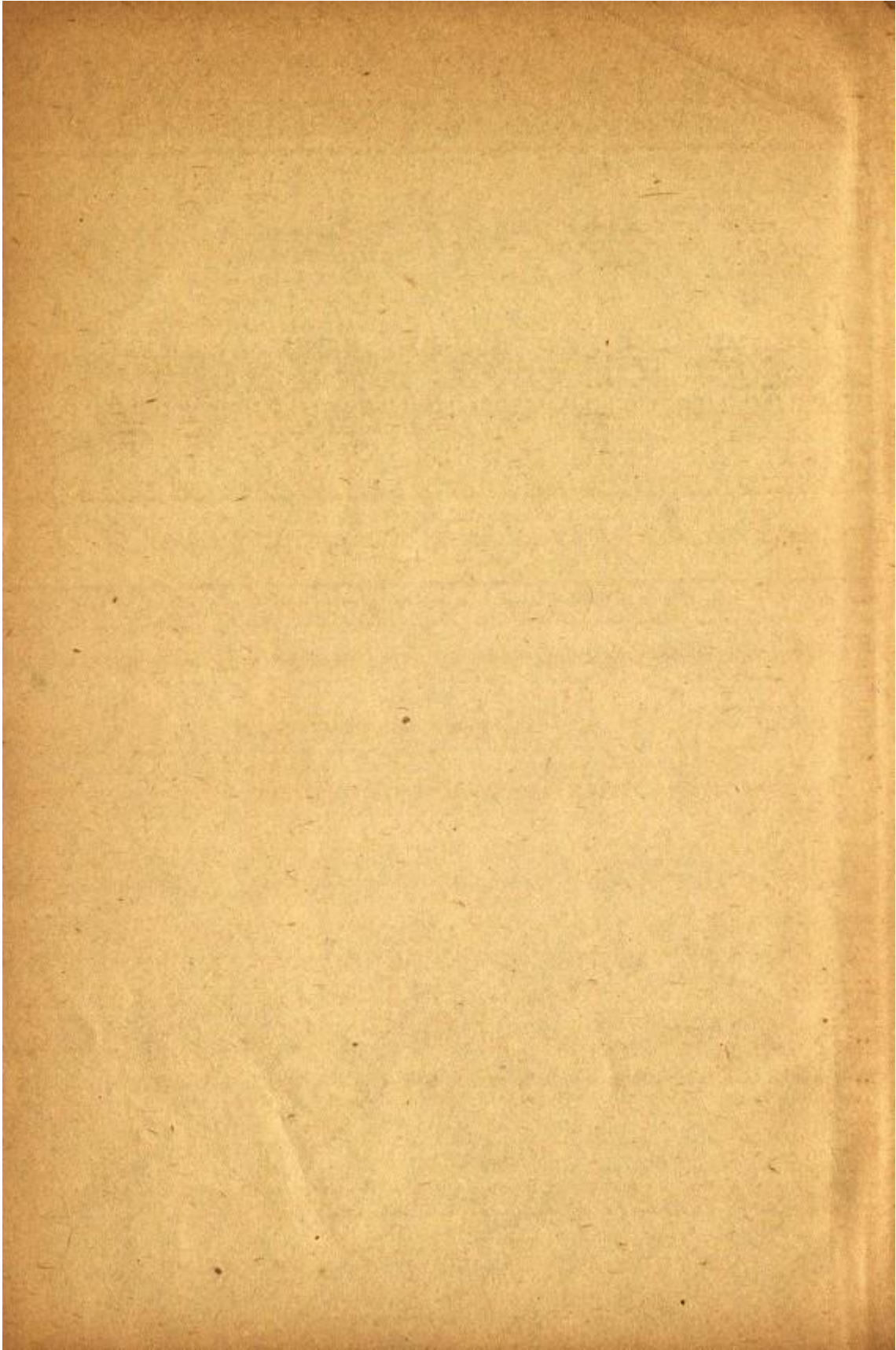
人類의 言語를 빠른 速度로 筆記 해 낸다는것은
果眞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그 記号記号의 體模
本 學的인 理致를 賦與 合致 시켜서 一般 數學
이나 物理教科書와 對比 하려는 構想이 好로 이를
에 成立 될수도 없는 노릇이다 .

大韓民國樹立后 於焉 十年 筆畵는 暗記學의 學的
體系를 세워 보기에 寧日 없었으나 이제껏 그 考究 全
貌를 公表를 못 하였고 더욱이 6.25 后는 敎
務事業을 繼續할 力不足으로 많은 捷波式 速記士와
新入門生을 滿한 貢獻이 不足 했음을 自賞한 나머지
起稿 한것이 此 速記學 概論인것이다 .

回顧 3건데 速記學가 一種의 暗記學로 併 몇々 素英
있는 學生徒에게만 敎學을 시릴수 있는것이랴면 ? 이
는 完全히 現世速記學의 破滅일것인데 搖幸히도 筆畵의
우리말 速記學이 前記 疑懼 憂을 無難히 打拂하여 이



第一篇
速記學原理



第一章 速記學の定義

~ / ~

第一章 速記學의 定義

定 義

文明 諸族 社會에 있어 語敍對外的인 發言現狀이나 心中 意圖를 卽席에 卽시 無漏筆記錄 하여서 文章化 하는 過程上 必要한 學問的 筆記術을 一括하여 速記學이라 稱함.

完 全 速 記 學

發語의 受記體가 現代式 速記號로써 創案構成 되어 있으며 定義에 完全符合 되는 學問을 完全速記學이라 稱함.

不 完 全 速 記 學

發語의 受記體가 現代式 速記號로써 案出構成 되어 있으며 學的要素가 不備하여 發語를 完全受記 하지 못 하는 似而非速記學을 不完全速記學이라 稱함.

註 一般世人은 速記號로 卽시 構成된 速記字體이면 어느 것이나 完全速記號인줄 誤認 함이 例事이나 何國이던지 完全速記學보다 似而非速記學이 猖獗 하여 마치 類似商標의 大衆을 欺瞞 하는 現象을 呈하고 있음.

第二章 速記學の構成要素

第二章 速記學의 構成要素

速記學이란 外國의 速記學이든지 本國의 國語學과 不可分離의 關係下에 成立된, 一種 國語記號學이라고도 稱할 수 있는바 此 關係를 究明해 보고져 以下 極易한 解明을 語文上에서 求해 보겠다.

第一節 語文小考

語文發生과 特卓

人類를 除外한 數 匹은 動物은 各自의 心中意思를 表示하는데 嗚聲과 拳動으로 行나타낸다 하지만 睡人 類만은 母音의 聲帶作用에다가 喉牙齒唇舌古作用下에 發聲되는 各種 子音을 合用 시키여 意思를 言語化 하는데 成功 하였는데 此 成事가 上古時代 地球 各地에서 蕃植한 原始民族이 皆 亨히 하게 됨은 決코 當然之事는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本能的인 生殖欲求상의 幼稚簡便한 言語 (近 日 도 美國本土人의 槍合語나 各地 未開野蠻人의 語에 아직 殘影이 있다.) 는 人類가 発達됨에 따라 哲學的 思考가 늘어 가고 發明이 連이어져 民族國家的 形態構成에 功을

가는 後을 하게 되고 다시금 人類는 數次 複雜化하
는 言語에만 滿足할수 없는 段階에 이르자 象形文字를
考案 해 내어 表意表語化 하는데 成功 하니 表音文字
는 아주 后期에 生成한것임은 可知의 일이다.

然이나 言語는 意思表示는 感情을 露骨的으로 傳하는
代身에 瞬間的인 發聲을 通하여 그 無形體를 空間에
散逸 시켜 버리는 短處이 有하고 文字는 意思를 가다듬
고 매만져서 論理있고 美觀하게 傳記하는 代身에
言語에 비하여 많은 時間虛費가 그 短處이라 하겠다.

語文과 新文字

따라서 言文이나 舞踊이 傳하는 意思表示는 個人 感
覺의 極致로써 人類文化上 國家形成上 絶對價值를 誇亮
하여 共히 民族의 至上課業이로되 여기에 格別히 公同
性을 띠는 暗寫가 考案 되어 別種가 尙柙되더니 마
침내 人智는 符號的記字로써 言語速度와 接近하는 記
字까지 完成 하여 人文發音上 新勢力을 構築 하는데 있어
言語를 實音과 記字兩面에서 完全히 捕捉 하기에 이르
바 換言하면 現時 世界 九個語族은 그 言語形態가 如
何 하든지 自國의 文字가 如何 하든지 音節文字的인 速

記号学 創案使用이 可能한 地處에 서게 되어 오직 創案
者의 才藝的 技能의 優劣이 語態把握上 理想的 着案과
記号学의 新分野를 더욱더 高度化 함에 있어 關鍵이
는 하되 速記学徒 未 言文에 對한 着眼點을 銳利化한
白 記号研究로 階級을 밟아야 참은 毋論이다.

altaic 族 語

그러면 우리의 語族과 言態의 辨別은 어떻게 ?

古來로 獨立營爲 해은 民族이라면 어느 民族어든지
그 民族固有의 言語는 地方的으로 融語化 한다든지 (淸
하면 中國과 如히 北語南語가 相互不通이 됨.) 右隣이나
隣人계 隣音 함에 있어 中聲高이 變遷 한다든지 外來
語가 많이 挿入 된다든지 (濟州島의 方言이 好例임)
消滅 又は 新生語彙으로 因하여 日常部分的 變遷은 不
이여서 古語와 現語의 語音不通이 極例이되 오직 言語法
의 無形態에 있어서는 그 民族이 他民族에게 歸化 되어
버려서 該 民族自体가 아주 消亡 되어 버리지 않는 限
連綿히 存續 되는것임은 能히 알수가 있다.

따라서 現今 世界의 異語族과 相違語가 雜亂하여
語의 分化作用이 尤甚 함을 未現 시키되 元來 分化의
根元體를 究明한 學說에 依하면 우리의 言語가 *Ural*

— *altai* 語族에 屬하며 (此語族은 다시 *Ural* 山脈
 을 中心으로 東歐와 西北 시베리아로 퍼진 *Ural*
 語族群과도 또 달리 *altaic* 山脈 下部에서 西方으로는
 土身古 族語를 東方으로는 蒙古族語와 通古斯族語를 分
 派 시키었음.) 韓語는 다시 通古斯族語의 南方進出로
 卽 日語와 滿語가 現時 가장 親和的인 同一語族으로 되
 여 있는 것이다. 卽何處 *altaic* 語族은 印支의 *D-*
ravida 語族과 同樣 附着語態 (別稱 添着語) 라는
 特性을 갖고 있어 中國, 安南, 泰國, 緬甸, 西藏等 *Indo*
 — *Chinese* 語族의 語態인 孤立語와 現 歐洲 各國이
 屬하는 *Indo - German* 語族과 埃及等 *Ham*
 — *Sem* 語族의 語態인 屈折語 (別稱 曲折語) 나 其他
Africa 土着人 馬來 *polynesa* 土着人 濠洲土
 着人 美國本土人 (抱合語) 等 他語族과 比하여 判異한
 存在임을 우리는 現時 韓語, 英語, 中國語의 實態로써 于
 先 손쉽게 窺知 할수가 있을 것이다.

換言하면 添着 附着語 卽 有吐의 現象은 一切 한
 날말 卽 實辭에 比 하여 虛辭인 吐가 長久한 歲月
 을 두고 合가지로 發達하여 他詞의 使用範圍와 眞
 極性을 支配하는 役을 맡고 보니 屈折이나 孤立語에
 서는 予想도 못할 複雜한 語態가 連記号 構成上 卽

치는 影響이 얼마만 한가를 우리는 알수가 있겠고 다
음에 *altaic* 語族은 原則的으로,

例 主 語 部 容 語 部
 " 우리 어머니께서는 좋은 파자를
 (代) (名) (吐) (形) (名)(吐)
 主語修飾語 主 語 容語修飾語 容 語

述 語 部
 내 동생에게 많이 사다가 주셨습니다.
 (代) (名)(吐) (形)(吐) (動)(吐) (動)(吐)
 補語修飾語 補語 述語修飾語 述 語

의 形式으로 滿成되지만 現時의 使用例는 이原則을 떠나서,

- ※ 우리 어머니께서는 좋은 파자를 많이 사다가 내 동생에게 주셨습니다.
- ※ 좋은 파자를 많이 사다가 우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에게 주셨습니다.
- ※ 내 동생에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좋은 파자를 많이 사다가 주셨습니다.

와 加히 主 容 述 補語의 順序를 뒤바꾸어서 말을 해도 通用이 되며 母語 緩和나 半古語의 使用例則은 母論 他語 族과 区介되는 特征을 如實히 보여줌에 次한 認識도 重要하거니와 보다더 數十年을 孤立 語態와 表語 記字로써

이러한 中國文化에 隸屬되어오던 韓民族이되 添着語 現
 狀不轉과 表音文字의 創用이란 異色을 現出시키고 있음은
 한 民族의 言文이 얼마나 民族性代辯上 搖動不受의 固
 着性을 가지고 있는지 이 亦是 無疑히 首肯 될 것이다.

文字의 種類

다음에 한글이 音韻文字로 何 創設된은 固知의 일이
 나 便宜上 文字의 種類를 略記하면 下와 같다.

7. 古代文字 結繩文字 與文字第 人圖의
 記憶力을 延長 시키는 한 手段이며 文字의 必要性을
 겨우 느낀 時代의 遺物.

L. 繪圖文字 美國이나 印度 土人의 文字.

C. 表意文字

A. 象形文字 初期 漢字나 初期 羅馬字等 純全한
 音記字씨로 文字의 創案初期에는 거의 宇宙物象의
 本體를 模寫 標本化하여 文字化 한것임.

B. 表音文字 象形文字는 그 字數의 制限이 不可避하
 며 人智는 意語文字의 使用이 象形体를 떠나야 存
 在 할수있음을 覺醒 하여 依成 된 文字. 따라서
 文字 卽 意語임.

己. 楔形文字 表語文字이되 繪圖文字性이 色
 ~ 9 ~

음 되어 있는 文字。

□. 表音文字 純全히 語音記號上用으로 作成된 것인데 同時의 表音文字는 表語文字를 充分히 挿入補成 하여 드는 길로 흐르고 있음.

A. 音韻文字 文字體가 子音과 母音記號의 分理合用으로 된 것으로 無意임. 한글이 그 代表的인 것이며 英字는 發音規則이 別途로 있어 完全한 音韻的 後勤에서 多少 벗어나 있음.

B. 音節文字 母音 子音의 區別이 아니 되는 文字 (日本의 仮名)

□. 符號文字 電信用符號 및 速記符號를 稱하며 이는 純粹한 表音文字임.

- 註
1. 表音文字는 學習難이 短矣이나 意思表示가 能動的이며 表音文字는 習學易의 長矣이 있으나 낱字로는 意思傳達上 未及한 點이 不少한 短矣을 갖고 있음.
 2. 現 한글綴字法은 表語的인 文字가 많이 들어가 있는 點을 잊지 말것.

第二節 速記學

速記學이란 言語의 卽席 記錄을 爲主로 하여 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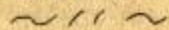
窠된 特殊符號文字를 가지고 該當語나 文字와 三位一體
格으로 合致 시킨 記號를 다시 他人에게 敎學 시킬 目
的으로 學的價值性을 오로지 한 것을 일컫는다.

構 成

廻時 우리는 어느 民族文字를 보든지 이를 詳細히
分析 해 보면 點과 長短 方向이 相異한 直曲線의 結
合體임을 알 수가 있다. 다시 그 記號들은 音語와 마
찬가지로 한 國民間에 約束된 記法을 어김 없이 保持
해 나가며 強調하는데 그 生命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이 記號的約束性을 應用하여 마치 暗號나 電話符號처럼
約束人數의 範圍를 주려서 記號字도 約束文字의 役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然이나 何國이든지 國民文字의 記筆速度는 言速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또한 그 特性이어서 記號의 原理인
點, 線의 合理的 利用으로 言速을 따를 記號의
別途 記號體가 成立 된 것이며 此 記號字는 다시 말하
면 言語의 寫眞 또는 録音的인 面과 國民文字的인 面
을 並用 해서 지니고 있는 것이 그 特殊한 構成要素
이다.

따라서 어느 民族이 自國語를 究極함에 있어서 普通



的으로 一分時 360 音節을 紙上에 筆記錄 해 내는 것을 絶對的으로 要求 한다면 尙當 該 發音狀態와 同速을 가진 記號字가 卽 速記號字가 됨은 毋論 이다 .

이에 速記號字는 한 民族의 基本 語音과 同數의 一音節字를 土音로 하여 다시 二音節字부터 十餘音節字를 其 民族語中 常用 語音節이나 語예다가 合理的으로 合致 시키 가면서 記字의 科學的 體系라 學的 價値가 果然한 記字體를 構成 했느냐 못 했느냐의 그 生命이 달린 것이다 .

註 現 記字上 第一 簡便 한것이 貞이라 하겠는데 一音節 一貞의 體制下에서도 一分時 360 貞을 記筆 하지는 못 한다 .

種 類

現下 速記號의 種類는 下記 三種으로 大別 한다 .

1. 單細線 圓型體 直徑의 寬을 限定한 한 細線圓型에 있어 그 둘레의 部分線과 中心貞을 通達 하는 各直線 또는 直線의 兩極을 連結 하는 橢圓線을 記號字로 應用 하는 體이며 現 各國의 速記號가 大部分이 此體 이다 .

2. 草書型體 草書體란 記線을 柔和하고 美麗하며 速度性을 具備한것이 그 筋貞 인바 此貞을 應用 하

여 國民文字를 速記學的으로 改篇한것 (美國의
Gregg 式)

C. 太細線兼用 卍 型 體 單線利用을 더 效果
的으로 試 하려는 卓上의 理에서 나온것인데 實價
가 없어 速記學上 不完全에 屬한다。

性 格

같은 記線이지만 線의 方向과 筆의 特徵은 橫書上
又是 速度上 優劣의 着度가 有하며 또 連筆上 不當
線이 有하느냐 此 各個 記號線이 가진 性格은 專向
的인 研究者 外에는 解得하기 어려운 일이다。

將 來

速記學의 向上이란 卽 單音 記號의 縮少와 普
及의 容易性과 더불어 利用面의 拡大를 말 하는 것
이다。

記號學의 需要面이 政策上 又是 文明上 最高度로
利用 活用하려는 社會的 乃至 文化人의 自覺的 要素를
莫有 하지 못하는限 그向上은 試 하기 어려운 바이
고 또한 完全速記學의 実績이 證明 되어 감에 따라
서 不完全 速記學은 漸次 自滅되어 가는 過程에

될지·않는 限 社會速記學徒의 誤認은 不免일것이다.

然이나 速記學은 現時 完全速記學記號로 俾 將來에는
우리말이면 十令時 四百音節以上 速記可能하게 될것이며 ..
進別로 學校樹立함과 高年科의 科目으로 採收 되기까지는
韓國의 民度와 文明이 隨其之 變에까지 가야겠으니 實로
前途 遙遠한바이다. 이밖에 現時 錄音機의 出現으로
記號學 利用上 尙한하면 惹起 되는 聽覺上 誤記나 誤
離失字를 補充 하는데 도움이 많은 勞幸之事이나 或은
는 人向의 聽覺과 同一한 "마이크"의 發明과 攜帶
隨便한 電氣不利用의 理想的 錄音機의 記號學은 無用
之說을 내세우는이도 有 하나 이는 錄音된것 亦是
國文化 하는데는 記號學의 참이 缺이는 不可能한 理를
設却한 言이고 記號學이란 理想的인 錄音機와 恰似한
錄字機의 發明만이 尙敵 되겠는데 이는 몇世紀 後事
일런지 짐작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第三節 習學과 遷文

國語學 精通하며 該國語의 完全速記號學에 依한
記號字로 習得 하는데 있어서 習學者가 該速記學의 成不
成 原因은 實로 그 習學態度 如何에 있다. 卽 各國 國
民文字는 腦記로 俾 一旦 目的이 達하며 次는 字体의

能熟한 記筆을 爲한 記號로 併 完戔 되는 것이나 速
記 文字는 記筆時向을 可能한 限 短縮시켜야 되므로
그만큼 記號字의 筆記上 熟練이 重要事이다.

即 國民文字는 該當 音이 鼓膜을 울림과 同時에 紙上
에 記字化 되어야 되는 必須條件이 不立이나 速記文字는
此點을 可能 하게 하기 爲 해서 作成 된 記字이므로
速記文字는 實上 手稿에서 아주 무르익어서 舌聽←記字者←
→手劃→筆字의 四者가 渾然 一體 되어서 小聲의 格錄
을 不許하는바이다.

이는 마치 言語가 錄音 "테이프" 에 録音이 되는
途程과 同一한 現象이다. 即 "마이크" 는 聽覺이요
紙는 "테이프" 요 頭腦와 手記的 技術面이 錄音過
程이라겠으니 如上 記한바 速記文字는 頭腦的 暗記에서
手記的 暗記의 域에 完全히達 하지 못 할진대 그 使
命이 이루어 지지를 않는 記字임을 알것이다. 그리고 이
렇게 改變된 文字化 된 記號字의 字體規則과 記法
規則에 缺이 없이 筆記 되어야만 되며 이는 다시
國民文字로 履文 하는 即 原稿化 되어서 비로소 最終
의 目的을 達 하는것이다.

그리고 人向의 言語는 即席에서 感情과 言語條理와
個個人의 識見과 發言意圖表上 보다 나은 該當用

話의 模索으로 行 이루어지는 關係上 아무리 해도 該當 發言에 關한 條理 있는 思考力과 文章力을 選擇할수 있는 自身力과 同等的 言錄을 構成 시킬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速記錄은 이를 選文한 때 어느 程度 不必要한 用語나 反覆된 語句나 誤言等を 適切히 取舍選擇 하고 前後를 顛倒한 言語를 改正 하여 過히 凶하지 않은 言錄으로 매만져야 하며 또한 報道文化用 速記錄은 速記者 自身이 그 言錄을 土音로 해서 尙 尙 尙의 水準을 지나 原稿文章化 해야 되는 關係上 發言 그대로의 忠實한 選文力과 文章力을 加추어야 된다。



第三章 速記學發達史

第三章 速記學發達史

第一節 速記要求의 實態

自身の 思想과 意圖은 自己自身の 손으로 文字化 하거나 他人에게 要領을 일러 주고 代筆 시키는 外에는 記錄이 不能 이다。

個人的인 捷速가 如斯할진대 大衆에게 自己의 意思를 發表 하거나 政治 文化的으로 空中에 사라진 言語 舌談、舌論의 史的實態의 文字化 不能으로 因하여 뜻 있는 人士들은 얼마나 惘別之感을 느꼈을 것인가?

다시 文錄이 生한 後에도 記憶을 托하여서 筆錄하는 矛盾上 所謂 實記에 誤記가 얼마나 많은지 不可知일 것이니 古代의 國傳史나 近世實錄을 앞에 놓고 異論이 紛々함도 無理 아닌 일이다。

다음에 言語는 또한 形体가 無함에 改言固執 할 수가 있고 意圖은 또한 任意로 變遷 할 수가 있으나 記錄은 不變이어서 그만큼 千斤의 重量과 物的證據 力을 發揮 하는 힘이 強 하다。

그러므로 吾文明國이 文字記筆上 寫眞體가 生하고 單書體가 나오고 다시 漢字에는 略記字 (例... 伸

医、欧、灵、心 等々) 가 생 하고 言録上에서는
 兪言의 大意를 추려서 要記 하는 것이 나옴도 實은
 速記를 위한 前提心의 兪露이라는 論이 설수 있는
 向題요 다시 李朝에 들어서 吏頭吐의 略記字 (註)가
 生 하였으니 이는 象人은 漢字와 區別 하기 위한
 便法 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亦 速記의 範圍에서
 나온것임은 明確한 理이며 이제 現時 複合語의 現象
 으로 言録을 撰한 別字本가 古來부터 當事者에 依하여
 끊임 없이 考案使用 되었을 것이나 그 實記本를
 알지 못함은 遺憾이다.

註 第四章 第二節 參照

第二節 Tiro 와 Brute 의 略記字

Tiro 는 西紀前人이다. 當時 羅馬의 Cicero 라면
 名雄辯家로서 終乃에 政治的·兼 性을 當한 이인테 Ti-
 ro 는 이弟子로서 先生의 演說要旨記錄에 從事 하
 던 關係上 Word 나 Compound Word 의 字數
 를 痛當히 주리고 또 別字를 使用 하던 例가 西洋史에
 보이는데 이러한 略記字의 出現은 韓國에서는 此의
 略記字의 出現이 必然한 例일 것이여시 Tiro 의 略記

字라고 뭇달리 헤미할 要는 없으나 16世紀(西紀 1588年)에 이르러 英國人 *Brute* 考古學者는 赫히 *Tiro*의 史蹟에서 "친드"를 연어시 同樣의 略字形式이 記號學을 發見 하엿다기에 現代式 速記號의 誘導覺醒上 그 存在的 處가 자못 큰바이며 此 形式의 速記號的 要求體는 19世紀 初旬頃까지 持續 되엿다.

第三節 *Isaci-Pitman*의 新速記號와 速記號學現狀

右 1837年 亦是 英國의 小學教師였든 *Isaci* — *Pitman* 도 記號學과 速記에 對한 熾烈한 關心을 가지고 改良에 沒頭한바 略記法의 矛盾性과 完全速記不能을 知覺하고 圓型線利用과 位置法利用의 新記號學을 創案樹立 하엿으나 참으로 世界的인 新發明이엿다 右 *Pitman* 은 英王室의 表彰과 后稱으로 速記學校를 세우고 一生을 速記號學의 普及과 改良으로 從事 했으니 이 卽 世界各國의 速記號學 發明의 祖인 것이다.

然이나 東面를 英論 하고 帝王의 專制政治라는 封建時代下 文化文明이 一部上層階級人의 独占物이엿은

世代에는 对内外的으로 너무나 秘密이 많고 弄斷橫暴이
甚하여 凡人을 罵한 文化의 進歩나 日常政治的 實錄
의 公論을 充分히 記했음은 事實이다 그런中 政治形態
가 議會的으로 民主共和的으로 主의 獨斷에서 脫逸
되어 감에 따라서와 新聞報章 (初創期에는 亦 政策
上 弄斷에 不遜했지만) 의 民衆化에 따라서 言錄의
必要性은 急速度로 國家的인 要求性을 切實히 刺戟
시키여 北美國은 *pitman* 式과 *Gregg* 式이 (1888
年 *John R. Gregg* 創案) 蕃盛하여왔고 歐羅巴
各國에 이어 東洋은 日本이 1882年에 드러 田
鎖式이 日本 速記學 構成에 成功하여 表彰을 받았으
며 이어서 曲式 熊崎式 中根式 早稻田式 園字式 毛
利式 "간트레드" 式 等々 數十種을 形成 하고 왔으나
現時 大略 國會에서는 田鎖式과 曲式을 民間에서는
早稻田式이 盛學되어 왔고 中國도 光緒 22年
(明國末期) 伝音快字라는 名稱으로 發表된 以來
相當數의 改良各式이 나와 왔다。

第四節 우리말 速記學

倭 政 下

~ 21 ~

韓語速記學은 一言而蔽之하면 倭政下에 있는 曠野時代에
處해 있었다. 即 己未 丙午 十年前 (1909年) 布哇에
서 朴即日氏 (慶南出身) 가 朝鮮速記法을 發表 했
으나 實用을 못 보고 中斷 된 후 1920年 京城
日報의 方台榮氏의 勸誘로 方翼煥氏가 渡日 하여
田鎖式을 研究歸國后 亦是 朝鮮語速記法을 創案 하였으
나 不成功 하였고 后 1935年 姜駘遠氏의 朝鮮語
速記術까지 數式이 新聞雜誌에 一部發表 되었으되 全
部 不完全速記學이요 不實用으로 곧 마치고 말았으니 그
最大의 原因은 韓語速記學 構成原理 構想上 着眼點에
있어 眞實性이 너무나 缺如 되어 있는 것과 倭政策이
韓語文化의 抑壓에 있었음은 勿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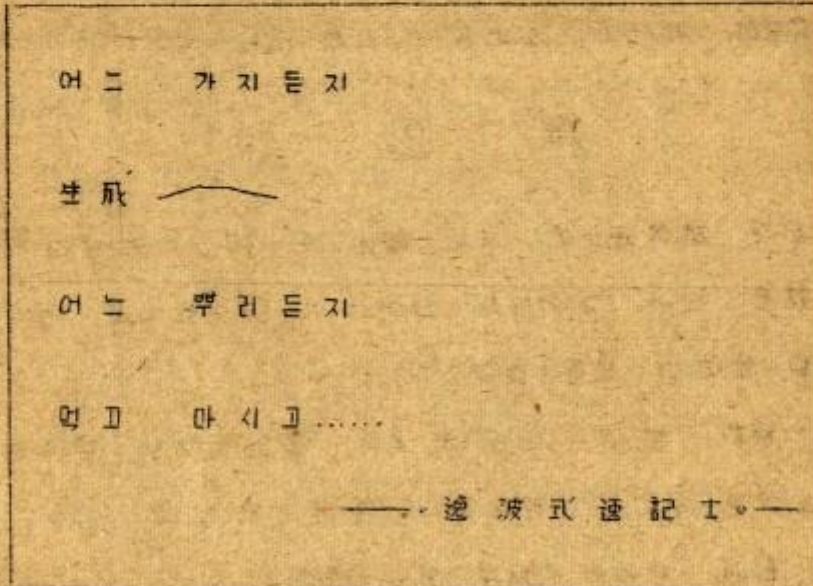
後 國 律

前記한 暗黒時代를 거쳐 韓國人은 干先 政治의 으
로 解放을 보아 그 기쁨과 더불어 韓語速記學은 兩白竹
節처럼 亂立의 態를 보하였다.

即 解放 翌年 1946年 6月 韓國最初로 完全速記學
인 逸波式-우리말 速記學 (逸波 張 哲 泰 創案) 이
公表 됨과 더불어 同年 9月 逸波式 速記士 養成所라는

名稱으로 學院設立을 보자 뒤이어서 什翁式 (姜駭遠)
 中央式 (朴寅榮) 高麗式 (金天漢) 尹正友式 朴松式
 東邦式 (辛東根) 等等 習學生의 成學可否에 關係 없이
 學的價值에 對한 良心的 考慮 與否 없이 一率的으로
 完全速記學을 自稱하고 나와 現今에 이르고 있는런
 이다.

註" 完全速記學이란 習學者의 實力에 依해서 가장 鮮
 明하게 證明 되는것이다. 解放后 十年 邊波式은 數
 萬한 速記士를 國會를 비롯한 職場에 보냄으로 其
 學的價值性을 더욱더 堅固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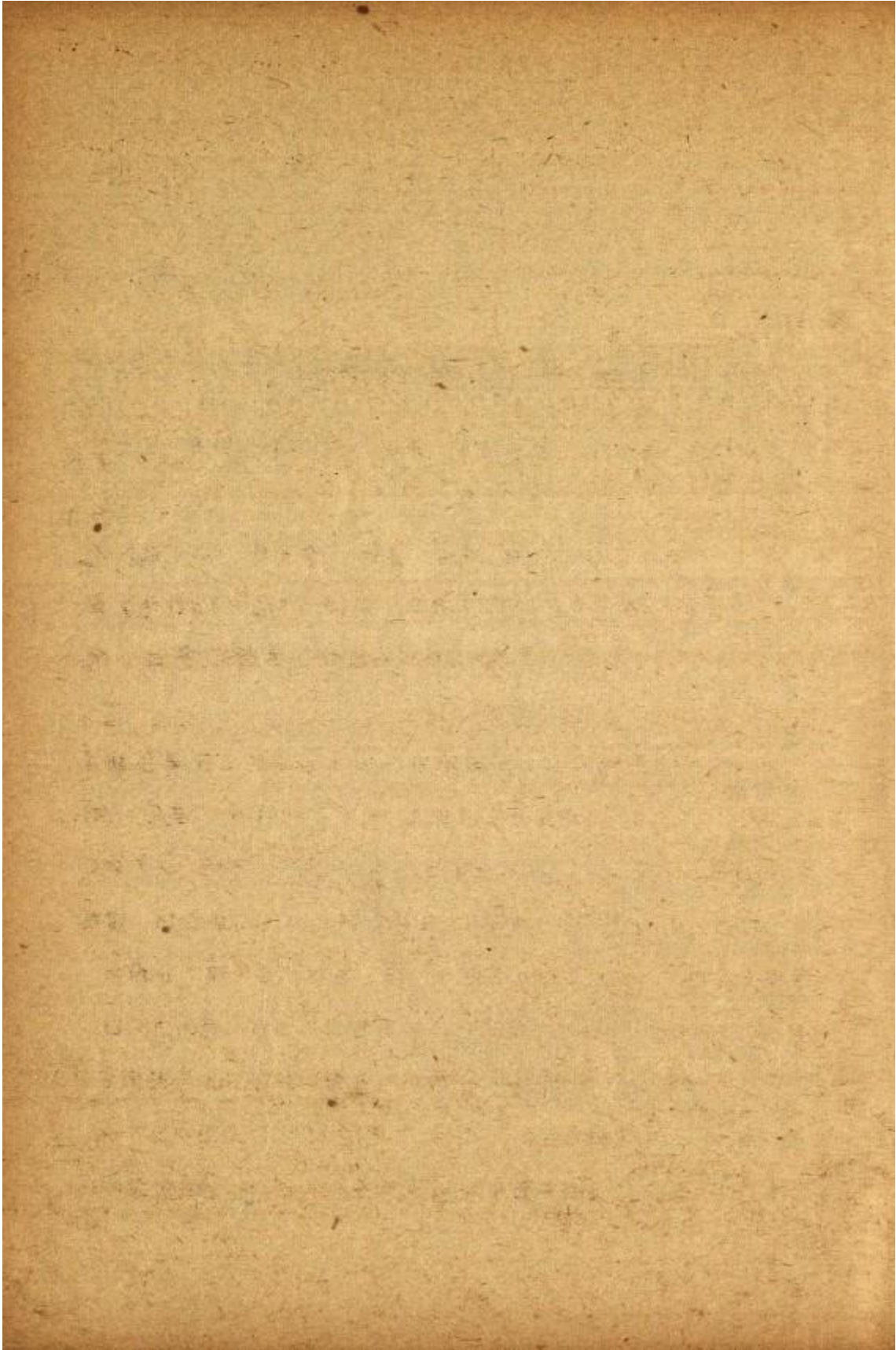


速記用具와 姿勢

鉛筆이면 練習紙는 아무것이나 相違이 없으나 万年筆을 使用 한다면 “노—트”를 使用해야 되고 茲에 用은 鉛筆 (“샤—프”가 더 理想的이다)을 使用함에 經濟的일 것이다。

다음에 練習紙는 心히 “人”行과 同角度로 비스듬히 놓아야 腕의 內曲과 平行이 되어 올바른 角度線이 俯視를 잊지 말 것이며 姿勢는 등골이 正しく 앉아서 一선 오직 正確記筆 姿에 余念이 없어야 한다. 또 한가지 鉛筆은 各 筆을 쥐듯이 45° 角度로 쥐고는 三指 끝을 縱적으로 내밀어서 받쳐 쥐고 記字는 손목을 돌려서 쓰지 말고 팔꿈치를 正로 一 돌려서 써야 된다. 마치 毛筆字 練習에 있어서 손목을 紙面에서 떨어져 쓰라는 式이여서 누구나 처음에는 매우 不便을 느끼지만 이렇게 慣習이 되어야만 몇 時間을 記錄해도 손에 疲勞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換言하면 鉛筆이나 “펜”글씨를 쓰듯이 손목을 돌려서 쓰면 腕腕에 疲勞 하지만 손목이 不動이고 보면 長時間記筆에 疲勞하지 않는 狀에 굳이 이를 勸하니 鉛筆이고 初期의 不便을 克服 해야 한다。

第四章 우리말 速記學의 特性



第四章 우리말 速記學의 特性

第一節 言語上 觀點

基本音節問題

速記學的 構成이 添着語가 第一 까다롭다 點은 前言한 바 이 다。

實로 言語現象이 複雜 하면 複雜 點수를 그 國民文字의 構成과 使用이 究端 點은 勿論 이다. 따라서, 速記學 構成의 難易가 各國마다 自國의 言語文字의 現象에 左右 됨도 勿論 이다。

然이나 速記學의 初課題인 基本音字의 記號字 構成에 있어 于先 韓語는 어떠한가? 여기에 같은 添着語 이되 日語의 基本音節은 音節으로 不過 ㄹㄱ 에다가 樹音 2/ 濁音 2/로써 合 40 個音이 不足한데 韓語音節은 現用 近 1300 音節에 連 하여 點으로 日語의 4 倍 인데다가 다시 韓語는 子母音의 二音 合用音보다 子母子 三音 合用音節의 使用이 非常 하니 이 現實은 우리말에 中國語 音字가 많이 變 質 化한 緣由이되, 아 물론 이 及大한 基本音節의 記號字化問題가 難色 임에는

출발이 없을 것이다.

母音類音問題

國語學的으로 正確히 말 하면 音韻問題인데 韓語의 實際는 母音의 變化가 尤甚 하다 따라서 우리의 單母音을 學者들은 強性母音 (ト ㄷ) 과 弱性母音 (ㅏ ㅓ) 과 中聲母音 (ㅓ) 으로 分別하고 中聲母音은 能히 強弱兩母音에 合用 하여 ㅏ ㅓ ㅓ ㅓ 를 이룬다는 原則論은 次置 하고라도 強性母音의 合用 (ㅏ) 과 弱性母音의 合用 (ㅓ) 그리고 三重의 母音合用 (ㅓ ㅓ) 까지 現用 되는데 對해서는 原則合用論도 또한 符合 되지를 않는다.

뿐만아니라 現用母音 2/音中 자칫하면 相互 混用 發聲 되기 쉬운 短處를 가지고 있다.

例) 아조 (아주) 궁범이 (궁병이) (도야지) (되지 돼지) 부자기 (보재기) 아기 (애기) 만들다 (만들다) 막히다 (맥히다) 따린다 (매린다) 재미 (재미) 자리 (재리) 다리 (머리) 다리미 (대리미) 等々 ㅏ ㅓ ㅓ의 例가 相當함.

또 發聲上 又是 聽取上 類音이 甚 하여 이는 下記와 같은 七音區分을 辨記 할수가 있다.

	A	B	C	D	E	F	G
正音	ㅏ	ㅑ	ㅓ	ㅣ	ㅕ	ㅖ	ㅗ
類音	ㅏ	ㅑ-	-	ㅓㅓ	ㅕ	ㅖ	ㅗㅗ

勿論 此類音關係는 語音을 正確히만 發音 할 때를
가지고 論할 樣이면 無用論이다. 그렇지만 人語는 發聲上
又는 聽取上 卽 檢査와 같이 正確한 期 하기 勿하므로
口位上 異音誤語가 盛行 됨을 볼 때 果是 尙懸疑 안
할 바도 못 된다. 그리고 此現象은 母音이나 子音에
있어서 더욱이 尤甚함은 不甞인 事實이다.

然이나 上記를 分析해 보면,

ㄱ. 類音 A B D의 ㅏ ㅑ ㅓ 기는 眞히 正音의
ㅏ ㅑ ㅓ의 合用關係로 이며,

ㄴ. 類音 B의 -는 이뿌다 (이쁘다) 기뿌다 (기
쁘다) 나뿌다 (나쁘다) 등々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ㄷ. 類音 F의 ㅖ나 G의 ㅗㅗ는 一般적으로 尙
全發音 不確實이 原因이고,

ㄹ. 類音 E의 ㅕ는 近時 日語教育의 殘滓 又는
漢字音의 正解不足으로 H音字 認識不足의 結果인바
此 事實은 民族語 音變輕視 못할 일이되 다시
連波式 連記學上에서는 이를 利用 하여 母音記號
를 주려서 設수 있는 不得已한 得處으로 나

하나 있다。

子音同化問題

주로 終音子音과 初聲子音이 連接 되어 연락 (연락) 조차 (조카) 와 같은 音韻變化를 이끄는 것이다。

同化音問題

주로 終聲子音과 母音이 連接 될때 母音이 終聲子音을 갖인 合用音이 되는 現象인 범어 (너머) 임이 (이미) 等々을 말 하는것인데 速記學上에서는 記號學의 便宜에 마킨다。

吐의 言變問題

本籍語速記學에서는 吐의 存在로 因하여 速記號學上 많은 良記號를 吐에게 빼앗기는 弊端이 生 하는데 다시 言語上에서는 자칫하면 吐를 略 해 버리는 例가 許多 하여 文章과 言語의 距離는 實로 片言과 吐부러 異路를 讓出 시키고 있는 似이다。

例" 車를 타거라 (차 타) 그것은 (그 건)
" 이것을 가지고 (이걸 갖고) 신을 신어라 (신 신어) 等々.

다음에 ㅁ의 用語上 關係로 우리의 言語는 尊嚴 對話
對話 演語로 크게 大變해 지는데 이로서 ㅁ과 ㅁ의 二
大要素의 記号字的 解決이 우리말 總記學의 主眼點을
研求 做 得다。

註) ㅁ에 있어 外來語 流行語 俗語 雜語
古語 學術語 幼兒語 等々 諸學的 研究에 留意하라.

第二節 文字上 觀點

흔히 ㅁ은 日常 쓰는 우리말 日常쓰는 우리 글이
해서 疎忽히 하는 傾向이 많아 各學生의 例를 보아도
國語科目을 잘 하는 學生이 드물으니 諸君은 이제 다음
設問에 對 해서 얼마나 實力 있는 答案을 내놓을수
있는지 試圖 해 보라。

- ㄱ. 訓民正音에 있어 한글 字母의 構成을 圖示하라。
- ㄴ. 現用 한글 字母의 音價를 介紹 해 보라。
- ㄷ. 國文法 ㅁ가론의 基本을 圖示하라。
- ㄹ. 우리 文字와 言語의 相異 되는 處를 들라。

우리 文字의 變遷

漢字利用과 한글 創利의 時期로 区分한后 다시 細考

해 보겠다.

7. 漢字利用時代 우리나라에는 古記에 高句麗 始政前 三皇來文 云々 하는 說도 尙하나 信憑할바 못 되고 오직 漢字의 渡來와 漢字利用의 契頭의 出現 이 한글字 以前의 文字였던 것이다.

A. 國民의 文字創制 遲延의 理由 始稱 檀君時代

는 所謂人文 隨後에 있어 石材를 가지고 온갖 器 皿과 建築을 일 삼는 同時에 木土 尙 尙으로 補助役을 삼은 石器時代라 함은 史蹟에 알려진 바이요 이미 始稱人類는 言語라던지 生活制度가 具備된 程度의 文化를 保衛 하고 있어 適當文字의 創制使用이 있어야 할터인데 그것이 不可했던 原因은 檀君이 本據地를 現 滿洲의 松花江과 遼河의 左右平野에 두고 支派를 北支那에 까지 फै치여 (所謂 東夷國) 일찍부터 滿民族과의 交流가 激發 하던 때문이라고 推測함이 可할 것이다. 따라서 凡若 固有의 文字가 있었다 해도 그것은 漢字에 비해 使用價值가 不備 해서 自然 消滅 했을터인즉 古代부터 漢族의 勢力은 文化上 政治上 強大한 權威를 이民族에게 끼치여 왔으며 將來도 이影響을 永々 깨끗이 拂拭 할수 없는 地境에 있음은 毋論이다.

B. 漢文字의 專用과 民族語 緣故로 史에 於て 始
高句麗 太祖王 28年 (距今 1800 餘年前) 漢字書의
出現을 보았다 하니 漢字의 輸入은 高句麗가 開始
하였다. 이것은 尙當 그러할것이 高句麗가 그 先祖
들 卒本扶余 (檀君本據地) 人으로 하고 있는 緣由인
바 此文字文化가 淸國계도 그날 그대로 南方으로 傳
播 되어 新羅始祖들에게도 文字創始의 겨를을 주지 않았
으니 이로써 우리는 添着語는 添着語대로 常用 하
면서 文字는 表着文字를 쓰게 된 卽 音과 文이 正反
의 位置에 놓인채 지내온 터이다.

C. 吏頭의 出現 他漢文字의 利用은 結局 音語로 傳
役을 할수 있으되 言語記寫는 不可能 하므로 不得已
別敎 描寫가 생 하게 됨은 當然之事이다. 다만 此
方法이 新文字의 創案이나 該文字의 利用이나의 獨
결인데 前字는 拳族의 大爭이니 有靈音의 靈圖와 같지
않겠고 두敎 없이 后者의 결을 採한 樣인데 그 實依
가 卽 여기의 吏頭의 出現이며 此 現象은 日本도 同
樣이며서 (戶葉仮名) 史에 於て 新羅 3/代 神文王
時 薛聰이란 學者의 創依이라 記해 있으되 實은
薛聰이 整理統一의 決算을 했다 함이 可할 것이다.

然이나 吏頭란 漢字에서 우리 音字記号上 適當한 音字을 가려 내어 純粹한 우리말을 記號하는데 沒用한 그 記號를 말 하는것으로서 下記와같은 構成을 본것이다。

1. 漢字音을 그대로 使用한것. —— 乙을 果과
分 司 가 橫 양 算々.
2. 漢字音의 一部를 使用한것. —— 良라 敎이 乃
나 亦여 算々.
3. 漢字의 訓을 그대로 使用한것. —— 窟 바라 知 알
所 바 逢 맞 罷 두 不 안 算々
4. 漢字의 訓을 一部만 使用한것. —— 加 더 臥 누 算々
5. 其他 例外의것. —— 餘 여 亦 亦 中 해 加 다 算々
6. 同一字로서 二音用 以上의것. —— 有 이시, 있 只 기, 지
算々.
7. 二字 以上을 一音節로 利用한것. —— 乎乙 을 是 總
인 是乙 인 算々

大略 以上 일곱가지의 構想 아래 作成 된것인데 이 吏頭의 出現으로 우리는 古文學上 도움이 적지 않은바이여시 비록 그 用例와 用法이 非一般的이요 官文書나 歌辭記號로서 利用이 消極的인 面이 있기는

하였으므로,

1. 이를 國字의 南拓上에서 볼때 그 意圖와 價値는 높
이 評價 될것이며,

2. 古文學上 鄕歌의 全貌를 밝혀 주는데 크게 功績한
外에 添着語의 特徵이 此의 用言을 部分的이나마 正
確히 窺知 하게 된 것은 民族文學上에서 볼때 重
點스런지만 그래도 不事中 功事之事라 하겠다.

註) 아니 하옵시고 (안드리 산이시고) 이옵시며 (이옵오
며) 라 하오나 (여하있곤) 等々,

D. ㅁ와 略記字 上記 吏頭의 利用은 新羅代부터 高
麗朝 孝朝에 걸쳐 壽命이 긴바인데 특히 孝朝初에 이
르러 漢文을 읽을 때 句節을 헤아리기 쉬웁게 하고자
所謂 漢文에 ㅁ를 附 하는데 吏頭字를 利用 하게 되
자 吏頭字를 그대로 使用 하지 않고 略記字를 마련한
터이니 이는 漢字의 略記體를 联想 하게 하는 特異한
存在인 것이다.

例	1. 正字	可	焉	飛	焉
	本文	鵬 鵠	가	能言 하나	不唯 飛鳥 하
	略字	丁		ㄴ 飛	
	正字	休	是	焉	飛
	本文	며 崔 々	이	能言 하나	不唯 禽獸 이
	略字	糸	ㄴ	ㄴ 飛	ㄴ

正字	尼	羅
本文	ㄴ	라
略字	ㄴ	ㄱ

2. 正字		穉	屬古	乙
本文	夫	爲人子	告는	出必告
略字			ㄱ	ㄱ

正字	爲	旅	厓	尼羅
本文	有	常	하	하
略字		ㄴ	ㄱ	ㄴ

3. 正字	尼	於	能	乙	爲	去	加	隱	爲	催	尼	界
本文	이	어	나	ㄴ	하	거	더	ㄴ	하	나	니	라
略字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註

現用 韓民文字인 漢字는 이를 正確히 말 하자면 楷書 (別名 = 正書、眞書、今隸) 라는 字体 이여시 現用 印刷文字가 그 模範書體인바 此 書體는 國民記字上 에서는 行書라고 하여 一種의 寫體를 이루어시 楷書와 같은 貞線의 構成이되 內線味를 준 便宜法 字体로 된다。

然이나 楷書는 漢末로부터 六朝를 지내고 隋唐에 이르러 大成한것이며 이 楷書體와 別途로 流麗 하고 迅速性을 준 草書體가 亦은 漢末로부터 楷書와 나란히 一 字体를 形成 하여 現時 特殊層向에 使用 되고 있으며 또 漢字의 略記體 卽 記劃이 複雜한 字를 簡記하게

한 楷書가 併用 되고 있음도 同知의 일이다. 다시 漢字는 이를 時代的으로 分記 하면 아래와 같다.

1. 原始象形古文字 中國殷代の 龜甲이나 獸骨刻文이나 周代까지 使用됨.

2. 大篆 古文字를 크게 整頓한 字体이니 그 作者가 史籀(대전자주)라 하여 籀文이라고도 함.

3. 小篆 秦代에 이르러 李斯가 大篆字를 다시 簡便한 新體字를 構成한 것이니 別名 秦篆이라고도 하며 現時 印章에 常用함.

4. 隸書 然이나 篆書體는 記字上 綫面的인 데다가 複雜異妙한 것이며 上部層의 公式的인 字体임으로 戰國時代부터 平民의 常用簡體文字가 有하여 秦代에 大成 하니 現用楷書가 此隸書의 右身인 것이다. (이는 秦의 程邈의 作이라 함.)

5. 凡分 上隸書는 漢代에 더욱 發達하여 秦隸는 漸次 楷書에 가까우게 變樣되니 이것이 凡分이며 前漢末時부터 盛行하였다. 또한 이를 漢楷書에 비하여 漢隸라 稱한다.

6. 章草 前漢의 史游의 作이라 하며 楷書의 前身體字이다.

7. 楷書 現用 漢字体 唐代에 完成된 것.

따라서 韓民의 漢字利用도 그字体가 中國의 字体
 變樣과 步調를 같이 했음은 勿論이어서 震域最高의 書
 蹟은 龍岡의 粘輝碑인데 그 書體는 漢隸에 屬하며
 다음 眞與王 四碑는 大朝末期 楷書와 一體로서 그中에
 行書 草書가 섞인 異畧인바 漢字書體의 韓民利用은
 漢隸로 始依 되었을것이라고 推定함이 可할것이다。

註 字 例

象形(大篆)	日	月	水	木	川	子	女
楷書前身(大篆)	日	月	水	木	川	子	女
草書	日	月	水	木	川	子	女
楷書	日	月	水	木	川	子	女

象形(大篆)	兒	魚	身	母	目	身	母
楷書前身(大篆)	兒	魚	身	母	目	身	母
草書	兒	魚	身	母	目	身	母
楷書	兒	魚	身	母	目	身	母

L. 訓民正音時代 訓民正音은 別稱을 中國漢
 字 卽 華文에 對比해서 諺文이라고 卑稱 又は 反切이
 라 稱하다가 近來 한글이라고 名稱을 變樣함과 同時에
 字數나 記書式의 變樣도 적지 않다 元來가 大韓民族의

聲帶作用은 效果 있게 捕捉 하여 文字 없는 事物을 完全
一掃 시킴과 아울러 國民文字의 價値를 表音的으로 最高度
로 發揮 하는 役割을 물림됨 없이 配慮하여 創制된 바
이언만 漢文學의 뿌리는 吏讀로 滿足할망정 正音記字를
排擊하는 民族的 矛盾을 余地 없이 비쳐내며 國民文字
의 價値性을 잃은채 長久한 歲月을 먼지와 灰 속에
파묻치게 한것은 참으로 遺憾스러운 일이다.

然이나 檀紀 3777年 世宗 26年 10月 9日에 頒布를
받은 正音은 다음 世祖의 消極的인 國民啓蒙에 있어서
燕山主의 亡滅的인 暴行으로 因하여 正音에 關한 書籍
消火와 使用罪罰主義로 出生后 갖난 正音史의 生命이
없을것 같더니 果是 不圖 82年后인 中宗 22年代에
와서는 드디어 喉音의 石 와 唇輕音이 全無 없어져
서 初聲이 16 中聲이 11 終聲은 正音에서 初聲과
終聲이 變된것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의 8音으로 大幅
的인 變樣을 보았으니 (崔世珍 著 訓家字書) 宣祖肅宗朝
에 이르러 詩歌나 小說文學의 飛躍的인 抬頭를 背景
으로 하여 正音은 다시 꽃이 되게 되고 英祖 正祖時에는
色彩를 加 하게 된 세음인데 그間 다시금 初聲에서 △
ㅁ 가 없어지고 中聲에서 音이 模糊 하게 된채 家範

哺艾子の 記字格이었던 우리 한글이 倭國에게 合併 된
 后 訪 20年間に 걸친 愛國的 學者들 (周時經 崔
 益培 李熙昇氏等)의 努力의 結晶으로 民族文字다운
 偉力은 이제야 가추게 된 事이다。

이제 初期正音의 構成體를 圖示 하면 아래와 같다。

1. 初 聲 의 分 類

	平 音	硬 音	漱 音
牙 音	ㄱ ㆁ	ㄲ	ㅋ
舌 音	ㄷ ㄴ	ㄸ	ㅌ
半 舌 音	ㄹ		
唇 音	ㅍ ㅂ	ㅃ	ㅍ
唇 輕 音	ㅍ ㅂ	ㅃ	ㅍ
齒 音	ㅈ ㅊ	ㅉ ㅊ	ㅊ
半 齒 音	ㅊ		
喉 音	ㅇ ㆁ		ㅇ

但 硬音에는 左記外에 ㅃ ㅃㄱ ㄸ ㄸ ㄸ 等 中
 國音이나 民俗音을 任意로 表記할수 있게 表記上 一定
 한 規則을 내세우지 않았으니 現 綴字法은 이를 規
 則化 한것이고 다시 ㅇ는 現 英音으로 ㄴㅇ 音 △는

乙音 乙는 f 음이었다。

2. 中聲의 分類

初 出 中 聲	ト 十 上 T -
用 出 中 聲	F ㅋ ㅌ ㅠ
合 用 中 聲	(例 外 ト 十)

但 乙音은 近日까지 “아래아” 라는 이름으로 쓰히였으나 그音面 (李崇寧說 ト와 十의 音面) 에 처해
서는 現人은 確聲을 模寫 하기 難하다. 다시 中
聲合用도 甚 甚 算々 自在로 쓸수 있게 되어 있
으며 이 合用 可로 重中聲이 數 많 이 생겨 난
새음이다。

3. 終聲의 分類 — 初聲에 있어 平音의 平 聲과 硬
音全部와 軟音의 平 聲을 除外한 17個音은 그全部
가 終聲이 될수 있게 되어 있어 이는 現 綴字法
과 同一한바이다。

但 쌍받침에 關한것은 正音에서는 亦是 別敎規
定이 없이 音記上 各人에 마진 바이나 現用 規定
은 純全히 倭政下에 考究된 所産이다。

□. 現 한글 漢字 併用時代 한글의 表

音的 偉力の 絶对性を 認知 하여 国民文字로 用調聲
 은 시킨 現狀이언만, 表音文字와 表意文字의 各長點은
 韓民族으로 하여금 어느 한가지에 歸着 시키기가 艱
 자기 克難한 關係로 한글字가 아니면 語音을 記
 寫 하지 못할 言語 外로는 固前히 漢字를 使用하고
 있는. 우리 民族 記字는 結局 日本이나 同様 表意
 字의 字数制限으로 在 記字上 革新을 國家的으로
 圖 하는 外에는 當分向 한글 專用의 級階로 突入
 하기에는 많은 無理가 伴할것이다. 卽 우리말에서 漢
 語 낱말을 모조리 改語하여 벗꽃, 게집아해 (梨花
 女子) 式으로 訓語로만 記字化 한다면 音文으로는
 效果的일것이나 漢字 낱말을 音대로 表記 한다면 意
 思表示上 同音異語가 甚한 現狀語의 現狀을 一朝一
 夕에 改語 한다는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文字가 言
 語의 記字로서의 生命을 維持해야 爲은 論을 逆하
 지 못 하는 限 우리의 記字는 한글과 漢字併用의
 態를 벗지 못할것은 勿論이다.

現用 音字 類名稱 圖

現用 한글音字를 音別로 分類 하면 다음과 같다.

~ 40 ~

初聲 子音 닿소리	후닿소리 單初音 單子音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淸音 맑은소리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濁音 흐린소리	ㄴ ㄹ ㅁ ㅂ ㅅ ㆁ ㆅ ㆆ
	漱音 거듭닿소리	ㅋ(ㅎㄱ) ㆅ(ㅎㅅ) ㆆ(ㅎㄷ) ㆇ(ㅎㅂ)
中聲 母音 홀소리	硬音 된소리	ㄱ ㄴ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후홀소리 單中音 單母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硬音 重中音 重母音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거듭홀소리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거듭경소리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終聲 받침 끝소리 끝닿소리	후받침 單終聲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상받침 경받침 重終聲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但 初聲의 ㅁ와 終聲의 ㅁ는 發音上 初聲은 無聲 終聲에서는 "ng" 音이 됨.	

長 音	中 聲 音 을 길 게 하 는 음	밭 (簾) 벗 (友) 중 (僕) 적 다 (少) 等々
短 音	中 聲 音 을 짧 게 하 는 음	밭 (足) 벗 꽃 중 (鐘) 적 다 (記) 等々
轉 音	로 인 (노 인) 료 리 (요 리) 러 행 (여 행) 라 팔 (나 팔) 等々	리 음 變
平 音	硬 漱 音 外 모	예 사 달 소 리, 가 나 □ 리 □ 바 人 □ 자

同 音 異 義 字

發 音 上 에 서 는 同 一 音 이 되 實 際 語 義 에 있 어 서 는 各 異 한 差 가 有 는 語 字 를 말 하 며 韓 語 에 는 漢 字 發 音 에 그 例 가 加 一 層 詳 하 다 .

例 기 구 (기 구 伏, 奇 軀 器 具 機 具 氣 球 祈 求 奇 口 等々)
 및 (및 및 및 및)

차 다 (蹴 佩 寒 冷 差 異 等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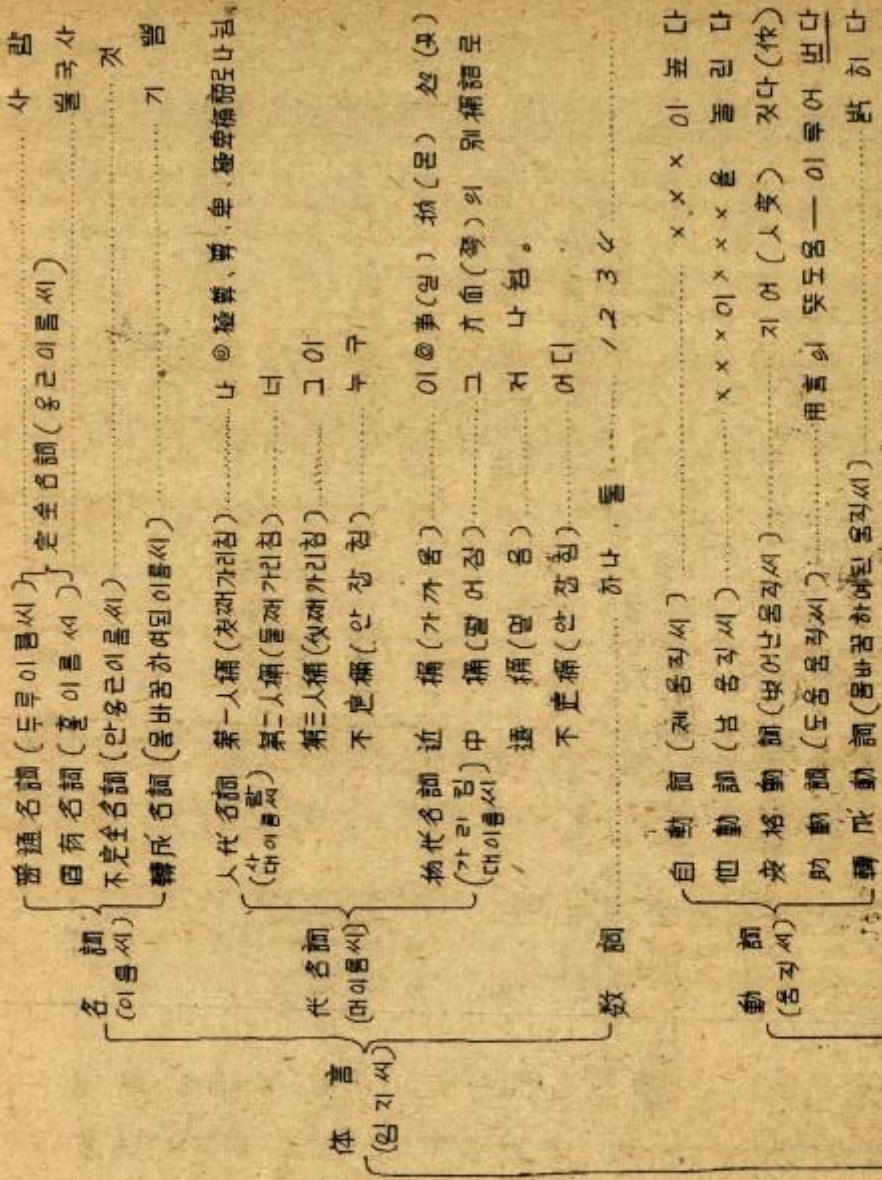
同 字 異 音 字

漢 字 에 서 는 二 音 用 字 韓 語 에 서 는 長 音 短 音 을 말 한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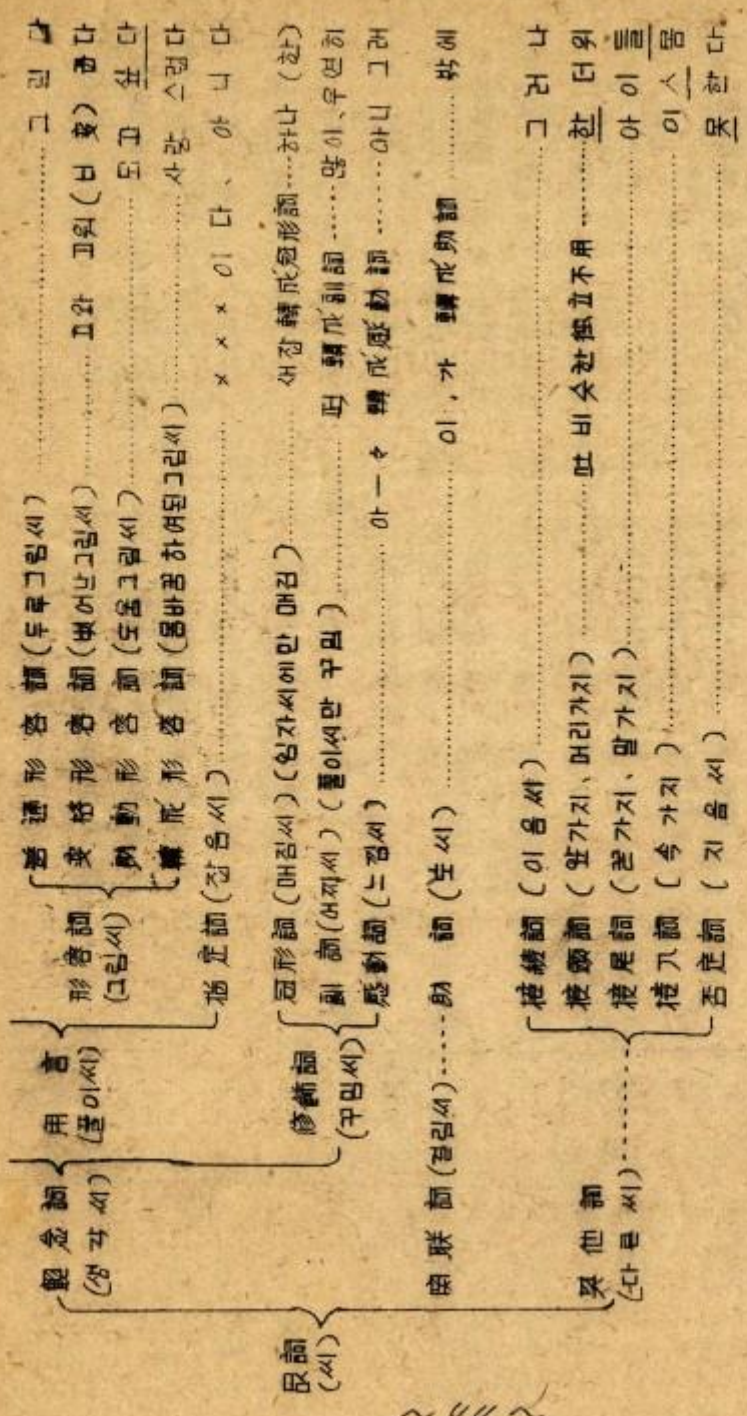
例 綠 (살, 쇠) 更 (경, 정) 降 (강, 향) 분 다 (吹, 肥) 살 (生, 皮) 等々

씨 가 름 의 聲 母

下 例 는 崔 鉉 培 氏 말 音 에 依 據 .



~K3~



第三節 普及의 難卓

認識과 利用不足

速記學이라면 特殊技術층만의 專用으로 여기는 것이 所謂 韓國 *Intelli* (인테리)의 見解이다 美國서는 大學生, 秘書 치고 速記와 다이푸를 常識化 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너무나 沒理解한 것이 韓國이다 建國百十年이 經過하였고 美의 物質과 精神文明을 受받는바 許容하건만 비단 速記學만은 文教行政上 何等의 別措置를 受 못하고 貧困한 創案者의 個人的 努力으로 그대로 國家的 必需 要求機關에는 겨우 體面을 維持 하리만치 所謂 急所樂 痛 繼策에 應하고 있는 그 程度로 政府나 民間이나 滿足하고 있는 程度이다.

다시 文化人의 尖端이라 할 *journalist* 亦 速記學의 利便을 受 못하고 있어 이러한 認識不足과 文明利便을 積極利用 하려는 文明的 意圖의 微弱으로 아직 處女地의 開拓狀態에 있는 것이 韓國의 速記學이다.

青年層의 人口問題

美國開拓史에 依하면 一躍千金을 꿈 꾸는 우리들의 連

總한 向學으로 말 들고 있는데 이와 恰似 하게 現
時 美國의 青年들은 眞摯한 資格完成과 專門的인 研究
출세로 부터 國家文化的 幹部가 되려는 理想보다는 머
腦에 秩官이나 層長 社長 醫長을 꿈 꾸고 - 論文 -
文章으로 學士나 文筆界의 王者가 될것처럼 即 거드러거
리는 虛欲과 自慢心이 橫溢 해 있는 面이 많다.

이것은 建國初期의 人材不足과 人爭行政과 高進의 沒
落으로 適格者의 適所가 뜻과 같지 않음에도 起因 한
다지만 그런 處는 오히려 無色할 地境으로 學生이 劇
場 茶房 飲酒 社交에만 노이 가고 履歷書만 채우려
는가 하면 學父兄은 一獲 億萬金과 野卑한 出世術策
場에서 子息을 길러 내니 黃金萬能時代의 脚光下 育
成되는 青年層의 社會的 靈魂은 참으로 悲慘한바 있다.

外國留學이 學究上 利益은 하지만 大部分의 學生은
벼락갑두와 遊學的 住處를 띠고 있어 이러한 一時的인
社會的 腐敗相을 能히 正視하고 앞 날에 民族을 蒸
하려는 心襟을 가진 青年層이 되며 감에따라서 速記
學도 認識利用의 對象이 될것이다.

似而非速記號問題

~46~

어느 시대 어느 國家社會에서든지 正當한 業을 抑壓
하고 欺騙과 不正을 일삼는 徒輩들이 殘出 하는 것인바
古來로 善과 惡 正義와 不正義의 對決은 依例로 攪
攪攘攘한 宣傳術로 正業을 害치므로 利得을 더 많이
보려는 奸計에서 生起하게 되는데 原則이다.

따라서 似而非速記學의 出現은 일견 速記學을 習學
하려고 決意한 青年層에게 甚大한 打擊을 주어 雨後の
筍을 喪失하게 하는 한便 完全速記學까지 不信 하며
다시 速記學 全體를 惡評하는 心理를 가져 와서 速記
學 普及上 逆效果를 자아범은 甚히 遺憾之事라 아니 할
수 없으나 似而非派는 平生 그 主眼을 못 버리고 더욱
氣勢를 뿌리려는게 例爭이다.

習學時의 對 識見問題

한 職業速記士는 現韓國에서는 俸給者로서는 最高의
待遇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副業으로서도 可能하다.
그 理由는 速記가 아직 技術的인 取扱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몇個月에 完全習學 하여 實用에 供
할수 있으려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尙殘이다 末手
가 對패질 處질 하나 잘 하려 해도 몇년이 要하는데

~ 47 ~

더욱이 學業이 그리 쉽사리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他人이 自己의 知識을 集中시킨 用言을 原稿化 할 수
있는 資格으로 오직 速記學의 熟練만을 꾀한다 해도
一年費攻이 必要한데 "다이두"나 美容 卽樣 輕率 하게
取扱 하려는 心算은 結果하면 職業速記士로서의 進
出은 到底히 不能 하다.

要는 自己의 學業實力에 비추어 時日短縮規金을
버리고 攻學 하는데 成學의 榮光을 보는 것이지 無理
4 또는 尙事에서든지 大禁物임을 自覺 해야
된다.

眞 理

眞理에 산 그 사람들

견은 없었지만

眞理의 호포는

求劫히 빛난다.

~<2~

第五章 速記號以文化的價值

第五章 速記號의 文化的 價值

第一節 言錄은 生史이다

人類의 史는 모든 人間과 民族本位의 生史에 對한 口傳과 記錄과 文明과 戰爭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極히 平易한 論이다. 이제 現世를 未來에 傳함에 있어 史學家는 亦 社會國의인 公衆의 言錄과 社會文化의 記錄과 戰爭의 記錄이 尙黨爭을 主張할 것이요 이에는 正當한 言錄 速記號學에 依해서 正常化 되는 것이 極히 重要한 自明之理 일 것이나 速記錄의 價值가 얼마나 史學上 重要한 役割을 하는지 覺知할진대 正當한 言語速記錄이 없었던 過去史가 內容 하고 있는 誤謬를 一掃 하려는 氣運이 國家的으로 提唱 되는 마당에서 速記號學의 價值는 더욱 빛날 것이다.

第二節 言錄과 政治

王政時代에로 王自身의 決斷性은 側侍大臣들의 意見을 無依는 無視하지 못 하며 늘 論議가 거듭 되었었고 그 事實은 大略을 記史로 載된 것이다. 이 記史가 勿論

自總督 王의 銘心手가 되고 礼法道徳이 되어 國家生活
領導의 根幹이 되었으니 現世에 있어 各種談會録이나
公共的 會談録이 善政의 要諦로서 利用 됨은 毋論 이다。

第三節 言録과 文化

모든 文化人 個々人의 言録이나 文化人 集會 討論의 言録
이나 建設的인 對談 座談이 社會文化上 重要な 課業이
라 할진대 그 速記錄은 即時으로 民衆一般에게 報導
됨으로써 비로소 價值가 附隨 되는 것이다。

新聞通信社와 速記

會談 座談記事나 地方支局 相互向의 緊急記事의 連
絡 外國 "뉴스"의 放送을 通한 把握으로서 時刻을 다
루어 正確迅速히 大衆에게 世事를 알리는것이 新聞通信에
負課 된 嚴丈의 使命일진대 여기에 記事作成人인 記者의
記錄的 能力이 國民文字의 輪廓에 依한 旧體를 脫
하지 못 하고 있는 現況이 果然 新聞使命의 目的을 眞
實로 履行 할수가 있는지 無는지 新聞人은 再考의 余地
가 큰바 이다。

더욱 發言人의 意見 尊重面에 있어 겨우 그 大體를

要記 해 가지고 自意로 適切取捨 하는 現記者의 取
材方法 乃至 “프린트” 物의 伝達式 記者 取材活動이란
結局 韓國記者는 外觀나 辯論氣概에 있어서는 文明國人
과 相似 하되 實質的인 面에서는 力量不足이라는 缺陷
을 露出 시키고 있는 그 緣由가 오직 速記를 取便하
지 못 하는데 있는바이니 地方記事가 몇일씩 못어서 回
南이 된것을 掲載 하고도 新聞이요 하는 이런 矛盾性이
拂拭 되지 않는 限 韓國新聞은 旧南과 誤南의 批難을
受 하지 못 할것이다。

放送과 速記

譯報上 又は 文化上 報道上 外國放送을 受錄 하는
事業은 어느 國家든지 國家的인 重大事이다。

即 “元一” 報譯上에서도 放送은 聽覺을 通한 一
時的인 言語報道라는 短處는 있으나 新聞보다는 迅速
性이 優位에 있는니만치 그의 言錄 亦 같은 效果를 거
둘수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敵系國側의 情報蒐集上 放送
과 速記는 所期以上の 效果를 보는 例가 많아서 政治
的으로 輕視 勿 할바이요 文明文化上 他國의 放送 “커
취” 로 時向 時期的으로 得效能의 中繼가 速記男임은

의 論 이 다 .

學生과 速記

速記學은 必히 一流 職業的인 技術面에서만 効力이 發揮되는 것은 아니다. 速記學의 原理 原則만 學習해 두면 自 意대로 筆跡과 口의 記號를 必要에 따라 利用할 수 있는 것 이니 學生은 講義 記錄上 自在性을 發揮 할 수가 있게 되고 速記錄의 撰文은 口의 便을 주게 되어 一學面得 인 터이나 이의 實現은 前言한바 高等科에 必 須科目 으로서 速記學이 編入 되는 한便 師範大學 各科 亦是 必 須科目으로 採入 되어 教師들 確保 하는 等 文教行 政上 劃期的 學爭가 있기前에는 不可能한 일이다.

第四節 言錄과 利用範圍

前言과 重複이 되지만 大略 下記와 같다.

- ㄱ. 參議院 民院本會 및 分科會의 記錄.
- ㄴ. 市 道 面 會의 記錄.
- ㄷ. 國家的 會談나 外交的 會談.
- ㄹ. 司法機關의 審問 調查上 記錄.
- ㅇ. 新聞 通信 放送 雜誌等 報章機關의 記錄事務.

出. 各種演語의 記錄.

人, 文化人 學生 秘書의 筆記上利用.

○. 他言語나 意識의 迅速記錄을 要하는 一切業務上利用.

註 價值는 積極利用에서 發揮 되며 利用은 完全速
記의 存在로인 기록 된다.

金剛石도 닦아야 光彩가 나며 "에메랄드"도 探
石 해 내야 寶具의 價值를 갖게 되는 것이다. 學者
도 學說을 내세워야 學者의 面目이 發揮 되는 것이다.
아무리 速記學가 言錄文化上 不可缺의 特性和 同 같은
價值를 發揮 하는 것이라 해도 社會나 社會人의 利用이
微溫的이면 泥中玉에 不遇한 것이다.

이와 同樣으로 速記學을 構成 하여서 速記學의
文明利器을 社會에 提供 해 놓고 創案者가 獻身的
努力을 해도 應當利用 해야 功을 줄 알면서 束手無策
으로 當日求食에 汲々하는 文化機關과 政府機關의
使用保留的 態度가 繼續 되는 限 그 價值性은 暗中無光
을 거둬갈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原子力의 價力
으로 他國의 모든 科學的 惠存이 丁然非常히 된대 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他國民만이 享有 하는 福分이지 原子
力 不利用 國民들이야 眞眞만 커다 勞苦 苦笑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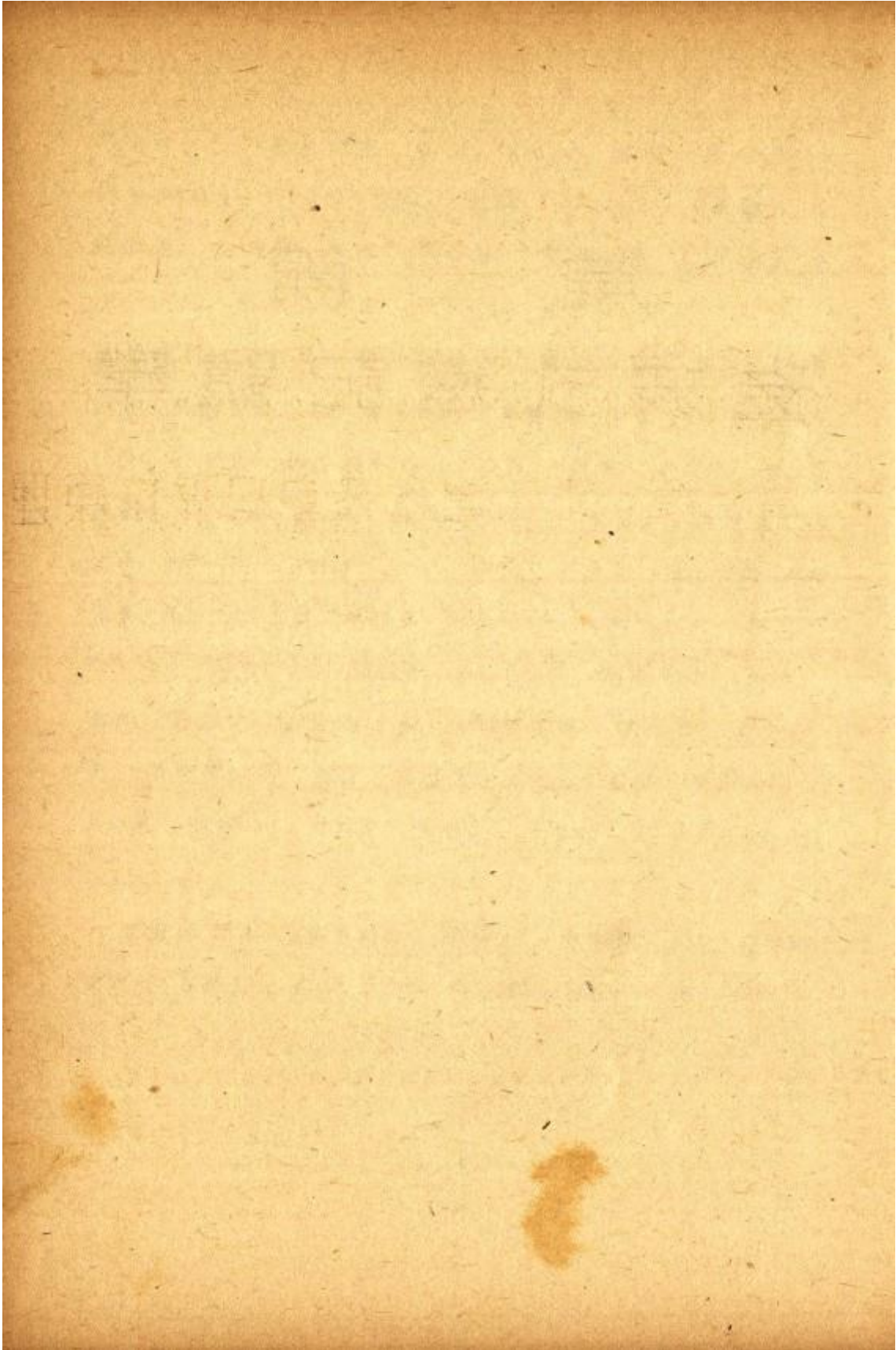
外에는 何等의 福利가 있을는지? 科學的 文明은 人類
가 高度로 發育 하는 根源이며, 이를 最大限度, 利用 하여
自身之事로 만드는 國民이라야 高度化 하는 國民이요
民族이 될진대 여기에 韓國은 美國의 文明을 가장
近接히 느끼고 있는 터이지만 그 무엇이 民衆속으로 文
明化 했으며 高等民族的 德沢을 주었는지? 구레여 一
言 하면 거미줄같이 퍼진 “배스” 交通網에 게나 있을는
지? 非然이면 痛去來나 낡은 黑茶色單服이나 救濟用
百衣나 얻어 입고 飮食 맛이나 단단히 씹, 그것을 高度
化 된 文明民族的 產物이라고 일컫는자? 生産機械이
래야 美製機械 美製原料로 美製品의 模倣産物을 내
며 香港製 비누감이나 치솔 따위를 내는 그것을 가지
고 文明化 했다고 할는지? 學者나 政治家나 文化人이
나 學生이나 印버릇관이 外國原書 翻譯과 그림과 寫
眞과 雜誌의 譯介로써 科學의 高度化를 云々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文明化 했다고 할는지? 來日
보다 今四만을 重視하며 文明人을 自身營爲하려는
刻薄浮雲 같은 個人主義 利己主義 金錢主義의 이 世代
今에서 眞正으로 民族的인 文明高度를 念願 한다면 理
論보다 實際教育의 均等化를 爲如해서 “구라비야, 版

하나라도 外國에 遜色 없이 내놓고 雪糖 한가지라도
他國 謀利에 흐르지 않고 鉛筆 하나라도 外國 倣보다
稱訟을 받게끔 하여 外國製 崇拜心을 自然 泯滅하
게 干先 産業革命을 이룩하며 農業을 近代化하여
生産率을 올리고 副食料理의 栄養的 調食法을 強調
하여 諸般 社會生活上 非文明的 要素를 하나 하나 除去
改良 한다는 國民運動을 強力히 推進 시키며 民間과
政府가 一體가 되어서 援助文明物의 求索과 嘆服의 地
境을 벗어나는 길이란 오직 文明의 利器를 國民常識常用化
시킬수 있는 手段의 뿌리를 民衆속에 뿌리박히게 育기를
다 하는 態勢下에 韓國이 놓여지도록 劃策實踐 하는
外에 道理가 없거든 辨國民의 無選한 奮起로
서 美國文明이 가진 空想을 眞實로 우리 民族의 것이
되기에 遺憾이 없기를 期함이 今의 先決問題일 것
이다.

速記字母이 모름지기 韓族의 利器로 用通用이
되는날 亦은 이에 學하여야만 됨은 勿論이다.

第二篇

學號記速式波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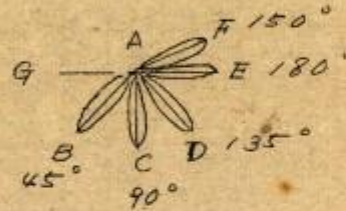


第一章 한글 基本音記号構成原理

第一章 한글基本音記号構成原理

第一節 記号案出圖

直線 GE 上 A 點處 左右上下로 一定한 角도를 가진 諸方向과 諸線으로 作 下記와 如히 構成된다.



第二節 頻用初声과

初声記号配置原理

頻用初音이라 함은 우리의 語彙에 있어 使用 되는 初聲音의 頻用度 即 發기를 類字的으로 알아 버기 爲해서 各種 國語刊行物이나 國語의 實態를 基로 一定한 %를 定하여 그 語彙內에서 初聲 中聲 終聲의 三種을 分類한 후 다시 많이 쓰이는 音韻의 次例를 明瞭히 把握한 國家의 調査錄에 依한 初聲使用度類의 實態를 말하는 것이다。

然인 則 우리말에 있어서는 文敎部의 文字頻度調査에 依

據 하건대 總語彙 56,485에 總頻度 2,218,727에
 대한 調査要録中 初聲의 實態와 初聲記號의 方向級數
 는 下記와 같다.

初聲實態表

第位	初聲	語彙	頻度	第位	初聲	語彙	頻度
1	○	8,979	733,800	11	ㄷ	3,697	39,878
2	ㄱ	7,702	303,353	12	ㅈ	501	33,927
3	ㅋ	3,500	163,840	13	ㅊ	1,557	23,360
4	ㄴ	6,871	155,515	14	ㅌ	694	12,979
5	ㄷ	6,618	142,081	15	ㅍ	1,127	15,095
6	ㄹ	2,037	132,914	16	ㅍ	351	14,065
7	ㅎ	3,253	120,433	17	ㅍ	437	2,038
8	ㅇ	3,649	119,579	18	ㅍ	242	6,463
9	ㅁ	4,957	115,414	19	ㅍ	278	5,259
10	ㅂ	158	159,724	合計		56,485	2,218,727

初聲記號級數

A級——A~F 上曲方向 (○)

B級——A~E 直方向 (ㄱ) 卽 A~B 直方向 (ㅋ)

~59~

シ 級 — A ~ D 下曲方向 (ク) 과 A ~ B 下曲方向 (ス)
A ~ F 直方向 (セ)

D 級 — A ~ E 下曲方向 (ク) 과 A ~ D 下曲方向 (カ) 과
A ~ E 上曲方向 (コ)

E 級 — A ~ C 面曲方向 (ケ)

F 級 — A ~ D 上曲方向 (コ)

G 級 — A ~ C 直方向 (カ)

H 級 — A ~ B 上方向 (コ)

I 級 — A ~ D 直方向

註 此級數觀念은 創案者마다 異見인데 此 意見은 結局 完全速記號와 不完全速記號의 첫 介岐를 이루게 된다 또한 硬音初聲과 ㄹ 激聲初聲記號는 第五節에서 別途 制定 한다.

第三節 頻用中聲과 中聲記號配置原理

頻用中聲이라 함도 亦是 初聲의 境遇와 같은바인데 同 文敎部 調査는 初聲과는 달리 認聲數를 부정 주리며 前 記 初聲의 總갯기에 5%에 該當 하는 192.464를 工率로 中聲의 갯기 次例를 求한것인바 뜻은 이런

程度의 調査만으로 尙도、

A. 速記學 研究者에게 記号에 關한 合理的原理를 無
難히 認識 시킴으로 尙 記号 符號라 해서 個人的으
로 아무렇게나 다루기 쉬운 創案者의 考案上 非
科學的이며 不合理的 點을 指摘 할수 있는 音의
實態를 提供해 주었고、

B. 다시 速記學을 떠나서 打字機의 音字次例上 配置
能率面의 參考가 되겠고、

C. 印刷工場의 活字準備關係面의 改良 促求와、

D. 綴字法上 兩研究 卽 不頻用音의 整理問題나、

E. 言語의 特性研究、

上 上述할 終聲과 더불어 그 效果는 決코 적게
評價할 問題가 아닌것이 다.

中聲實態表

算位	中聲	頻度
1	卜	46,242
2	丨	30,209
3	一	25,004
4	十	20,646

算位	中聲	頻度
5	上	20,209
6	丁	12,603
7	卍	8,646
8	卐	7,661

第位	中声	頻度
9	H	7033
10	ハ	3086
11	ヒ	2587
12	フ	1850
13	ヘ	1710
14	フ	1585
15	ヒ	987

第位	中声	頻度
16	ハ	868
17	ヒ	766
18	フ	562
19	ヘ	182
20	フ	58
21	ヒ	30
合計		192,464

中声記号級数

이는 다시 外觀的 一般人的 級數와 實地 速記筆上 級數로 二分된다.

1. 外觀的 級數

A 級 — 5mm 直線及 10mm 直線 (H, I)

B 級 — A 級 + 1mm 小円 (-, +)

C 級 — 15mm 直線 (L)

D 級 — 10mm 直線 + 3mm 大円 (T)

E 級 — 5, 10, 15mm + 他線 (H + H')

~ 62 ~

L. 實地速記 筆上級 英文

A 級 — 10 mm 直線及 10 mm 直線 + 1 mm 小冊 (ト, 1)

B 級 — 5 mm 直線及 5 mm 直線 + 1 mm 小冊 (ト, 1)

C, D, E 級 — 7 의 C, D, E 級과 同

註 往々 理論과 實地가 符合 되지 않는 點은 此等 例에 在 하다 記号學에서 實地 面에 在하여 理論대로 實地的 效果를 얻지 못 하는 例가 생기는데 此點은 初學者로는 理解할 筈이 없는 것이다.

中聲音字의 縮小 合用原理

27 中聲音은 兩出中聲音 初出中音에 合用시킴으로 卅 ㅏ ㅑ ㅓ ㅕ ㅗ ㅛ 의 6 個音이 줄고 다시 類音의 實際關係로 總 9 個音에 合用을 꾀 할수 있으니 此 縮小理亦 是 遠波式의 特性이다.

例 基本中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ㅡ ㅢ
合用中音과 (ㅏㅑ)(ㅓㅕ)(ㅗㅛ) (ㅜ) (ㅠ) (ㅡ) (ㅟ) (ㅠ) (ㅡ) (ㅢ)
兩合用中音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ㅡ) (ㅢ)

註 第一篇 第四章 第一節 母音類音問題 參照.

第四節 頻用終聲과

終聲記号配置原理

終聲을 가진 우리의 韓語文字는 그 使用率이 높다 함은
 前言한바이나 文敎部調査에 依할진대 10万單語에서 그
 작기 比率이 約-22% 即 거의 半數를 占 하고 있음
 을 알겠는데 이 現象은 다시 말 하면 記號學上 一
 大 難關이여서 이 難關克服上 務異한 獨創的 考究가 必
 緣由가 되는것이다。

우리의 終聲總數 22 音도 亦是 中聲音의 縮少의 理를
 따라 最少限度로 縮少 해야 되는 向題가 生한다。

다시 말 하면 名將軍은 兵士를 아끼며 名政治家는
 人材를 아끼며 經濟家는 物資의 浪費를 아끼듯이
 限度 있는 速記號로써 越 大한 語彙를 縮少로 하는 記
 號學에 있어서 速記的 良記號를 아끼고 아끼며 가장 初用
 하려한것은 當然之事인則, 너무나 엄청난 (現用 1254
 音字) 우리 基本音字의 可能的 限 大幅的 縮少를
 꾀 하려는것이 即 終聲의 配置原理인것이다。

終聲實態表

第位	終聲	類	度
1	L		25.444
2	己		18.137

~ 64 ~

第位	終声	頻度
3	○	9,905
4	ㄱ	7,556
5	□	6,243
6	ㄴ	3,795
7	人	3,504
8	ㅅ	2,820
9	ㅈ	1,039
10	ㅊ	1,035
11	ㄹ	748
12	ㅍ	534
13	ㅌ	470
14	ㅍ	412
15	ㅍ	372

第位	終声	頻度
16	ㄷ	341
17	ㅌ	283
18	ㅌ	240
19	ㄷ	117
20	ㄷ	94
21	ㅌ	63
22	ㅌ	59
23	ㄷ	4
24	ㄷ	2
25	ㅌ	1
26	ㄷ	1
27	ㅌ	1
合	計	83,220

終声音縮小 合用原理

純全히 그 音價에 따라서 同音聲끼리 合用한다.

例 L (ㄹ, ㄴ) ㄷ (ㄷ, ㄸ, ㄹ) ㄱ (ㄱ, ㄴ, ㄷ, ㄹ)

□ (ㄷ) 人 (ㄴ, ㄷ, ㄸ, ㄹ, ㅅ, ㅈ, ㅊ) ㅅ (ㅅ, ㅆ, ㅈ)

~65~

終聲記号의 級敎

A 級 — 各一 矩圓點과 字頭層一 條 直線 (L, E, O, F)

B 級 — 字頭層 小日夕 文 又 圓點과 左斜下 一 條 點 點 (D, K, H)

註 尙終聲舊字는 言語上 又は 記号學上 變用語音에 따라

變字로써 다시 大體으로 略記号字化 하는데 이 現象은

文敎部의 舊기 調査書 (4288年 6月完成) 에 依 據하 改

依 된것이 아니고 이미 4278年에 選波의 小號으로

의 創案完成 된것임을 附言 해 둔다.

第五節 硬, 激, 거듬, 類音 및 類音上 再合用의 諺音의 記号記法

上記한바 合用原理의 實例으로 因하여 우리 音字全部를 個々로 速記号字化 하기가 不能 하므로 이에 特히 下記와 如히 區別記号를 別途 定 하나 此記号는 實地 速記上 에서는 特殊語音 (國有名詞) 外에는 使用 하지 아니 해 도 選文上 支障이 設음을 말 해 둔다.

7. 硬音記法 ㄱ ㅋ ㆁ ㅈ ㅊ 의 硬音表示는

各々 平音記号의 中向 一 條 下에 位置를 利用 (但

ㅈ은 中向 右一 條 位置를 利用) 하여서,

1. 基本音인 때 (ト, ク, シ, T, H, ケ, 기 9個)에는 加點.

2. 거듭 음인 때 (ト, ク, シ, 기, H, 케 6個)에는 下에 連할
거듭 符號를 同位置에다 쓰고.

3. 類音上 合用인 때 (나, 거, 기, 게 4個)에는 下에 連할
類音 符號를 쓰고.

4. 類音上 兩合用인 때 (기, 버 2個)에는 下에 連할
兩合用 符號를 同位置에다 쓴다.

L. 激音 ㄱ 記號 平音 ㄱ 記號를 兼用한다. 그
리고 待히 區別時는 硬音 記號 記法을 그대로 中向
上 一 符位置로 옮겨 쓰면 된다.

C. 거듭 음 符號 基本音 ト, ク, シ, T, H, 케의
記號 中向 下 (大, 日은 中向 左)에 附着 시키여 二 符以
內 A~B 方向 歪침을 加 한다.

ㄷ. 類音 符號 基本音 ト, ク, 기의 記號 中에 下
(大, 日은 中向 右)에 附着 시키여 二 符以內 A~D
方向 歪침을 加 한다.

ㄹ. 類音 上 兩合用 符號 基本音 기의
記號의 中向 附着으로 A~C 二 符以內 歪침을 加
다. (但 日, 文은 A~E 一 符 直 歪침을 쓴다)

註 ㄱ, ㄷ, ㄹ의 同一 記號 使用 樣相을 보고 가

則 “가 파 까 까 파 카 카 파” 의 9個가 兼用이 되나 此等
은 言話中 錯誤가 될 用例가 稀少 하므로 還文上
誤訳이 絶对 없으며 他兼用音字 亦 同様임을 알것
이다。

스승이여

스승이여 へ

몇번이나

실패 권에야 成功 합니까?

그를입니까?

『아니!』

그의 100倍 까지라도

이러시고 또 이러시라』

第二章 逸波式 基本符号記法

~ 69 ~

初声	中声	花角度		ト	フ	此	一	日	月	L	山	T	π	一
		花	角度											
ㄟ	A~E	180°	10	—	—	—	5	—	—	15	—	10	10	5
ㄩ	"	"	10	—	—	—	5	—	—	15	—	10	10	5
ㄚ	"	"	10	—	—	—	5	—	—	15	—	10	10	5
ㄌ	"	"	10	—	—	—	5	—	—	15	—	10	10	5
ㄍ	A~B	45°	10	—	—	—	5	—	—	15	—	10	10	5
ㄍ	"	"	10	—	—	—	5	—	—	15	—	10	10	5
ㄉ	A~D	45°	10	—	—	—	5	—	—	15	—	10	10	5
ㄒ	A~E	180°	10	—	—	—	5	—	—	15	—	10	10	5
ㄎ	A~C	90°	10	—	—	—	5	—	—	15	—	10	10	5

~ ~ ~

II	A~B 45°	((((((((((6	6
ø	A~D 135°	((((((((((6	9

中絶 切替	I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2									
0									
н									
нн									
у									
уу									
о									
з									
зз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야

Handwritten examples of calligraphic strokes and characters, including the characters 天, 三, 四, 五, and various decorative flourishes.

~ 75 ~

※ *코P*의 線 ※ —— 曲線과 筆로써 構成이 되어 있는데 寫은 7行字만 暗記하면 他行은 初聲의 聲만 略리지 記法은 同一하나가 이 卽 한글 字母를 暗記하는 것과 同様 容易한 일이다. 區別符號 亦是 硬 敎 거들 類音과 기 號의 符號만 暗記하면 그만이나 그亦 한글 字母의 暗記에 比해서 어려울바 없다.

然이나 速記 字母란 暗記만 해서는 所用이 없는 記字가 되고 만다. 現用 國文字도 國文字 使用者가 그 書式을 暗記한 程度 下에서는 手記가 容易 이루어 지지를 望는다. 왜냐하면 무슨 文字를 쓰고저 하는 意思가 頭腦에서 動 效할 때 이미 우리의 手 筋 動 神經은 그 文字를 紙上에 表記 하는 데 있어서 記字 書式의 記憶을 더듬는 那러할 새가 없이 거의 無意識의 記 寫 되어 나가는 게 普通이다. 速記 字母 亦是 이 만 한 手記의 熟練을 要 해야만 個人의 記字로써의 價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耗와 角度 嚴守

國民 文字上에서도 書式 書法 卽 寫이나 劃線의 構成을 容易 지켜야 文字로써 通用이 되듯이 如上 速記 字母도 "가"字면 A~E 直 10 mm 單線 이라는 構成이 어김 없이 지켜져서 紙上에 재빨리 (늦게 천 々히 써도 無妨할 ~76~

樣이면 한글字를 쓰는게 오히려 옳다) 卽 聽語音이나
記字的 意思의 變動과 同時에 無意識的으로 記字로서 紙
上에 나타내 있어야 選文이 可能함은 勿論이다。

忍 耐 心 을 持 하 라

如上 記号字의 熟練過程은 比較 해 말 하면 싱거운
물 맛이다 할까 好奇的인 變化性이 없고 單純 하여
지루하고 疢症이 나며 物種스러운 感까지 난다 따라
서 率直談白 하고 忍耐力이 強 하지 않으면 頓 沒無
心 如 處에서 熟練의 域까지 이끌기가 어려운 일이다。

然인즉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것이 速記号라고 覺
悟 하고 諦하면 記号字 熟練은 尙體없이 이루어질것이다。

一 秒 時 二 音 字 를 쓰 라

한 날個音字를 적어도 4番式만 써보면 腦記가 될
것이요 다시 4番式만 써보면 記字体가 整頓될것인則
必히 一秒時 어느 音字를 呼字 하든지 二音字式을 쓰
도록 努力한 右에 終聲記法으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10 音字는 10 音 平行 適下線 內에서
5 音字는 5 音 適下平行線 內에서 15 音字는 15 音 平行
~??~

直下線内에서 記号補記를 하여 耗와 角度를 熟練 시킬
이 좋다.

또한 耗가 5耗字는 1耗, 10耗字는 2耗, 15耗
字는 3耗 程度로 均型說으로 讀아집은 可 하나 5耗
字가 6耗로 讀어지는 것은 絶對로 안된다.

※ 注		産		※	
" ㄷ ㄷ "	方向을	A B 線	又는	A B	
" ㅅ "	方向을	A C 線	又는	A C	
" ㄹ "	方向을	A D 線	又는	A D	
" ㄴ "	方向을	A E 線	又는	A E	
" ㄷ ㄷ "	方向을	A F 線	又는	A F	
라고 歸稱하겠다.					

第三節 終聲記法과 一覽圖

7. 7. 記法 A — 發聲 初音字인 聲邊에는 字頭에다 一
耗小直線을 加하되 如下 規則에 依한다.

1. A B A C 各線 反 古線은 左則에 加 한다
2. A F A E (但 C 除外) A D (但 古除外) 各
線은 上側에 加 한다.

3. "L" 만은 下線에 加한다.

記法 B — 二音字 以上인 境遇에는 前音節 字尾에 다가 字頭로 一程 距離를 結집으로 示할 符號를 表示한다.

L. 記法 A — 發音 初音字인 境遇에는 字頭에 다가 一程 小円 (一 小円과 同) 을 加하되 以下 規則에 依한다.

1. 小円을 右側에 附한다. — AB線 "H", AC線 左曲 "H", AD線 "方"
2. 小円을 左側에 附한다. — AD線 "C", AC線 右曲 "H", AD線 "ㄷ"
3. 小円을 下側에 附한다. — AE線 "O", AF線 "O"
4. 小円을 上側에 附한다. — AF線 "ㄷ", AB線 "ㄷ", "L"

記法 B — 二音以上인 境遇에는 前音節 左尾에 다가 字頭로 示로 一程 距離를 交叉한다.

C. 記法 A — 發音 單音節인 境遇 即 一音節로 끝나는 境遇에는 AB 二程 距離로 中向交叉한다. 但 AB AF 行字는 類音符號로 交叉한다.

記法 B — 二音제 以上인 境遇에는 前音節

字 中間에서 字頭를 一定程度 내밀어 交叉한다.

2. ㄴ, ㄹ, ㄷ, ㅂ, 記法 — 各符 = 框 以内 배

침은 字尾에 加 하되 字尾가 배침과 同方向인 것은
字尾를 그대로 배친다.

然이나 ㄴ은 AH "ㄹ은 AC" O, 은 AD "ㅂ, 은 AB-
框 배침을 쓴다.

註 "ㄱ, 記法 B 에 있어 "가 격, 같은 例語는 字尾에 字頭
를 버릴수 없으니 가 字 格 字로 잇대어 쓴다.

0. 記號字 — 號 四 便 宜 上 以下 A B C D

의 四種의 代表 記號로 例 圖를 하겠다.

A. 直線代表 十 記號 直線인 卜 卜 가 ㅅ ㅅ ㅅ ㅅ ㅅ ㅅ
를 代表 한다.

B. 有 小 田 代表 " 記號 字尾에 小田이 붙은 -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를 代表 한다.

C. 代表 "H" 記號 H ㅅ ㅅ ㅅ ㅅ ㅅ ㅅ 를 代表 한다.

D. 代表 "T" 記號 T ㅅ ㅅ ㅅ ㅅ ㅅ ㅅ 를 代表 한다.

但, 左上에 ㄷ 印을 한 것은 終聲과 同
方向 字尾임으로 字尾를 그대로 배
친것임, (本 書 字 框 數 無 變)

~80~

行	7 A	L	E	□ A
ㄨ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0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ㄚ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終 行	日	人	人	人	人
六	1111	1111	1111	1111	1111
五	1111	1111	1111	1111	1111
四	1111	1111	1111	1111	1111
三	1111	1111	1111	1111	1111
二	1111	1111	1111	1111	1111
一	1111	1111	1111	1111	1111
0	1111	1111	1111	1111	1111

Н НН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И ИИ	У УУ	О ОО	Э ЭЭ	Е ЕЕ	И ИИ	Э ЭЭ	И ИИ

ㄱ B	ㄴ B	ㄷ B
가 각 하 작 령 약 리 익 찰 각 간 격	규 경 거 면 만 상 저 작 유 려 망 각	가 관 차 음 터 품 어 가 탐 사 음 지 침 적 삼 암 당 영 감 만 침 바 람 한 숨 인 삼
무 려 경 격 습 격 악 착 무 역	가 관 차 음 터 품 어 가 탐 사 음 지 침 적 삼 암 당 영 감 만 침 바 람 한 숨 인 삼	갓 다 맞 다가 갓 소 (갓 소) 봤 다 갓 갓 을 갓 가 락 시 스 가 였 오

第四節 記法要領과例題

要領과 個 音 字 例 題

下記 諸處에 格別 注意 하고 個文字는 적어도 300 番
以上 畧硬練習을 한 후 俯 보기 하라.

A. 初中音 合用 基本記號字와 同様 半字로서 完全 筆記
되도록 練習할것.

B. 現用不用音字라도 英音에 쓰이는 例가 많은나 不
必要性을 느끼지 말것.

D. 各種 區別記号는 記字后에 하되 完全暗記者는 不使
用線記도 無効 하다.

D. 各方面 배침은 (L R O H) 符號를 그方面으로
들며 四는 形式으로 附야 二符 配침이 나오게 된다.

五. 原則에 벗어난 自造記字는 許策하며 子尾 配침字
는 原基本音記号의 5, 10, 15 符에는 変更이 없다.

F. 單語에 있어서는 必히 字尾 (配침字) 에 이어서
= 后音字를 쓰지 않으면 7 B 記法과 誤讀이 된다.

G. 下例題가 一秒時 = 字以上式 筆記可能 하도록 練習
해야 된다.

但 下例題는 文敎部 調査頻用 個音 1254 字를 그 次
기 次例로 적은것임을 附告 附 두며 總 調査音字 100
%로 하여 그 %를 아울러 紹介 하니 參考 삼아
이하라. (特殊 外語用字 包含)

個 音 例 題

① 4.3% ~ 1% 이는 다 하 예 가 고 을 지 어 이 은
시, 그 아 로 라 기 도 한 나 니 를 以上 23 字.

② 0.9% ~ 0.4% 첫 있 리 으 며 사 를 게 보 자 우 물
일 시 만 오 러 바 대 인 며 요 수 생 면 소 부 산 주 무 파 되 해
갈 以上 34 字.

③ 0.3% 아 제 전 거 말 정 마 구 선 엇 람 모 둥 조
르 까 와 공 음 치 학 장 없 비 以上 24 字.
~ 85 ~

◎ 0.2%.....러 때 저 머 위 두 적 상 안 방 할 세 많 식 원
래 화 각 국 질 갈 게 간 실 운 작 유 날 더 꺼 름 집 음 모 표 히
머 성 분 또 될 신 양 건 금 잘 중 었 거 당 미 군 진 양 발 농 속
단 명 以上 59 字

◎ 0.1%.....령 중 말 못 년 살 체 늘 내 흥 연 남 남 처 심
따 런 재 관 심 돌 사 경 열 든 민 반 버 스 앓 쓰 농 러 등 름 먹
삼 새 회 결 겠 던 된 으 누 더 온 용 반 머 라 팔 잡 차 곳 입 줄
배 길 以上 59 字

◎ 0.09%.....디 는 열 비 노 드 관 갈 강 린 씨 업 번 번 직
손 以上 16 字

◎ 0.08%.....농 물 쪽 피 장 영 침 활 친 후 두 행 형 을 물
복 위 편 할 을 참 以上 21 字

◎ 0.07%.....륙 실 표 당 약 풀 왔 발 느 평 링 밤 별 결 명
점 병 배 인 막 망 지 함 以上 23 字

◎ 0.06%.....했 법 파 려 호 방 두 임 독 너 겨 공 큰 초 칠
별 북 언 근 레 랑 철 추 태 담 밀 향 극 중 포 애 외 처 처 기 판
 以上 36 字

◎ 0.05%.....닭 돈 던 매 축 절 침 앞 랑 육 침 크 단 기 될
역 왜 류 른 쇠 설 골 출 표 갓 개 볼 쓴 착 움 以上 30 字

◎ 0.04%.....막 췌 섬 솜 녹 뒤 몇 잠 지 쓴 술 버 풀 예 격
꺼 팽 변 령 멀 꺾 현 웃 웃 풍 쉼 려 박 꾸 먼 빛 순 창 겨 놓 밀
빠 액 골 글 색 총 테 곧 채 놀 담 뒤 드 以上 49 字

◎ 0.03%.....렸 사 랑 긴 증 재 풍 취 린 순 고 물 처 등 뿌
죽 군 제 반 트 항 러 건 큰 충 효 희 곡 싹 처 짜 며 검 바 석 솜
쥬 들 겠 혀 샅 들 습 쓸 찬 흐 암 짐 푸 억 앓 나 료 혼 엇 염 데
간 른 남 랑 앓 움 以上 63 字

◎ 0.02%.....메 볼 최 형 녀 드 식 즉 친 털 용 갑 뜻 못 골
북 득 룬 멀 섬 업 잎 꽃 런 름 겁 척 존 옛 넓 뒤 름 툽 프 킨 등
막 덩 쉬 샅 처 항 앓 애 뒤 몇 빼 추 약 번 남 려 좌 점 름 논 팔
맛 줄 언 랐 승 고 해 군 북 닥 활 막 벽 를 공 표 고 닌 등 려

입 초 참 치 환 곳 낮 뒤 연 반 삭 전 퍼 혹 열 규 것 믿 봄 석 소
 회 안 들 송 죄 갓 곡 섣 청 골 출 총 以上 111 字、

0.01% 건 근 늬 료 뒤 문 뱀 멩 달 후 획 잇 갖 음 금
 둔 박 삭 쟁 다 헛 흰 괴 됐 료 선 흥 얹 높 듯 멩 랑 밀 널 속 석
 손 짚 개 록 쟁 팔 당 료 배 증 적 막 읍 궁 잠 농 멩 만 랑 셋 작
 쫓 축 함 퇴 폰 흥 원 갈 당 뉘 봉 배 슬 수 퍼 음 두 의 읽 갈 건
 공 념 샅 착 규 출 以上 84 字、

0.009% 적 낙 달 돼 문 뉘 뱀 살 처 측 커 이 건 냐
 렷 리 묘 목 번 솔 싱 겹 짚 전 춤 헛 以上 27 字、

0.008% 낮 날 벌 가 늬 돈 뒤 료 맘 양 배 존 들 현 현
 안 윗 김 감 단 돕 맘 맘 밭 똬 뽀 뽀 뽀 슷 총 측 옥 以上 32 字、

0.007% 규 겹 간 막 돌 득 람 라 걸 망 슷 지 갈 패 혁
 흥 앙 없 건 점 팔 남 키 맛 텅 갈 리 열 렷 록 밭 말 몸 번
 심 솜 새 카 감 개 료 페 페 풋 흥 왕 以上 48 字、

0.006% 장 개 국 겁 료 료 맏 곱 씩 상 선 춘 총 읍 처
 홀 영 맨 국 끈 녀 넝 뇨 텅 덧 만 료 른 뒤 슷 골 以上 31 字、

0.005% 권 위 골 뉘 늬 남 댕 됴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잔 죽 청 들 휴 헛 갱 근 날 된 편 두 목 만 몸 뽀 배 처 처
 텐 팔 늘 칠 원 以上 41 字、

0.004% 규 념 동 람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퀴 릴 팡 팔 헤 홀 홀 앓 갖 꼭 농 념 뽀 뽀 뽀 뽀 뽀 뽀
 방 뽀 뽀 상 갖 질 질 찬 팔 편 평 피 혈 훈 얹 으 업 以上
 54 字、

0.003% 잣 갑 장 권 낭 념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쉯 직 긴 헌 링 디 칠 칩 흙 온 료 잉 꺾 꺾 꺾 꺾 꺾 꺾 꺾 꺾
 를 임 막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뽀
 없 으 以上 59 字、

0.002% 간 각 금 금 잘 꾸 꺾 꺾 꺾 꺾 꺾 꺾 꺾 꺾
 듯 념 멩 텅 랑 료 리 료 멩 멩 멩 멩 멩 멩 멩 멩 멩 멩
 짚 찌 첫 침 찌 함 찌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훈
 ~ 27 ~

긴 각 작 정 정 공 개 념 샅 니 님 님 댕 당 델 땀 땀 려 를 릿 료
 링 롱 롱 뵈 뵈 뵈 사 설 순 순 일 심 예 재 삼 중 짐 침 경 릿
 횡 알 었 응·응 인 以上 104 字,

㉠ 0.001% 건 것 정 절 림 긴 길 건 것 갯 관 공 박 개 골
 켜 키 들 닳 명 명 란 료 료 면 델 및 범 범 뵈 부 뵈 뵈 뵈 뵈
 뵈 뵈 설 설 설 설 설 산 산 산 산 산 절 절 절 절 절 쟁 쟁 쟁 쟁 쟁 쟁 쟁 쟁
 쟁
 쟁 쟁 以上 80 字,

㉡ 0.0005% 결 가 것 곳 광 광 광 팔 팔 팔 굴 레 린 굴 작 정
 결 전 전 전 전 전 국 국 국 국 국 결 결 결 결 결 낙 낙 낙 낙 낙 낫 낫 낫 낫 낫 낫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땀 以上 146 字.

註 우리 낱말에는 잘 아니쓰이는 음자는 区分해 내도 無妨
 하나 可能な 限 모조리 卞보는 것이 옳다.

낱말 例題 와 筆體

如上 個 음자는 이를 낱말로 쓸 때 記號와 記號의 連
 續上 普通 締結 液狀의 三種類가 生 하는데 이에 待
 히 留意 할 것이며 다시 낱말 記號練習에 있어서는 十字
 文이나 中學生用 우리말 辭典 또는 新圃雜誌의 論說에 卞
 낱말을 골라 내서 卞 보되 尙 卞침의 卞 續字는 必히 卞
 ~ 88 ~

침 直下에서 俯야만 된다.

然이나 波狀筆法이란、

- A. 하 히 호 三字에 人 及 ㄹ 行字가 올때、
- B. 라 러 로 三字에 方 及 ㄴ 及 ㅍ 行字가 올때、
- C. 나 너 노 三字에 口 及 〇 行字가 올때、
- D. 마 머 모 三字에 ㄴ 及 ㅍ 及 方 行字가 올때、
- E. 사 시 소 三字에 〇 行字가 올때、
- F. 아 어 오 三字에 人 ㅍ 右曲 ㅍ ㄴ ㄴ 行字가 올때、
- G. 좌 曲 바 버 보 三字에 人 及 右曲 ㅍ 行字를 쓸때、
- H. 右 曲 바 버 보 三字에 ㄲ 行字가 올때、
- J. 파 퍼 포 三字에 ㅍ 人 古 行字가 올때、
- J. 자 저 조 三字에 ㄲ 行字가 올때、

의 境遇에 있어서는 一筆之下에 字尾 字頭 를 波狀 狀으로 連續 시켜서 畵를 말 하는것이요 다음에 締結筆法이란 同方向直線 卽 ㄱ+ㄱ ㄴ+ㄴ ㄷ+ㄷ ㅍ+ㅍ 의 境遇에 있어서 字尾 字頭에서 一筆 畵를 멈추어 締結式으로 痕迹을 내야 畵에 還文이 可能 하기 때문 에 生한것을 말 하며 ("가 거" 를 一筆로 畵다면 ㄱ+ㄱ 가 된다.) 뜻하는 一切 普通筆法이 된다.

枝狀筆記字例文

리 수 화 루 로 자 라 나 까 나 머 지 너 무 나 무
 나 아 노 안 마 들 마 지 말 모 호 소 어 서 유 기 를 수
 명 사 여 자 버 여 러 여 느 버 천 버 보 시 기 버 파 자 마
 뒤 6 자 피 하 사

縮結筆記字例文

파 거 거 기 터 러 터 고 고 가 거 고 구

날 말 예 文

千
字
大

~90~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ged paper, consisting of approximately 12 staves. The notation is a form of musical shorthand, possibly a type of tablature or shorthand notation, featuring various symbols, lines, and arrows. The first staff begins with the Korean characters "나만" (Na-man).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symbols such as vertical lines, horizontal lines, and curved lines, often accompanied by small arrows or dots. The paper shows signs of age, including discoloration and some wear.

文体

The image shows a page of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ged, yellowish paper. The notation is written in black ink and consists of a single melodic line. The notes are connected by stems, and there are various markings throughout, including slurs, accents, and dynamic markings. The word "文体" (Wen Ti) is written at the top left. At the bottom center, there is a handwritten number "92" with wavy lines above and below it, possibly indicating a page or measure number. The overall style is that of a personal sketch or a working draft of a musical piece.

~92~

註 參考上 : 上 文의 康文을 記해 두었다.

(千 字 文) 하날천 따지 가물천 누루항 집우 집주 날일
달월 불영 代물경 소리성 불화 여름하 가을추 견을수 나다날현
물수 목숨수 동북동 밤식 잘침 뽕을고 양을청 손가락지 먼저선
앞전 나라국 길도 가운데중 꿩을단 동배 날성 열개 알쓸언
살림 도라올키 큰대 어금니아 마땅당 사람인 바다해 적을소
사랑애 착찰선 때시 많을다 생각사 사이간 일켜를침 움극일동
발족 긴장 으뚱원 선비사 백성민 계집녀 약을좌 미련승 큰
를류 아름다울미 가족피 칼검 거느릴술。

(날 말) 희랍 수도 도착 영어 능통 국회 위무부
관원 영정 위원 자동차 머크기 계양 공항 등대 체류 정대
한국 공비 참해 국민 사열사 전부 겸소 사생활 국민 존경
집중 굴지 물마우쇠 경과 반공 건물 미국학자 고대문후 국
복 물자원조 신문잡지 통신전화 함의 책임 걱정 청산 종래
용구 보호수역 열정 현실적 제도 방치 감자 방법 채택 개
발 선언 사회주의 대통령 유사이러 객사 야욕분개 재산청구
군국주의적근성 결혼 우편 대담 기업체 배반 출판사 옥중 환
영 판매업자 수량 럽사가 리어 고리머금 개혁 혁명 정신 절거
소식발동 유언비어。

(文 本) 大學의 目的은 高深한 學理와 精緻한 應用

研究을 통하여 人類文化의 向上에 寄與함과 同時に 國家社
 會의 發展의 人材의 才能을 養成함에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研究
 와 人材養成上 責任을 맡은 教授自體가 蔑視의 對象이
 될 程度라면 그 나라의 將來가 무엇이 될것이며 그러한
 教授를 가지는 우리는 時急한 人材建設 責任 直接 担
 當者인 그들의 批評에 對해서 어찌 策勵를 하겠는가
 學者도 教授의 名譽를 가진 사람의 하나이므로 自身도 自
 省 되는 自己反省 自己批判을 期하며 社會 및 文
 藝當局의 教育行政面에 對한 要求를 促進하는 意
 味에서 오늘 大學의 教授를 對하여 若干 批評
 해 보겠다.

山 嶺



第三章 逸波式略字法(一)

第三章 逸波式略字法(一)

略字法이란?

原則적으로 基本音字나 后 四章에서 論한 變字記法
外로 簡記 해야 을을 發音의 記字法을 一定한 原則을
내 서워서 그 原則下에 모든 基本音字에 應用 該當
하게 한 記法을 略字法 이라고 한다.

即 基本音字나 앞으로의 變字는 速記學上 總體的인
基本이 되는것이고 此 基本記字 만으로서는 並行速記가
不能인 때문에 여기에 速記를 爲한 別體의 記字의 構成
이 要求 되는데 이 要求體 亦是 記法의 構成原理가
儼然 해서 無秩序인것 乃至 創業者의 個人的인 便宜
的記號의 域에서 떠나서 學者로서 理解와 能率을 十二
分 發揮 할수가 있는 科學的인 體系를 加추어야 그 速記
學이 完全速記學으로서 價値를 維持 할수가 있는것이다.

따라서 此 論은 學者들 自身도 眞이 認識하여 以下 個
人便宜的인 記號作成을 絶對로 屏棄하는바이며 記號學에
있어 記號의 驅使法式을 極少數 原理 原則의 規定으로써
그 生命體를 佔한 緣由를 알으므로 卽 略字法의 活用이란
마치 數學의 公式와 같음을 體得하게 될것이요 이것

이 速記可能의 基礎이 되는 것이다.

第一節 續音記號의 構成

記 法

續音이란 同一音이 繼續해서 使用된 言葉에 있어 后音字를 描稱 하는데 下記 三種이 있다.

ㄱ. 個音續音..... 가가 호호 미미 소소 지지

히히 도도 유유 다다 작작 즐즐 삼삼 형형 섹섹

等等 前語音이 同一使用 되는 境遇를 말 하는 것인데

이는 左尾 左斜下 一桁位置를 利用 하여 后續字는

그 位置에서부터 쓰게 된다.

ㄴ. 二音字以上續音..... 터럭 터럭 철석

철석 찌르릉 찌르릉 우물 우물 조심 조심 무렁 무렁

와글 와글 오물 오물 等等을 말 하는데 이는 前字

의 中向上 二桁位置에서 始作 해서 15mm AF 直線

을 쓴다.

ㄷ. 反覆語 (中向語의 續音)..... 同一語가

中向에 他語를 두고 反覆되는 境遇를 描稱 하는 것인

데 卽,

이 戲場 じ 戲場으로 옮겼다.

~ 99 ~

成功과 不成功은 個々人の 性根에 달렸다.

社會는 많은 社會人으로 何 組織 되어 있으며

그 組織體는

等々の 例語에 付 보듯이 같은 語가 中向의 他語를

뒤로 나오는 때는 2mm x 字를 字尾 直上에 다 쓴다.

例 文

※ 그 一部分 紹介 해 보겠다.

7. 例文

家 戶 支持하다 母 怪하다 非 汗 汗 寂 個 次 益 成 立

L. 例文

더 물 철 려 썩 어 령 머 리 오 리 어 정

C. 例文

成 功 불 성 功 社 회 是 社 회 人 여 성 은 여 성 자 身

第二節 同行畵 略記畵의 構成 記 法

同行畵字란 7 行에서는 가갸거겨고꼬구규그기겨
겨계게괴과괘귀퀴케키의 2/ 畵字가 相互 同行畵字
라고 하는 말인데 L □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ㆂ / 4
行이 同樣으로 畵컷게 된다.

7. 同行 ㄱ (ㄲ) 記 畵..... 7 行에서는 가 (갸과)
고 거 (겨귀)고 구 (규)고 그고 기 (퀴기)고 겨
(계)고 게 (계)고 괴 (괘계)고의 境邊를 말 하며
畵에 나노 다도 사소 미보 모무 자조 지조 계교
라도 바보 비보 等々 畵行字에 있어 同行 ㄱ (ㄲ)가
되 이어 오는 境邊에는 2mm AB 直線을 ㄱ (ㄲ)記
畵로 삼아 略記 한다.

L. 同行 ㄷ (ㄸ) 記 畵..... 가구 소수 자구 等々
前畵와 同, 同行畵에 ㄷ (ㄸ) 字가 올 때는 2mm
大 記畵로 略記 한다.

ㄷ. 同行 ㅁ (ㅂ 기) 記 畵..... 가기 무미 제지 等々
亦 前畵와 同인 境邊에는 ㅁ 小과 及 方便에 다가

1. 小円과 同円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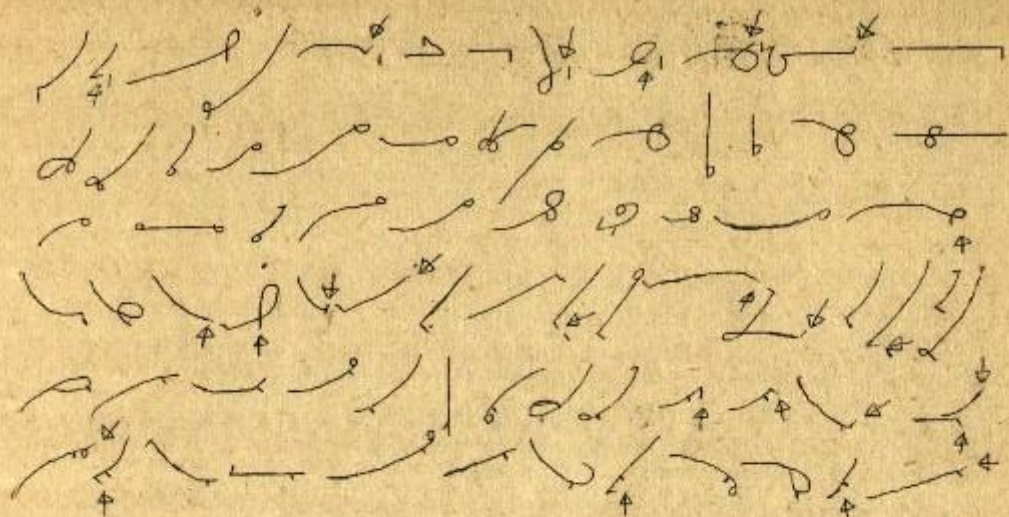
2. 同行 H (H 시 제 계) 記号..... 후회 가계
기과 算々 前초의 境邊와 同인 때의 H (H 시 제 계)
記号로서 A D 2mm 直線을 쓴다.

3. 同行 K (K) 記号..... 기계 시제 주계 算々
前초의 境邊와 同振인 때의 K(K)는 字尾 戻入
2mm 以内 位置에 附着 시키며 加桌 又は 同位置에서
后綴字를 쓰는데 例語가 적으므로 계(계)字는 全個 音字
에 두루 쓴다.

註 기가 고고 구구 개개 괴괴 算々 全綴前으로 綴音인
境邊에는 依例히 綴音記法을 쓰며 또 前字가 字尾 廻침
字인 境邊에는 同行 | 記号는 不使用 한다.

例 文

※ 그 一節만 紹介 해 보겠다.



以上還文

사소 미모 자조 계교 회호 라도 무무 지조 바보 비보 면모 단도
 산소 속소 식소 직조 제조 정조 박보 폐포 환호성 경고 메모 리
 로 자주 전주 제주 만무 거구 거구 분부 순수 문무백판 고구
 주지 제지 서지 소시 나니 드디어 터디다 무미 차치 처치 류리
 크기가 어이 각기 적지 아어 사시 수시 썩시 느니 노니 메밀 하
 해 후회 향해술 현해탄 다대 호대 당대 담대 물매지간 자재 조
 재 적재 제재 유예 아예 나비 시세(시계) 자제 차제 피제 주제
 직제(직계) 설계 성계 한계 - 경계한 인계 정계 향계 강계 세계
 다계 회계 단계 리레 류레 전계 흥계 。

~ 101 ~

第三節 連續同終聲

略記号의 構成

記 誌

連續同終聲이라 함은 LL OO LL 배 사 OO LL 의
 形式으로 同終聲齒이 連續된 發音을 括稱 하는 것인데 이
 는 終聲 齒을 모두 筆記하게 않고 그 代身에 前字尾
 后字頭上 1mm 位置에다가 加點 又は 點마자 省略해
 버리고 받침을 省略한 音字로서만 써서 還文 할 때에
 本音字를 찾아 쓰는 式을 말 한다.

註" 다음 變字에 있어 터 簡記 되는 것 又は 變字의 記體
 가 還文上 便益할 때는 尙當 變字로만 쓰게 되는데
 이는 后綴 하겠다.

例 文

※ 그 一部만 紹介 해 보겠다.

공 방 ㅅ 단 단란 단산 만단 만민 망향 명망 명랑
 정명 명창 명장 명중 목척 민간 민권 민원 방다 방북 반방관람

방향 반향 발굴 발말 방광 방송 장방 반민 면천 면창 인편 양반 방향 반향

반천 산란 살발 삼림 선언 선원 송영 순진 순환 안민 당

압담 상양 약터 양방 여백 엄담 원안 온난 육운 명창 명향 양당

원산 원인 응문 인권 인원 간인 장항 입법 국속 천인

천철 충당 참담 중엄 천문 향상 찬찬 창각 정명서 향방

함응 춘란 춘인 행방 형상 춘돈 흑동 황송 환언

후련 흥행 흥침 흥망 춘민 수악 엄려 관려 려판

평창 온천 달갈 망상 만반 상당 중용 명상 경망 면면

평장 분간 간단 샷갓 악창 성공 산기 근신 직각 핀잔 합면

원형 흥성 경영 선전 면민 당장 적현장 윤전기 성황 목전 근면

第四節 四音字熟語

略記號의 構成

四音字熟語란 大概 두 낱말이 합해져서 마치 한 낱말 같이 사용되는 言語로서 純全한 우리 말보다 漢字語의 合用에 그 例語가 甚한바 이제 普通常識化된 此等 用語는 그 前語인 낱말만 쓰고 后語 낱말은 省略해 버리는 代身에 前語記字上에다가 15mm 4E 直線을 併서 記號를 삼는다.

例言 하면 "허랑방랑한 사람" 한다면 "허랑" = 字만 쓰고 "방랑" = 字는 上記로 써 略記號를 말 하는 것인데 여기에 前語가 一筆下에 併지자 變는 境遇 卽 卍字인 境遇와 后語單語가 數種이나 되는 境遇가 有하여 下記와 같은 記號를 定한다.

1. 前單語만 쓰는 境遇..... 허랑방랑

의지견고 죽마지우 等々 前單語 二字가 一筆之 下에 併지는 때,

2. 初音字와 三音字와 又는 四音字와 又와 又하는 境遇..... 신락동치 만 장일치 동병상련 일망타진 等々 初音字가 卍字인

때는 三音字와 四音字中 쓰기 便한 記号 又
는 選文上 얼른 覺知 할수 있는 記号를 가리여
相互 中 固 交叉 해 버린다 .

C. 右邊 單語를 二種 以上 利用 하려
는 境遇 上記 A B 直線을 上曲 下曲 으로
變更 即 "고 모 노" 의 三記号字를 가지고 右邊 單語의
略記号로 삼는다. 따라서 "천하일생" 하면 "천" 字
와 "일" 字의 交叉로 熟語 記号가 成호되고 이어서
"천하일미" "천하절생" "천하무적" 의 三種 熟語를
더 利用 하여 일미 = 고 절생 = 모 무적 = 노
記号를 上別에 써서 略化 할수가 있다 .

己. 單語와 單語 中 固에 吐가 勿 할時
..... 全般的으로 "고 노 모" 의 三記号를 利用 해야
되며 勿論 固도 다 쓴다. 此 四音字 熟語의 例
語는 吳로 그 例가 許문 하다 上記 차에도 .

苟口無言 條件有知 虛心担讓 補柯一夢
求久不變 求久不忘 說往說來 一衣帶水
斷路打崩 無理難題 勞心焦思 吳越同舟
錄寡孤魚 寔踐窮行 結草報恩 情狀可憐
情狀酌量 米植盛衰 不法監禁 卓上空論

青嬌寡婦 孤立無援 萬物引力 心中應是
 心身鍛鍊 切嗟承磨 盡外十萬 疑懼之心
 京邦合地 凶徒凶徒 凶業自得 凶初之終
 初無是理 賠贖向題 討訟事項 焉取生心
 不休晝夜 不徹晝夜 万毒無禮 乘合凶動車
 勝々既擊 電送痛與 史上未曾有 原因結果
 非一非再 非常警戒 凶跡을達成 戰爭이勃發。

寫々枚挙 하기 어려울만한바가 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外에
 도, 監委逐出이니 五月進學니 하는 報道上 新語라 할지라
 도 勿論 初象語가 되느니만큼 此等 例語를 略記法
 에 왔어서는 自己의 識見이 結局 効果性은 正石 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假令 遊休。하면 常用 右綴 使用되는
 新資나 資材가 있음을 늘 留意 해서 習學 하도록
 捨捨한 工夫가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此 略記法의 延長이 卽 高算速記學이 되느니
 만큼 前語에 右綴 하는 常用右語가 무엇인지 어찌 하
 면 그 右語를 略記 하기도 邊文이 可能 할는지를
 生疑 卽 辨明 熟語略記法의 習知를 期함이 速記
 學上 尙마나 重疊之爭인지 能幸免擲上 尙마만한 尙

果를 認을는지 自然히 覺知 될것이다.

例 文

※ 一部만 紹介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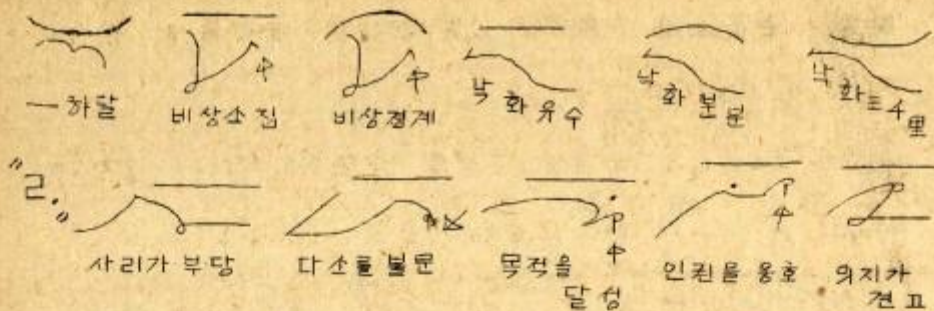
"ㄱ."

허랑방앗	유리결식	지리멸렬	오리무중	오비이락	사리사욕	아사상대		
시사해설	해외동포	허송세월	호사다마	몽정달성	수리공사	가기이방		
허무맹랑	무위도식	무가버하	원인결과	송송장구	혈단신	의지전고		
유무상동	리로정연	분양가종	서시옥시	다사다난	다소불분	사육제산	무미경조	유령수인구
무지막지	자주립	도계환	다가결	시각	노소동락	지부지	돈지개혁	
신당웅치	가카림	해본수	후가품	자자	자자	자자	자자	
환가고등	청상과부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ㄷ."

사리사욕	사리주당	유취자재	유취물자	명령엄수	—개동
------	------	------	------	------	-----

~ 107 ~



第五節 反意語 略記號의 構成 記法

反意語란 男子 하면은 女子 老人 하면은 幼兒 물이면
 불 陸이면 海 往이면 來 等々 正反對의 意를 가진 語
 를 稱하는데 이 中 往에 對한 來와 같이 一音字인
 境遇에는 此 略法이 該當이 아니 되고 二音字 以上인
 境遇에만 字尾 右斜上에다가 AP 2mm 直線 + AB 2mm 直
 線의 特殊記號를 (即 "러 터, 의 半分) 用히 反意語인 句
 語를 略記 한다.

또한 上記는 正常的인 反意語 이고 否定詞을 用히
 反意語를 形成 하는 境遇에서는 下記와 같이 쓴다.

A. 아니 記號 即 간다 不 간다 하는 경우에

는 AD 2mm 直線 + AF 同線을 同位置에 佈什
 后語를 略한다。

B. 吳記 吳..... "재" 字의 字尾를 字頭까지 갖다 붙인다.

C. 吳記 吳..... 正式反齋語記號를 쓴다。

例 文

※ 一部만 紹介 하겠다.

정식어기호 아나기호 吳기호 吳기호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with arrows indicating stroke direction.

... 以上 還 文 ...

男子와 女子 一男一女 正義 不正義 強者 弱者 言語 行動
 上昇 下落 이기는것 하고 지는것 하고는 이기고 지는것은 남성
 여성 死亡 誕生 飯 飯 飽食 勝戰 敗戰 有價 無價 成
 功 失敗 無情 有情 民主 共產 地下 天上 天國 과 地獄 오
 나 가나 陸路 水路 南方 北方 熱帶 寒帶 南男 北女
 故鄉 血鄉 東向 面答 說往 說來 紳士 淑女 사고 팔고
 스고 얹고 입고 벗고 자고 깨고 죽고 반고 신고 벗고
 나오고 들어가고 웃고 울고 사고 아니사고 사고 안사고
 사고 못사고 一得 一失 一利 一害 쓰다 달다
 먹다 안먹다 운다 웃는다 도한다 삼킨다 有喜 無益
 能痛 動魚 舌意 惡意 資本 家 勞動者

第四章 逸波式變字例

構成原理并記號一覽

~ / / / ~

第四章 逸波式變字의 構成原理와 記號一覽

第一節 變字의 意義

變字라 함은 變換 해서 말을 하면 第二章의 基本音字速記號를 變換을 시키여 두番 則 基本音字速記號의 體樣을 加減 것으르시 即 基本記號의 變體基本記號를 指稱 하는 말이다.

第二節 變字의 價値

그렇다면 왜 두가지 基本音字를 두었느냐? 하는 것이 問題의 中心이 될 것이다.

元來 우리의 常用音字에 關 해서 는 第二章에서 그 實態를 完全히 把握 했은 것이니 再論을 避 하겠고 우리는 第一의 基本文字로써 發 音을 速記 하는데 一秒時 二音節 以上은 無理 임을 알았을 것인즉 此에 速記能率을 向上 시키려면、

A. 各 詞中 常用語를 더 簡記할 爲 助下에 略字를

~ / 12 ~

無效히 作成 해 버린지,

B. 基本記號를 再整理 하여 무슨 새로운 略記號를
하든지.

하는 二種의 方法가 있게 된다.

然이나 現時 一國의 內外國 速記學이 取 하고 있는
方式은 A의 方式으로서 必要에 따라서 數 많은 略字를
依 하여 速記圖的을 達成 하게 되어 있어나 이 方式은
一校 習學生을 養成 해 버는테는 그다지 効果를 見우
지 못 한다.

換言 하면 普及的인 價值性이 稀薄 하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即 그 記號가 學的 價值가 不備 하다는
말로 規定 지을수가 있는것이다.

따라서 遞波式이 取한 B의 方式은 速記學上 新
新한 一大改革이며 他的 追隨를 不許 하는 特異한
創案이어서 速記學으로서의 體系를 세우는데만 效을
見生한것이 아니라 普及率이 絶對良好 하여 實로 廢字
란 基本記號와 吐記法과 略字法과 아울러 遞波式 速記
學上 四要素中의 하나로써 그 價值가 歴然한바 있고
또 다시 우리말 速記號의 習學을 最大限度로 容易하게
하는 劃期的인 意義와 價值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第三節 度字의 構成

構成上의 對象

우리의 音字中 頻用音字로서 基本速記號가 能率的
이 不 되는것을 一々히 檢討 索出 하여 簡記號化
한 것이니 만치 그 對象은 頻用音字에 限 하여 있다.

度字記號의 種類

下記 四種으로 大別 된다.

A. 新出 *rogogram* (速記拼號文字).....

前 基本音字記號外로 새로 마련 된것 (表示
記號 X)

B. 兼用 *rogogram* 前 基本音字記號中

頻用音字가 아님것을 索出 하여 兼用하게 한것
(表示記號 X)

C. 位置利用 *rogogram* 記號의 上下

位置 (口人 變音位置와 同理)를 利用한
것. (表示記號 X)

D. 終聲記號로 利用한것 (表示記號 XX)

~ / / 4 ~

五. 特殊度字..... 下記 第五節에 나을 度字利用
及 合用度字를 말 한다.

變字記號의 使用規則

下記 二種으로 大別 된다.

- A. 本말에 있어서 初聲處에만 使用 하지 二重
제 以上에는 使用 못 되는 記號 (表示
記號 ㉠)
- B. 本말에 있어서 二重제 以上에만 使用 되
는 記號 (表示記號 ㉡)
- C. 本말에 있어서 두루 쓰이는 記號 (表示
記號 ㉢)
- D. 本말에 있어서 前聲가 배침字인 處에만
使用 되는 記號 (表示記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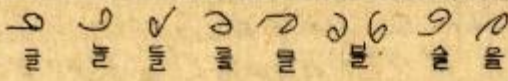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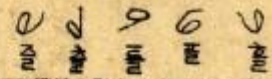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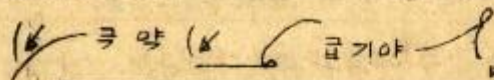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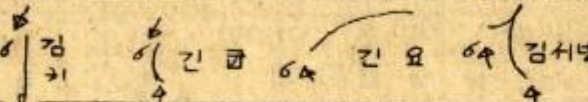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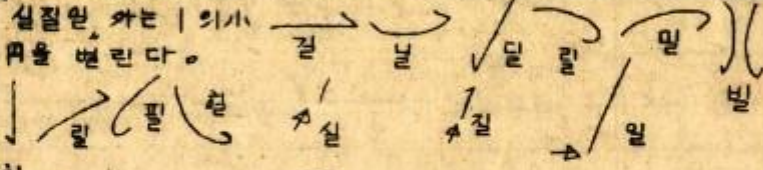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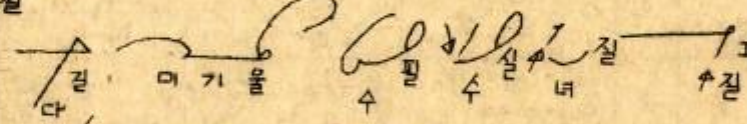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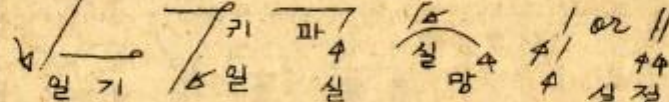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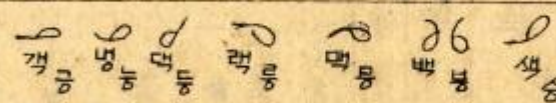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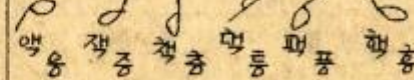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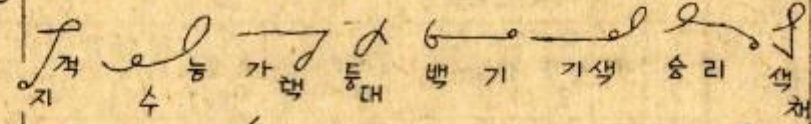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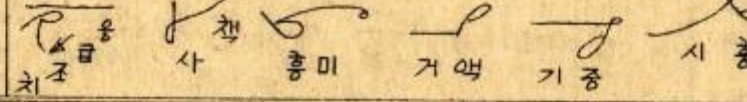
第四節 普通度字記法

頻用語에 있어 非能率의인 배침을 一掃 하고 다시
不用度字를 可能한 限 適用 함이 있어 不得已 全行에
를 하여 一々히 檢討兼出 한바이니 그 記法을 遵守 하
여 차근 차근 暗筆記하기 바란다.

~ / / 5 ~

음자	總類	規則	記法	파	記	字	例	文					
가	X	⊕	AF-AE 는 中副下 他는 字尾副下 位置	前	科	醫	師	敎	原	價			
간	X	⊕	가 變字 + L	난	간	그	런	관	계	명	관		
관	X	⊕	終聲記号 를 反例에 加點	지	다	시	음	경	삼	삼	삼		
갈	X	⊕	가 字의 字尾 變 點	갈	키	기	갈	채	팔	팔	팔		
감	X	⊕	終聲 卍 3mm 卍 으로 點	고	감	사	감	인	감	령	소	감	
강	X	⊕	3mm 卍의 右 半 寸	강	기	강	사	수	강	강	면	미	강
강	X	⊕	變字 가 位置 + 디	강	철	강	환	강	文	甲	甲	甲	
격	X	⊕	人 終聲 卍 가 格	인	격	유	격	저	격	격	격	격	
경	X	⊕	ㄹ 字와 同	지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경	
권	X	⊕	L 終聲 卍 同	件	件	件	件	件	件	件	件	件	

결	X	O	거의 字尾 빠짐	결사 기결	결정 결식	결파가
결	X	O	ADIO 直線	결면	결기	대결
것	X	O	처와 同	그것	내것	저것
국	X	O	편과 同	가국	간국	제국
관	X	O	느와 同	관기	관구	관사
끝	X	O	고 字尾 빠짐	끝	기	끝
구	X	O	AC 直線	구리	구미	국가
군	X	O	후 字尾 빠짐	군	군	군
굴	X	O	기 字尾 빠짐	굴	굴	굴
궁	X	O	구의 字尾 빠짐	궁	궁	궁
금	X	O	同行 上記 字尾 빠짐	금	금	금
금	X	O	口 終聲과 同	금	금	금

ㅁ	x	o	<p>一의 小円을 2 mm 楕円으로 함. </p> <p> * 남말에만 쓰며 피에는 안 쓴다.</p>
ㅂ	x	o	<p>병자와 同  시 ㅂ</p>
ㅅ	x	o	<p>1mm 小圓 + L 終聲  김서방</p>
ㅇ	x	o	<p>ㅇ 終聲과 同이다.  우 ㅅ 소 ㅅ 지 ㅅ</p>
ㅈ	x	o	<p>실질한 ㅈ은 1의 小 ㅈ을 變린다.  ㅈ ㅈ ㅈ ㅈ ㅈ ㅈ</p> <p> ㅈ ㅈ ㅈ ㅈ ㅈ ㅈ</p> <p> ㅈ ㅈ ㅈ ㅈ ㅈ ㅈ</p>
ㅊ	x	o	<p>ㅊ ㅊ에 3mm 半 ㅈ을 同.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p> <p> * ㅊ = ㅈ으로 쓴다.</p> <p>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p> <p>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p>

ㅁ		H字의 字尾를 字尾-耗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前까지 가져온다. 갱 필 명법 대명 령 명명 병법
ㅂ	X 〇	생삼 명 정 쟁 령명 평 행 비행기 여행
ㅅ		범 세 전쟁 영무새 쥐 경생 생명 평계
구	K ㉞	기終聲과同 및 지구 직 지구 직 구 옥 구
고	X ㉞	AD2耗直線 고무마 꼬리 꼬겨 꼬기
갸	K ㉞	同行 기와同 가갸나 우기갸니
날	X 〇	난字와同 날개 날비 * 남림임 = 누후
냥	X 〇	랑字와同 * 카도 념=렴 념=렴 념=렴 * 환 불세 따름.
녕	X 〇	령字와同 안 념 변 념 영 념
년	X 〇	연字와同 연 L + □ 다년간 파연 가련 그년
열	K 〇	솔字와同 열사 파열 사열 열렬
렴	X 〇	염字와同 염원 령치 기염 기록
렴	X 〇	염字와同 수렴 령기적 지염
년	X 〇	년字와同 넓은 남는다 년판

복	복	X O	12mm 7기 록 복수 수 록 복 연
복	복	X O	数字6을 옥지 복다 복삼 복성
복	복	X O	복호자의호를 기 령 남 별 사 영 명 사 카士
복	복	X O	복자와同 동사 놀기가
단	단	X O	단자와同 당 선 단 지 수 건 단 계
단	단	X O	단자와同 단 별 주 단 것 형 빈
단	단	X O	단자와同 단 지 주 단 군 동 음
단	단	X O	단자와同 단 사 단 색 단 망 이 단 단 지
단	단	X O	단자와同 단 사 단 으 리 단 었 다 단
단	단	X O	단자와同 단 니 단 격 단 일 단 돌
단	단	X O	同行 테 디字 이후는 주로 特殊變字에 쓰인다 의字 尾는
두	두	X O	츠자와同 가 두 화 두 두 게 끝 두 기
도	도	X O	ABAC 線의 連結을 避하여 퍼음을 쓰거나 도 지 자 도 미 도 처

~120~

때	X	O	리終聲과同	들키다	그들	개들	애들	발 출
때	X	O	트와同字	그때	저때	올때		
독	X	O	덕字와同	독사	독수리	독물	독주	
<p>〔行字는 激音이 든인關係 및 二의用音이 적은關係下 記筆은 不得인한 境運에 是 兼用을 해도 좋으며 "가거고"에 人行字가 오는 境運 에도 例外로 是 行字를 쓸수가 있음을 알아 두라.</p>								
랄	X	O	랑字와同	※ 랑 = 량 = 양 랄 = 난 이 됨은 勿論이다.				
린	X	O	찰字와同	기린	독린	사찰	사리	사키
말	X	O	츄 망명문字와 同이다.	2년말	말	말	말	말
뜻	X	O	一音節로 쓰히는人 終聲有字는 人 = 7 으로 씀.	말. 뜻. 뜻	그려 뜻	뜻	뜻	뜻
무	X	O	AE 2 種 비침字	수 무기	문	병	기	무
발	X	O	츄 발. 범. 분 同字이다.	발	기	발	고	발
부	X	O	L 終聲을 쓴다.	보수	부수인	불가능	부능	불것
복	X	O	L + 7 을 쓴다.	복	거복	복포	복	복
땀	X	O	땀字 4 種 비침	땀	땀	땀	땀	땀
분	X	O	단字 + 7 終聲	본	기	너	분	양

상 송	X O	상 른 라 字, 송을 로 字로 씀.	상가 구상 송사
성 성	X O	스 字를 씀	성공 구성 동성 입성
술 술	X O	살 字로 리 字, 술을 든 레 字를 씀.	살기 리기 술거
설 설	X O	AD 5mm 直線	설마 설제 설경 가설
속 속	X O	ㅍ 字와 同	자속 소속 사속 성속
순 순	X O	푸 字 < 屈出	순간 한순 승려 원순이
식 식	X O	ㅍ 字를 씀	식사 식상 식속
심 심	X O	左 曲 ㅍ 字와 同	심기 심리 심신
시 지	X O	ㄱ 파 同	시명 시시 명 (시. 지. 명) 난시
심 심	X O	人 字 + L	심명 반성 량심 당심
속 속	X O	中 面에 屈한다	속가 속재 속도 속현속
속 속	X O	初 頭에 屈시킨다.	속기 속력 속종속
적 적	X O		적기 적기 적수 적률 적산
적 적	X O		기적적 인기척 가척한 도적질

○ 行은 干先 基本文字를 下記와 如히 變換 한다.

아 야 와 어 여 워 오 요 우 유 으 이
 (하) (아) (3획 用 외) (어여)(하) (오) (취) (어) (하)
 애 애 에 예 외 웨 왜 위, 위
 (AD直5) (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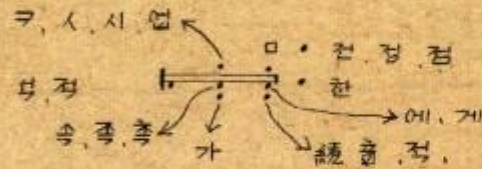
앙	X	O	와 字의 字尾 배침	 앙 안
암	X	O	石 曲 字와 同	 암 시 기 암 피 석 암 담
양	X	O	량 字와 同	 양 가 모 양 양 육
말	X	O	말 字안과 同	 말 선 배 말 말 특
약	X	O	약 字와 同	 능 수 약 수 약 심 죄 약
업	X	O	하 終聲 파 同	 업 무 기 업 파 업 상 업
엄	X	O	中 入 加 點	 명 엄 산 엄 농 엄 면 엄
움	X	O	운 字와 同	 움 기 노 움 기 다
을	X	O	同行 터디 와 同 字	 을 개 미 을 소 을 개
울	X	O	同行 처치와 同 字	 울 울 (勿 論) 이 을 써 도 풍 다
윙	X	O	윙 字의 字尾 배침	 윙 자 광 윙 윤 윙
음	X	O	은 字와 同	 음 령 은 하 수 수 음

습	X O	습은 습 習字 습은 습 習字를 쓴다.	습내 습기
말	X O	말은 말 末의 일 및 말(말)은 차 字를 쓴다	말말 일이다
용	X O	용은 용 龍을 쓴다.	용기 피용 사용 주용
작	X O	작은 작 作과 同	작 작살 작 잘 잘니 작
장	X O	장은 장 長의 字 장은 르 呂字를 쓴다.	장기 장리 장시
잔	X O	잔은 잔 殘의 字 잔은 잔 殘의 字를 쓴다.	잔치 잔간 잔시
졸	X O	졸은 졸 졸의 字 졸은 졸 졸의 字를 쓴다.	졸다 병졸 졸업
존	X O	존은 존 尊의 字 존은 존 尊의 字를 쓴다.	존재 생존 존경 존체 존안
전	X O	전은 전 前의 字 전은 전 前의 字를 쓴다.	전기 정기 전전 고정한 가정예 사정 가격 정거
절	X O	절은 절 節의 字 절은 절 節의 字를 쓴다.	절제 절계 기절 수절 절명
족	X O	족은 족 族의 字 족은 족 族의 字를 쓴다.	가족 지족 저족 什馬
중	X O	중은 중 中의 字 중은 중 中의 字를 쓴다.	중간 키중 중지 重用
준	X O	준은 준 準의 字 준은 준 準의 字를 쓴다.	준비 오준 수준 표준

즉	X	○ 初音은 2 終聲을 씀. 1 즉시 1 즉사 1 즉량
즉	X	○ 二 음재는 속+2를 씀. 1 오즉 1 구즉 1 수분즉
직	X	○ ㅈ字 + 7을 씀. 1 직책 1 직업 1 직사 1 간직
집	X	○ ㅈ字와 同 1 개와집 1 집채 1 고집 1 고질
제	X	○ ㅈ字를 쓰며 后聲字는 그中 横에 씀. 1 제사 1 업자 1 제지
조	X	○ ㅈ字의 半을 씀. 1 조선 1 조기 1 조수
진	X	○ ㅈ字의 半을 씀. 1 진미 1 진상 1 임진
림	X	○ ㅈ字를 쓴다 1 남자 1 림목 1 임의
창	X	○ 창은 ㅈ字, 1 창가 1 창성 1 창소 1 창운
청	X	○ 청은 ㅈ字를 씀.
초	X	○ ㅈ字의 半을 쓴다 1 초등 1 초수 1 초보
촌	X	○ ㅈ字의 半을 씀. 1 변촌 1 촌기 1 촌소사
추	X	○ ㅈ字의 半을 쓴다. 1 추수 1 키추 1 출. 좁
침	X	○ ㅈ字를 쓴다. 1 침정 1 침수 1 침송 1 격침
팔	X	○ ㅈ字의 半을 씀. 1 팔꿈치 1 팔뚝 1 나팔
품	X	○ ㅈ字의 半을 씀. 1 품선 1 품기 1 품수품

편	X	O	ㅍ자를 쓴다.	편라	형편	공평
합	X	O	후자를 쓴다	합심	기합	합동
활	X	O	활자를 쓴다	활계	활수	
협	X	O	호자를 쓴다	협장	협동	협곡
훈	X	O	훈의 자를 를 번리다.	훈내	훈육	훈포
홍	X	O	해자를 씀	홍시	가홍	천홍
몽	X	O	몬+ㄱ	몽보	몽토	개몽
한	X	O	中位位置에 돋을 짝어 '한'으로 씀.	한개	한국	한령
혁	X	O	허자를 兼用.	혁신	피혁	개혁
개	X	O	거 자부분 을 써도 좋다.	개상	개기	개미
대	X	O	러자를 쓴다.	대림	후대	대륙
재	X	O	즈자를 쓴다.	기재	소재	재정
합	X	O	한자 兼用	합물	합구	합실
몸	X	O	ㅁ+ㅁ	그 몸	이 몸	병이든 몸

單語만 쓰고 아는것이 아니라 連續된 言語를 쓰
 기 爲한 記號字이나 만치 날 單語上에서 볼때에는 二
 種 三種으로 變文이 되는수가 있을지언정 文章上에서
 볼때에는 前後語의 關係로 確然히 區別이 되는것이,
 람을 覺知 하고 아무 躊躇 없이 踏 하기 바란다.
 C. 下記 AE線 例에 따라서 AB AC AD AF
 各線의 位置圖를 作成 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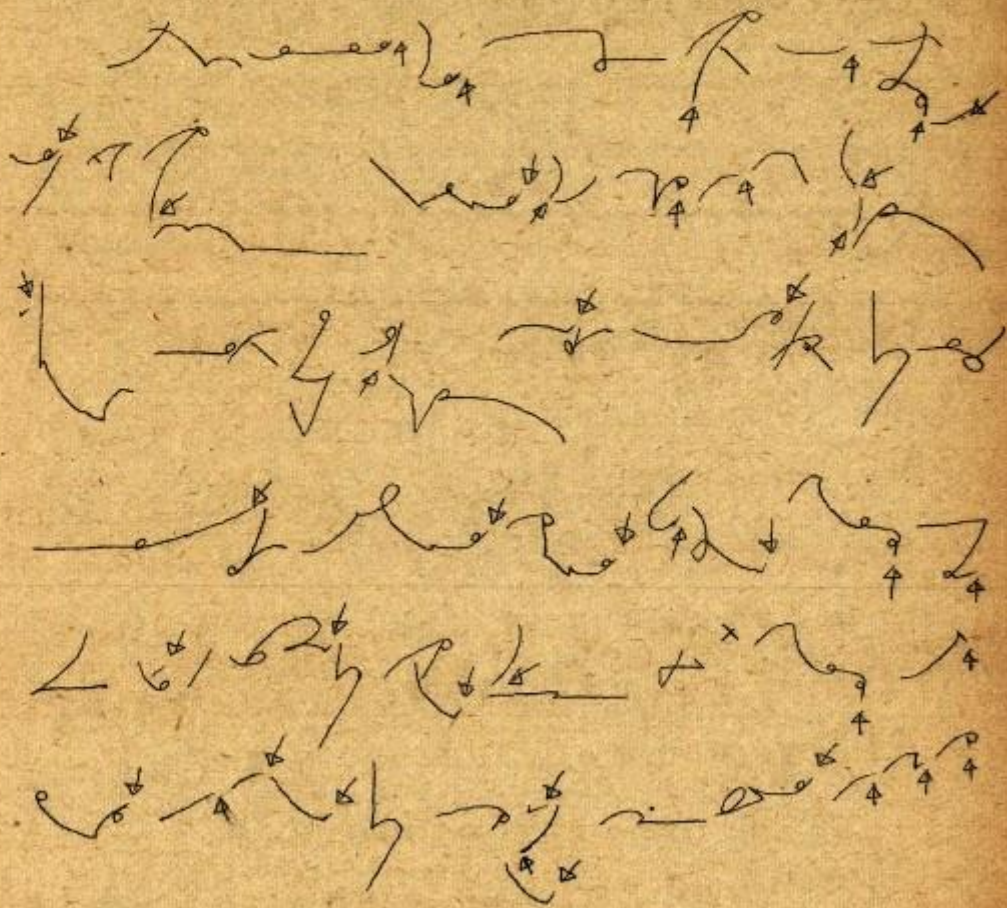
D. AB線은 左斜下線이기 때문에 同線字의 續記
 는 運筆上 不便한 點이 있어 不得已한 境遇에는
 $스 = 人$ $ㄷ = 二$ 으로 相互利用하여 字體를 整頓
 시켜도 無妨 하다. 例, 라도 = 라字 + 同行
 $ㄷ$ 記號, 주자 = 주字 + 사字, 도자기 = 도사기 等々.
 E. 變字利用이 不充實 하면 그만큼 速記能力을 發揮
 못 함을 알고 變字記號란 모조리 使用 해야 되는
 데 但 略字法에 依한것이 記筆上 能率的인 것은
 勿論 略字法을 使用 해야 된다.

따라서 한 낱말 에 對해서 變字有無, 略字法

初無가 明確히 變知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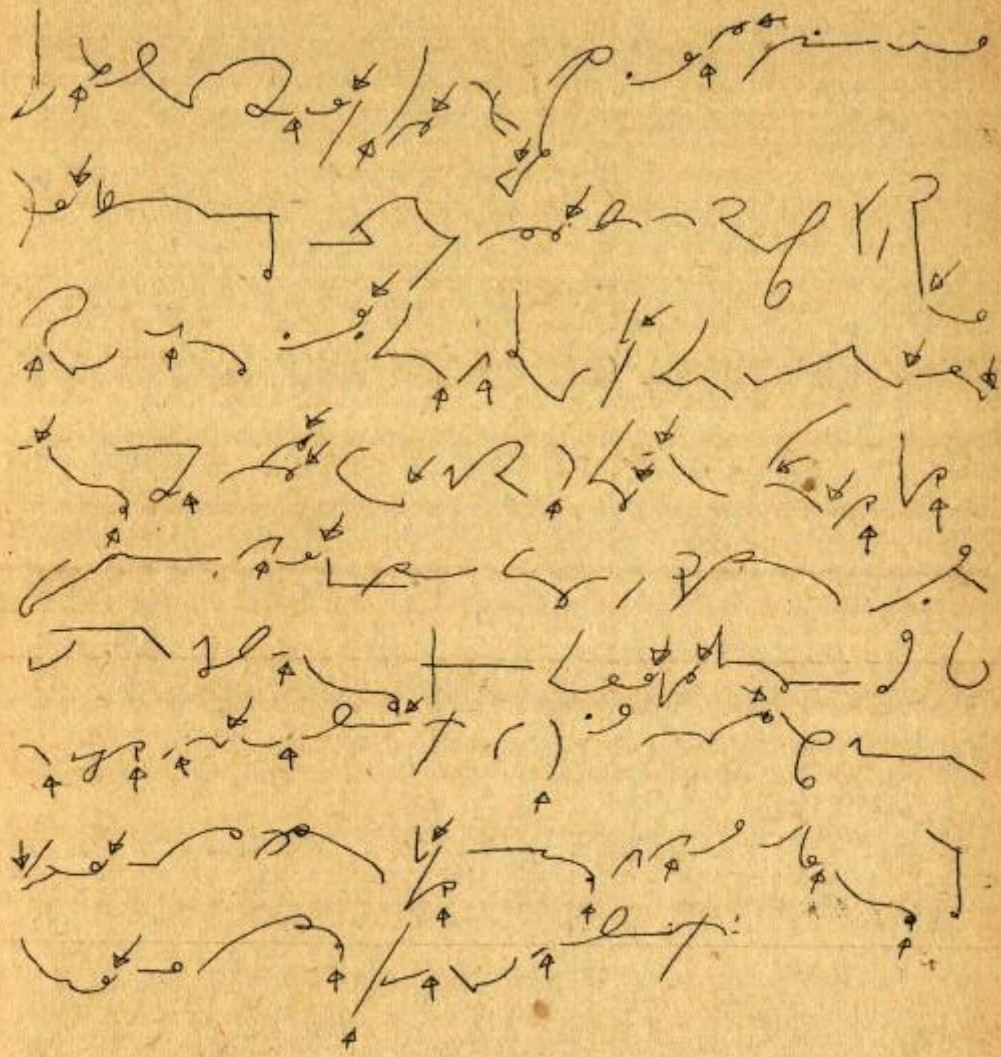
例 文

下記에 그 一例를 보이겠는데 數種으로 變文 되는 語
라도 介處까지 말고 全詞으로 變字로 記字化 되도록
하라.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ged paper, consisting of approximately 12 staves. The notation is highly stylized and includes various symbols such as notes, stems, and clefs. The ink is dark and the paper shows signs of age and wear.

~130~



選文參考

사람이 느끼는바는 모두가 의식 속에 남아 있지를 않는다. 짐이
 도 의식이라고 할 때에는 벌써 이것을 언어의 방법으로 포착하여
 의식에 담아 둘 성질의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이다. 그러나

계를 지어 사색하는 경우에는 풍부한 어휘를 가진 자가 훨씬 더 능률적인 것이다. 위대한 작가가 대개 풍부한 어휘를 사용 함은 당연한 일이다. 미묘 복잡한 인간생태는 언어군을 가지고 꾸미어져 문장에 의해서 언어가 직접 표현 할수가 없는 점까지 나타내게 되는것이니 더 오묘한 표현일수록 더 많은 어휘가 필요 되는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다시금 알려져 있는 세계는 사람의 정신 생활의 대상이니 우리는 몸은 태평양 안에 좁은 한 구석에 처하여 있어도 정신은 늘 지구덩이를 돌아다니고 있다 더구나 문학상의 생각은 지리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구라파에 있고 보니 이것은 아마 외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자들의 일이지만 세계는 한 민족이 그 국경안에 봉쇄 되어 생활 함을 용허할 하지 않으며 인간은 그 정신적 생명을 확대 하기 위하여 인류 공동하여 그 알려진 모든 영역에 정신적 양식을 찾아서 흡수 하여 마지 않는다. 좁은 장벽속에 유폐된 정신은 양광 아니 받는 초목과 같이 꺾약 하다 민족생명이 강 할수록 강렬히 외국에서 널리 정신적 자양을 취 하여 온다 자아의 고도한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은 또한 국외의 별 다른 문화 식량을 찾을 필요가 없는것 같으나 도리어 더 광범위로 세계의 구석 구석의 특수문화를 찾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불행 독용을 보면 알수가 있다. 또 발전성 많은 후진국가의 실려는 거의 광적으로 청략을 가릴 여유 없이 선진문화를 섭취 하는 그 예를 일본에서 볼수가 있다.

과합쳐 위 약 도 툐 만 거 리 반박
 (합약) 약 (합박) (합약) (합약) 리 반박
 간약 약 약 소 비 보 청 조 논박 동학
 (합약) (합약) (합약) (합약) (합약) (합약) (합약) (합약) (합약) (합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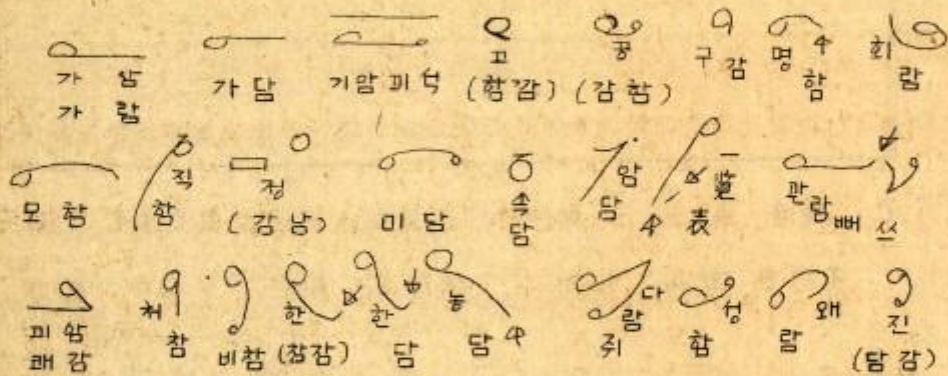
* 各自記入欄

C. 度字 "금" 은 ㄷ 체字와 ㅈ 체로 檢査利用한다. 但 "품" 字만은 除外 하며 亦 例語를 限定 하도록 하라.

기 (금금) 주름살 죽음 달 (품금) 지름길 차춤 주춤
 (금금) (금금) 더품어 차다 우름 우름 선 (음) (음) (음) (음) (음) (음)
 미름 (음름) (음름) 미름 (음름) (음름) (음름) (음름) (음름) (음름) (음름) (음름)
 입금 (음금) (음금) (음금) (음금) (음금) (음금) (음금) (음금) (음금) (음금)

※ 各 自 記 入 欄

㉓. 變字 "감" 은 占 列 字 로 檢 索 利 用 한 다. 但 "외 감",
 異 々 이 列 字 에 서 는 字 尾 內 則 으 로 檢 索 利 用 한 다. 또 한 "담"
 은 反 對 便 에 加 하 여 區 別 을 做 도 可 다.



※ 各 自 記 入 欄

㉔. 變字 "감" 은 占 과 古 列 字 로 檢 索 利 用 한 다. 但,
 "검" 字 는 除 外 한 다.

B. 二音 体 上의 円을 反자로 한다. 但 例語가 많을 때는 体 — 체로 互로 混用 한다.

例

기 체	나 체	단 체	老 体	만 체	본 체	산 체	액 체	
구 체 (一 體)	난 체	대 체	活 弟	문 체		시 체	우 체	원 체

전 체 (一 體)	형 체	경 체	범 체	다 체	肉 体	母 体	부 체	산 체
自 体	兄 弟	固 体	○ 體					상 체
지 체								소 체

※ 各自記入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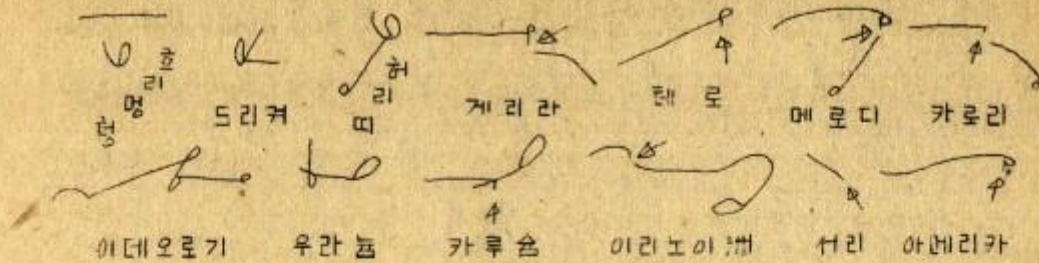
잠 체	하 체	야 체
○ 體	○ 下 體	안 체
○ 正 體		

9. 上 列의 境邊에 비추어 同行 上 T | H 記号는 各 該 上 T | H 列字로 充利用 할수가 있는데 勿論 無배침字에 뒤 오는 AB AC AD 線字 時과 行 에 人行이 오는 境邊로 取定 해서 씀이 좋다.

가	기	파소평가	기만장	사모	취	소	徐후
(소초)	(초소호)						

초 내포 본포 면모 점포 대포 연포 로 로 난로 로
 소수 타도 피모 자모 미소 키추 (기구) (수류) 가 기 (구수무) (구수)
 고 미수 어 수 주 메 도 소 서 아 상 추 (수추) (부류) (부류) 주 주 (류부) 부 추
 휘문 가 거 고 피 지 부디 치 (회지) (치지)
 백관 자 이 위 마취 수 재 (회지) (회비) 두취
 조 미 하 리 개피 잠 상 기 (치비지) 메기 학취 치 치 (피기) (기치미)
 송치 결 (기치비) 공 (비치) 성 (취미) 신비
 진 암치 등 승지 중비 흥미 흥취 냉기 생취 정취 행취
 흥부 장부 (부부) 경보 필부 합취 결기 격문 생취비

※各函記入欄



하면 以上의 原則下에 우리는 數 많은 單語가 時變
 후로써 登場 되는 새음인데 實上 廣範圍한 言語를
 無依定 全部 適用 시킨다는것은 無理한 일이어서 特
 히 下記 三點을 念頭에 두고 臨하기 바란다 .

- ※ "우름" 과 "우슴" 같은 反意語나 흥미 (흥취) 설치
 (설비)같은 同聲語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만 使用할것.
- ※ 一記호로 三種 以上을 兼用을 避할것.
- ※ 變字를 씀이 便할 때에 구대여 及略身化 하지말것.

L. 終初聲合用變字

記法과 要領

이는 前節字의 終聲記호가 배침인 L ㄹ ㄴ ㄷ
 마는 배침 變字에 后續되는 初聲中聲合用음字를 가진
 낱말 中에서 더 簡記할 必要性이 있는 處에 비추어
 考案 된 記호變字인데 下記數種으로 分類 된다.

~ / ㄹ / ~

A. 終聲 + 1. 文字 假令 "인치" 하면 "이" 와
 "치" 를 区分 하여 "L ち" 符號로 喪字 "정" 字를 併
 合 表示 한다. 但 例證 區別上 必要 하면 3mm
 正字樣 同記號로 하여 二種을 併도 좋다.

만지, 명외 명기 원(기치) 선치 (남치) 령치 비 진(기미지) 철치 부삼
 앞비 경(기치) 치 (민외) (지.비) 치 단피 (지.기) (치.끼지) 인
 관치

* 各自記入欄

B. 終聲 + 大.대 喪字 同行略記號 '1. 小円을
 3mm 半円으로 하여 表示 한다.

장대 당대 학대 상대 방대 반대 만대 장대 존대 연대
 장대 대 활대 상대 방대 반대 약대 장대 존대 열대
 동대 봉대 성현대 권대 명대 순대 진대 회대 회대
 대 대향대 관대짓 경대 명대 대 대 회대 회대
 신대 환대 원대 안대 냉대 적대 양대 랑대 중대 호대
 룩대 대지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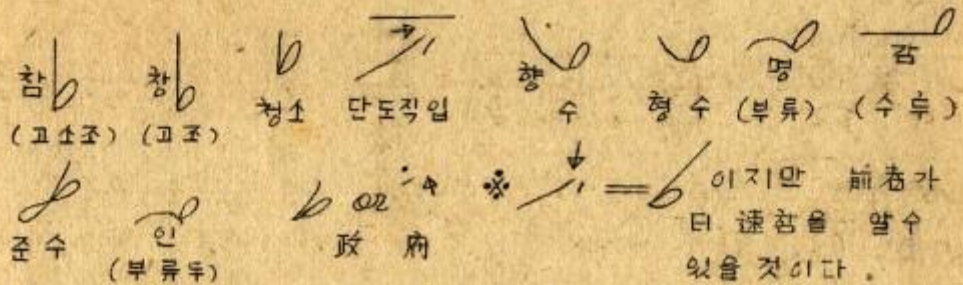
※ 各自記入欄

C. 終声 + 1. H 変字..... "행" 変字를 꺼꾸로 쓰는
記号 又は 同 3mm 記号字로 表示 한다.



※ 各自記入欄

D. 終声 + 1. T 変字..... "성" 変字 又は 3mm 성
変字를 使用 한다.



※ 各 音 記 入 標

E. 終 聲 + ㅂ, ㄷ, ㅌ, ㅍ, ㅍ, ㅍ 變 字 前 ㄱ, ㄷ 外 記 法
 파 同 因 此 例 外 無 終 聲 也 用 。

원래, 장래, 근래, 견습, 권습, 미래, 인내, 이래, 달래, 재래, 괴래
 원내, 장내, 권내, 권내, 결래, 미래, 이래, 빨래, 래래, 래래
 관(감)습, 왕래, 공습, 수꽃, 쫄래, 고래, 몰래, 학습, 천운, 전래
 명습학, 기습작전

※ 各 音 記 入 標

F. 終 聲 + ㅁ, ㅂ, ㅌ, ㅍ 變 字 同 行 "I" 字 + L 終 聲 字
 의 記 號 를 쓴 다, 但 若 干 無 終 聲 例 外 를 쓸 수 가 有 。

공문, 인문, 영문, 영문, 天文, 反商, 重門
 공민, 학문, 풍문, 명문, 영문, 前商, 前商
 산문, 관문, 논문, 농민, 함문, 단문, 영문, 영문, 정문, 건문

~ 144 ~

(문민) 앞문 윗문 꼭문 한문 삼문 길문

길문봉단 앞문거죽 난민구호 안문 련민 안민말문

의문 위문 자문 지문 東面回答 東大門 南大門 西大門 獨立內 北門

※ 各自記기補

G. 終聲 + 의 變字..... 10mm 以上 7을 記號로 쓴다.

관각 난색 동매 동색 亂脈 亂論 文져 명져 명색 文져 반 술져 산 精져 현

정져 직 文져 색

※ 各自記기補

此 記法에 있어서도 亦是 變字보다 簡記 되는 字에 限
 合은 勿論이며 一記號字로 三種 以上의 字를 兼用함도 同樣이다.

C. 個音漢字 및 二音漢字 變字

~ 145 ~

普通 漢字 에서는 對象이 同一 表音字 全般에 屬한바이
나 特別히 漢字中 頻用字로서 下記 數種을 골라 二重재 漢
字音及字樣 編成 한다.

A. 由, 有, 油, 遊, 遊, 裕, 庾 字,..... T列字의 大田의 字尾를
同字尾 方向으로 배치는 記號를 使用 하되 前語字는
終聲이고 小田이고 同에 全廢 하고 다시 1 기 1 기
개 제 = 卜, - H 卍 = 卍, 卍 卍 卍 = 卍 의 三
種 半線 純字에 合습 시켜 버린다. 또한 同音인 他
漢字에도 補充利用 할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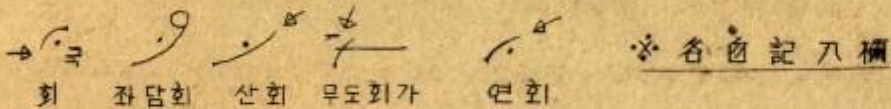
* 各 自 記 入 機

B. 嬰, 孝, 庾 字,..... 10mm 以上의 田을 더 둥구린 記
號를 가지고 同行音字를 共同으로 쓰며 亦 他 同
音 漢字로 利用 할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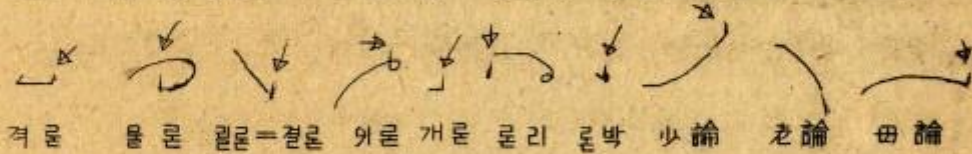
~ 146 ~

※ 各 函 記 入 欄

C. ㄹ 變 字 前 音 字 曲 線 的 變 遷 是 四 種 的 樣 子
 그리고 直 線 的 變 遷 是 中 間 上 面 的 記 號 中 間 入 的 記 號
 고 稱 呼 的 樣 子 是 中 間 入 的 位 置 利 用 的 樣 子
 而 ㄹ 變 字 (前 音 字 變 成 ㄹ 時 的 樣 子) 也 同 樣 的 樣 子 寫 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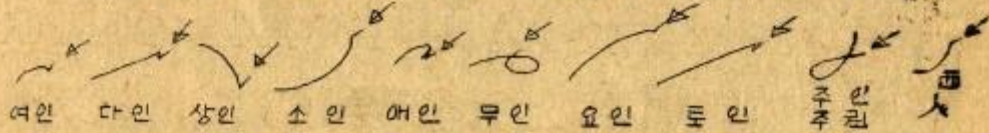
D. 論 變 字 守 尾 處 加 2mm 直 上 的 垂 線 。




※ 各 函 記 入 欄

E. 人 變 字 主 要 是 ㄹ 向 右 變 字 的 樣 子 加 上 一 筆

“ 變 字 的 樣 子 同 樣 的 樣 子 寫 法 同 音 變 字 的 樣 子 利 用 的 樣 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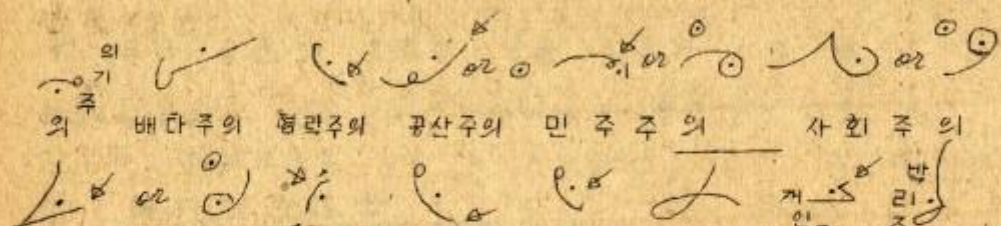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合人

 ※ 合의 記入 樣

F. 主義 度字..... 中向入 即 器度字와 同이다.




 의 주 의 바다주의 철학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황금주의 현금주의 주의사상

 반인주의 주의

 ※ 各의 記入 樣

G. 合. 庄 度字..... 15mm T字로 併 B와 同樣
으로 쓰며 同音漢字에 利用 할수 있다.



 기합 기합 고압선 야합 단합 단합 수남 文 甲

 ※ 各의 記入 樣

2. 二音變字

記法 要 領

無終聲基本記號에 있어 15mm 記號의 連續은 字体의 大
 를 不 免인 關係로 此를 調節하기 爲 하여 特別히 '二音
 字'를 下記와 같이 두게는데 우리말에 있어서는 終聲 關係는
 此等 二音節 一單線記號를 適切利用할 餘地가 없음을 遺憾
 으로 生覺 하는 리인 故 諸君은 速記號의 前途가 此種
 二音節 一單線記號의 成功에 있음만 了知하기 바란다.

A. 2.5mm 小圓의 左右上下 半圓記號로써 下記 二音
 字를 構成 한다.

圓의 左半 = 도모, 도로 圓의 右半 = 고모(고무), 모도
 圓의 上半 = 요로, 요소, 예고 圓의 下半 = 노고
 노조, 세게,

B. 2.5mm 菱形四角形의 左右上下 半分記號로써 下
 記 二音字를 構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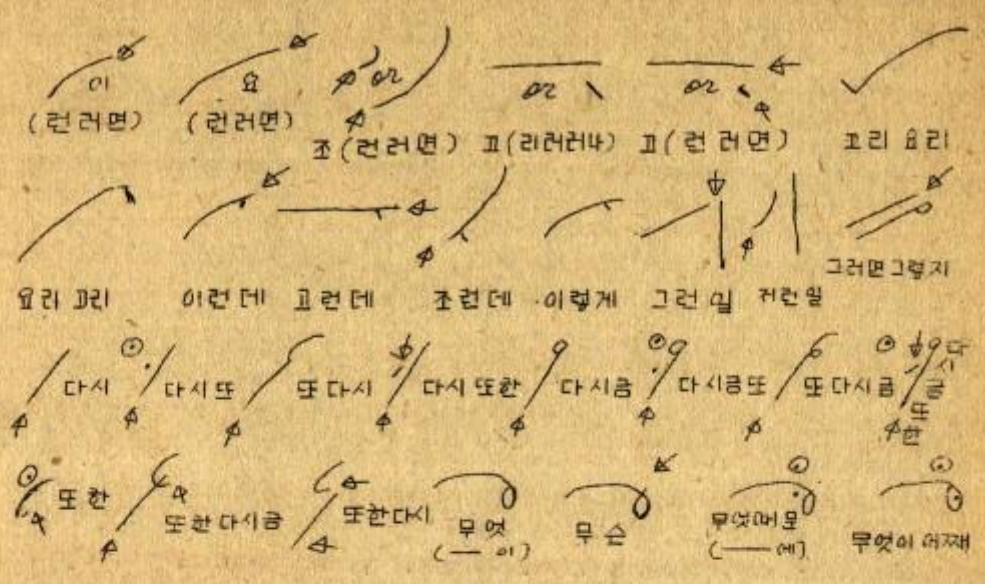
左쪽 半分 = 도보(두부) 右쪽 半分 = 고조(고주), 고로(고록)
 上쪽 半分 = 포도, 보고, 보모 下쪽 半分 = 호도, 고도, 호소

C. 基本記號中 下記字를 二音字로 兼用 한다.

포字 = 시기, 시키, 시켜, 폭字 = 지기, 지키, 지켜.

가字 = 나가 (但 中間交叉點) 2개 □字 + □ = 더러

타字 = 그리, 그러 (그러나) 아字 = 이리, 이려 (이러나)



變字再認識

普通 特殊가 모두 우리말中 單語를 變字化 하는데 있어서 依然한 原則을 내세워서 多角的으로 利用하게 되여 있음은 一瞥 해서 짐작이 갔을 것이다.

따라서 한 낱말을 基本記号로 記筆 하는 것보다 變字로 적는 것이 더 簡記性을 띠웠음을 明確히 느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몇가지 教師가 例로 描寫한 것이나 此 學問의 記例文의 것으로 그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以上 普通 變字는 個語的으로 되어 있어 利用의 路가 大概가 바로고 正確 하지만 特殊 變字의 境

通어는 該當例語를 놓고도 變字略法을 忘却 하여 比能
率적으로 쓰는 習學生이 많으니 이는 再言할 것 없이、

※ 于先 變字利用의 原則이 徹底히 認識 되어 있지
않은 處。

※ 該當語에 對한 例語 蒐集을 게을리 한 處、
에 起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習學生들은 마치 削爭가 社
會人은 모두 簡記이라고 疑心을 해야 옳다는 理와 똑 같이、

※ 喃말이란 모도가 變字와 略字의 対象이 되는 것일 것이다. ※
라는 觀念 아래 變字有無에 對한 覺知能力을 最大로 發揮
하도록 해야 한다. 이 處이 于先 變字 利用可能의 첫 걸
이나 習字途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喃말이란 喃말은
모두 基本記号보다 簡記 할 수 있는 變字利用 対象으로 삼
아서 即席에서 變字利用길의 有無를 判斷 하여 變字가 없
을 處遇하는 略字法에 該當을 시켜야 된다.

왜냐? 하면 變字란 第二의 基本記号이기 때문이며
略字法이란 變字보다 簡記 하려는 目的下에 法則을 세운 것
이니 此處를 直視 하여 꼭 尹舟 하면 喃말의 連記号는
創案者가 意圖한바 簡記号로서의 變化가 自在로 이루어
질 것이며 實務連記에 있어서 槽位함이 없이 變字簡記号의
妙味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第五章 逸波式略字法(二)

第五章 逸皮式略字法(二)

第一節 單語略字의

過程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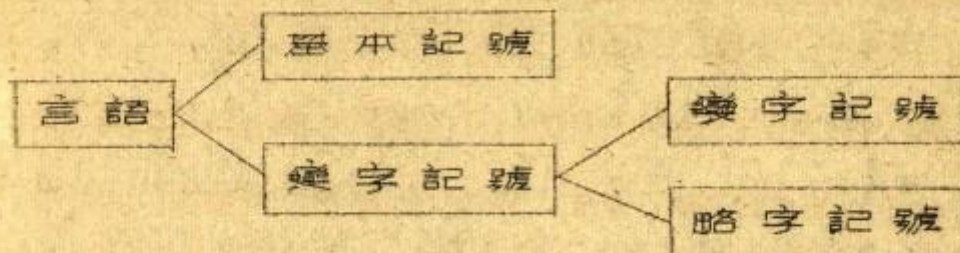
假令 基本記號가 普通 우리 한글字 記筆速度의 倍
라고 치면 契字는 三四倍의 能力을 가진것이라겠는데
詳略한 發音中에는 契字만으로는 三四倍의 能率을 올릴
수가 없는 例語가 또한 적지 않다。

이 點은 우리가 먼저 三章 三節이 連續終聲略字
法의 例를 보아 歷然히 是결수 있는 바이다. 卽 “명
당” 하면 契字에서 “명” 한字 “당” 한字를 띠여서 쓰되
前記 略字法에서는 同一記號의 두 비침이 略化 되어 그
만큼 빨리 쓸수가 있다는것은 三尺童子라도 알수가 있
을것이다。

다시 “명당” 한다면 略字에서나 契字에서나 띠지 않고
쓰는것은 同一 하여 苟히 還文上 契字가 有利 할것도
能히 알수가 있을것이다。

따라서 習字書는 契字와 略字에 있어 大差가 없을
境遇에는 適當 第二의 基本文字인 契字를 優先的으로
여겨야 할것이 理論上에서나 記字上에서나 宜하여 宜

필요한 듯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下記와 같은 原則이
된다.



- A. 言語는 一但 基本記號로 記號 된다.
 B. 基本記號는 變字記號로 變樣 한다.
 C. 變字記號는 다시 略字記號로 變樣 되는데 略字記號가
 變字記號와 記號速度上 同等能力인 境遇에는 變字記號法
 이 언제나 가 된다.

即 이 事實을 좀 더 詳細히 보아 보면 單語는 大略의
 境遇 ① 初中聲 合用字, ② 前語가 終聲을 가린것,
 ③ 后語가 終聲을 가린것, ④ 兩語가 모두 終聲을 가
 린것의 四種이 되는데 이는 또한 下記와 같은 記號으로
 区分 된다.

- | | | | |
|------|----------|-------|------------|
| ① A. | 基本音字記號記法 | 續音記號 | 變字記號 |
| ① B. | " " | 圓行略記法 | 拼夾字 TFG |
| ② | " " | " " | " L記法 |
| ③ | " " | 變字記號 | " TABCDE記法 |

一 聲韻略이란 文字 그대로 發音에 있어서,

A. 初音節과 終音節만 省, (例) 부 [부] L 記号 "부"

B. 初音節만 省고 右音節은 略함, (例) 표 [표] 記号 "표"

C. 終音節을 略함, (例) 여 [여] 記号 "려"

의 三種이 有 하며 다시 이를 熟語나 句에 있어서도,

A. 四音字 熟語의 音略記法

B. 句 又は 恒用 發音 略함 (例 文字 그대로) 에
있어서 音字 省略記法.

이 有 하게 되는 것이다.

然이나 音略向誌에 關 해서 再番 詳考 하여 그
要點을 아주 明確히 해 보고져서 한다.

이제 原本文字와 變字를 다시 한番 回顧 하건대
배침을 가진 記号는 原本文字에서 L 리 O 비의 四個
終音字이고 變字에는 이 배침字가 大體으로 變換해서
終音字은 一音節으로 無 배침字가 되고 初 배침
字란 ㅏ ㅑ ㅓ ㅕ 의 字를 배침과 L 리 O 비의 終音
記号 利用과 "무", "간", 兩字로 되어 있는만큼 此等
有 배침字가 前語가 되는 境遇에 있어서,

A. 白語가 占 可 占 이면 當然히 特殊變字 記法으로
略字가 構成 될 것이오,

B. 后語가 ㅅ ㅅ ㅅ ㅅ 이면 또한 A와 同이요.

C. 后語가 終聲을 갖었으되 無 刪者 變字인 때는 勿論 그
대로 쓰되 若干 "항상, 따위는 同音終聲 略記法
으로 "하사, 로 씀, 運筆上 利함이 歷然 하니 이런
類는 除外 할것이요.

D. 后語가 ㅌ나 ㅍ나 ㅊ나 ㅌ나 ㅍ나 ㅊ나 ㅌ나 ㅍ나 ㅊ나 ㅌ나 ㅍ나 ㅊ나
대태래문 ㅌ나 ㅍ나 ㅊ나
은 勿論 特殊變字 記法으로 略字가 構成 되며.

E. 다시 終聲이 同音인 때는 原則으로 두 終聲을
略 하되 但 "윤간, 따위는 終聲略 "유가, 보다
變字로 씀이 運筆上 利함이 有 함이 歷然 하니 이
런 類는 除外 하여.

F. 綴音인 때는 當然히 綴音記法을 記하여 우리의 낱
말이란 以上 七가지 筆法과.

G. 前語의 無 刪者 變字인 때는 后語는 同行略記法만 살
리고 無條件 그대로 쓰되 "성공, "근신, 따위는 終聲略
字로 "ㅅ고, "그시, 로 씀이 運筆上 能率이 남아 歷然
한바이니 除外 한다.

라는 如上 七가지 記字法을 原則으로 삼아 버린다면
여기에 向題는 后語가 前語의 終聲과 틀리며 刪者 變字인
記號만 處理 하고 보면 모든 낱말이 二音節 連記에

있어 一筆之下에 써지는 것과 한 통만 붓감을 따우면
그만한 두種으로 大略 歸一 같은 明白한 일이다。

換言 하면 낱말의 連記符로서 空고 경기 聲가 합
쳐 算々 두 記號를 써야 두 音節이 써지는 것보다는
드러 空모 노소 算々 한 記號로 써두 音節을 나타내는
記號가 더 簡便한 筭이야 될은 바 아니나 이는 終聲
이 없는 國語를 가진 國民의 便益이지 我國에서는
現代式 連記符로 써는 無秩序와 無體系밖에 가져 올것
이 없고 다시 表音記號上 音理와 記號가 不合理 해져서
結局 失敗로 돌아가기 쉬우니, 여기에 우리의 初中終
三種의 音韻合用語音을 빠짐 없는 一記號로 써 記號는
계만 되면 于先 當面한 連記符의 能히 이루어 짐에
着眼 함이 連波式의 變字이요 이 變字의 構成으로
近 1300 個의 原本音節中 變用音字에 關한 배물과 그
効果性이 不得已 反한 簡記法에 있음을 解得 했을진
대 略字法의 目的 亦 體系와 變字의 利를 漏主 하
여 條理를 가추어지게 한 記號學의 理出이 此 學問
을 能히 覺知 하여 그 利用面에 있어서 前期 以上の
效果를 올릴수가 있을것이다。

따라서 殘余問題로 前後語가 빠짐字이면서 變字에도

終聲略法에도 該當이 아니 되는 記号字의 略字化를 爲하
여 여기에 一部音 略字法을 두는데假令 “보망” 하면,

A. 부 [ㄴ] 마 [ㅇ] “L O.”를 略 해서 “보만.” “부마.”와
同字로 쓴다. 又は,

B. 부 [ㄴ마] ㅇ “L 마”를 略 해서 “부용.”과 同字로 쓴다.
는 二種의 式을 略記 法 두어 될수 있는 兩 語彙가 비
슷한 單말과의 兼用만 避 한다면 此 略字法은 完全
히 善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留意 할것은 該當語라고 더퍼놓고 略
字化 하려 말고 常用語로 選擇이 變々 하다고 느끼는
例語에 局限 하여 (아마도 가물에 풍나가로 나오는 例語
는 除外 하라) 兎論히 自己의 記号로 만들것이며 다시
“난잔.”과 같은것이 두字가 모도 單線 (字尾에 ㅍ이 없는)
인것은 記号性格上 略字의 対象이 되지 않으나 이 두
點을 또한 살려 나간다면 諸君은 先生의 하나 하나의
指示 없이도 此 略字法의 利處과 創案者의 意圖 하는바
대로 나알수 있을것이다.

※ 注 意 ※

◎ 單말은 늘 夾字와 略字法과 参照 하여 其中 一을
採 하라.

- ① 記號의 性格에 對한 上下級을 잊지 말라.
- ② 選文上 得處도 考慮 하고 兼用을 삼가되 特別 同意語는 어느 一을 略字化 하라.
- ③ 記體가 右橫書體임에 비추어 AB AC 線에 連續을 避 하라.
- ④ 모든 略字는 그 出處를 說明하 하여 누구의 筆向에도 記錄의 體裁的 說明이 可能하게 하라.

例 題

下記 單말 들은 어떻게 써야 理想的인지 考究 하라.

미국 대학 강단 어연간 강의 감사 상원 경험 문학 언어학
 원리 직위 발행 대륙적 만족 행복 지침 긍정 완전 인간
 활동 정정 실중 음운 지능적 발전 논술 독단 다각적 현명
 상징체 음양 문장 성격 결론 무용 직접적 간접적 신문
 통신 음성 은행 관용 공간 격판 망신 생명 분절 신생
 선장 선장 공인 생존 공약물 양면 명중 인준 실질 집단
 영국 형식 통일 공동 공동 공용 말살 멸망 현실 영도권
 표준어 숙명 해석 연상 변경 산물 적합 청각 운동 입장
 혼질 반영 실용 변권 농후 방언 등장 감정 장면 발생 영상
 촉진 동기 체계 종국적 단독 관습 습관 규범 분석 구체적 날

합리 계급 존중 공명 규격적 변종법 회리 중상 문법 간주 문
 헌 평행 충실 결정 기대 활용 창설 당시 소개 민간 상관 동
 방례이지국 관련 필요성 근원 진화론 군단 용사 융화 혁신
 동물 집적 순간 창안 발음 내용 민색 극단적 환영 현상 당
 연 전달 표현 승화 승용 각종 근육 신축 간격 압축 압박
 속칭 진동 격음 보통 마찰음 구개음 독설 방관 뜻부 연장
 파악 인식 음성 중영 방면 연원 운문 편찬 옥편 성행 별
 명 운명 목록 노력 관목 적용 망각 엄존 잡지 산양 함락
 속삭 아악 병원 차비 겸임 진상 단락 선거 참구 말경창파
 평화 미구불된 코형 상장 인식 관련 정상적 이상불 유연비어
 긴장 피상양측 신앙 신학년 밀집 현재 산재 태도 선명 방법
 성경 할색 환난 작살 협력 진담 국장 열정 날인 동명 식견
 공성 눈을 충격 항만 학생 긍정적 완성 원만 순직 율측적 완
 강 훈장 황새 항새죽새 원명 강술 진창 종합 번역 철난
 결된 원리 인원 명언 명창 유전기 세공민 손해 혼연일체
 학교 통감 결망

註 速記學은 記號가 個人文字와 同後 劃을 하여 卽
 時로 文字化 되어야 速記號의 價値가 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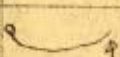






따라서 自己本位의 略字는 그 當場은 效果的인樣 卽어도
 實地에 있어서는 後日에 가서 遺文不能의 死記號밖에

되지 못 하며 이를 이른바 記号 即 個人略字에 不過하게 된다 前言한바 略字의 出處가 明確한것은 依例히 求緩性を 持 할수 있는것이 略字 即 略字構成體인 遠波式에서는 拵히 此處를 가장 重視하여 強調 하는 바인테 이 緣由는 이래야 速記號가 個人的略字가 되지 않고 學的價值를 갖게 되어 어느 누구든지 遠波式 速記士는 白帶를 養成 할수 있는 條件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以上을 잘 意味 하면 白記 例文에 南한 品바를 判斷力이 生 할것이다。

※ 下 例文中 ◎ 印은 一 部音略字임. ※

一 部 音 略 字								
본말	성	記 字	본말	성	記 字	본말	성	記 字
국민	미	ㄴ	충분	충	ㄹ	칭찬	찬	ㄷ
교육	육	ㄹ	만드시	드	ㄷ	회합	회	ㄹ
경제	제	ㄹ				회사	사	ㄹ
금융	융	ㄷ	바야흐로	야흐로)			

계몽	모		불현득	현드		획득	득	
공무원	무외		의미	미		획책	책	
농산	○사		유익	이		더욱	우	
농산품	○사		얼마나	마		先先	L새	
대통령	동려		얼마만큼	마만		先先님	L새	
대변인	변이		독특	독		동안	○마	
명예	명		특별	7변		분망	L○	
세상	사		전쟁	전		한바탕	L바탕	
사상	사		정부	정		전치	전	
세계	계		정부	정		정치	정	
인생	인		전체	전		정체	정	
부분	부		정부	정		전체	전	
			太平洋	○○		정부	정	
						전부	전	

※ 各 函 記 入 欄 ※

날	말	성	략	記	字	날	말	성	략	記	字	날	말	성	략	記	字
同	胞	同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ged paper, featuring various notes, rests, and clefs. The notation includes several instances of the Korean characters '시' (si) and 'TL' (TL), likely indicating specific musical instructions or time signatures. The page is filled with complex rhythmic patterns and melodic lines.

신묘흥신

시 TL

공흥

Handwritten mathematical or technical notes on aged paper, featuring various symbols, arrows, and diagrams. The text is organized into approximately 12 horizontal rows. Symbols include circles, lines, and arrows, often accompanied by small numbers (e.g., 4, 9) and letters (e.g., or, a, b). Some symbols resemble mathematical notations like $\frac{1}{4}$ or $\frac{1}{9}$. A large number '166' is written at the bottom center of the pag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ged paper, consisting of approximately 12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s, rests, and clefs, with some annotations such as "와=화" and "1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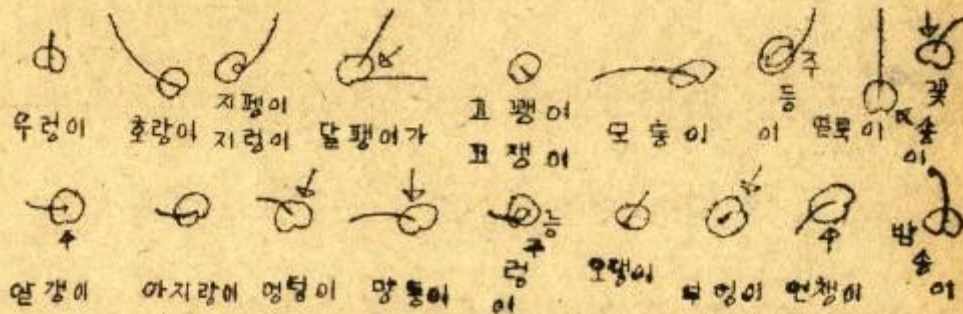
第四節 終聲 1. 名詞

略字法 卍 應用

우리의 言語中 漢字음이 아닌 純粹한 우리 말 中에는 三音節 以上인 名詞로서 終聲을 가진 名詞가 許多하다. 또한 此例는 漢字語에도 存在 하나니만큼 此等 語는 下記法에 依據 하여 모조리 略字化 하기를 바란다.

A. 이 終聲 名詞 호랑이 달팽이 북^々 첫 音節을 兼用이 아닌 變字나 基本記號로 쓴 字尾에서 起하여 同記號에 結쳐서 3mm 內을 한다.

但 初音節 記號가 3mm 以內字이면 틀러 싸 버린다.



살피기 서린기 곰팡이 응덩이 잔등이 이 물결이 원숭이 이 전행이

별 ※各自記入橫

B. "기" 키 終音名詞..... 죽때기 술레바키 等々 2mm 小円
 ("기" 記号의 小円을 联想 하라) 亦 "字尾를 捲려 쓴다.
 但, 꾸레기, 쓰레기, 는 小円으로 中斷交叉한다.

보시기 일찌기 둘레바키 두두레기 술레바키 죽죽기 메뚜기 누더기 마키 구데기
 안잠재기 무테기 기 지름모 막때기 작때기 기조기 삼꾸레기 기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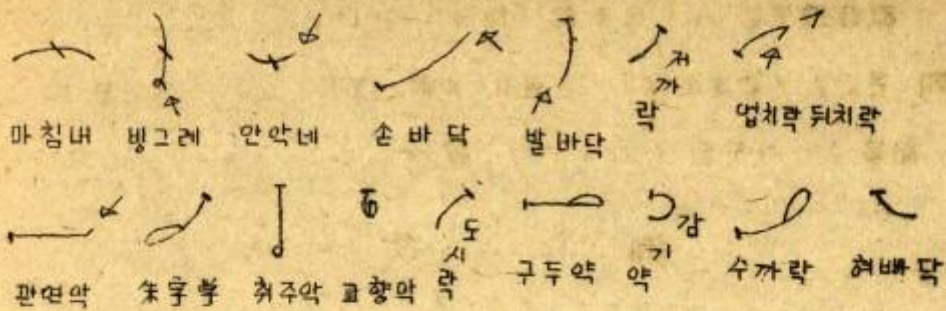
이꾸레기 ※各自記入橫

C. "니" 님 終音名詞..... 주머니, 아주머니 等々은 10mm "쟁" 字로 "니" 를
 삼고 10mm "팡" 字로 "님" 을 삼아서 初音字에 纏 해서 쓴
 다. ~ 170 ~

※ 各 自 記 入 欄

D. "리" 終音名詞..... 基本記号 "철" 字를 踏記号로 삼아 初音節에 續 けし 쓴다. (但 節音字以上은 交叉해도 無 妨 甚)

※ 各 自 記 入 欄



※ 各圖記入法

第五節 | 終音副詞略記法

記 法

우리말 中에 凡 漢語에 "하나" 이 가 붙어 副詞로 쓰이는 말이 亦是 許갓 한테 이는 .

A. 然히 然에..... 自然히 未然에 等々 이런 類語는 一切 初音節만 쓰고 "히" 字를 略記符로 한다.

B. 其他 | 終音副詞..... 은근히 완전히 等々

이런 類語는 一切 初音節에 "히" 字를 쓰되 勿論 初音節이 同字인 境遇에는 初音記호를 及手 基本記호로 區別記 하되 非然이면 中間上 加矣 又는 -

部音階字로 併 區別記 해야 된다.

예) 은근히 (基本記号) 은밀히 (中面上加号) 지극히 (基本記号) 지독히 (지+ㄱ) 等等.

例 文

※ 以下 一部만 紹介 하겠다.

然이 (히)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ㆁ

然에 例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ㆁ

其他例

은근히 나 지극히 지독히 히 당당히 외람히 소관히 지 ㅈ 부 지

의 조용히 장 열 열 저 상 안 화 황 완 순 전 전 히

레 조속히 열 열 심 즉 이 당 라 까 이 려 황 망 히 전 전 히

히 조속히 열 열 심 즉 이 당 라 까 이 려 황 망 히 전 전 히

분 무심히 무 무 려 고 피 상 정 光 선 세 세 조 급 히

주 무사히 무 무 려 려 히 소 피 상 히 당 히 光 선 명 히 세 세 히 조 급 히

치 애 강 간 막 막 막 슬 의 엄 엄 밀 리

치 애 강 간 막 막 막 슬 의 엄 엄 밀 리

然 이, (이) 然 에, 외 還 文 功 然 히 당 然 히 미 然 에 임 然 히
 돌 然 히 완 然 히 망 然 히 뵈 然 히 선 然 히 분 然 히 막 然 히 음 然 히
 소 然 히 개 然 히 자 然 히 우 然 히 줄 然 히 송 然 히 읊 然 히 창 然 히 .

※ 各 自 記 入 欄

第六節 四音字熟語例題

此 記法은 前 三章의 例와 勿論 同- 하되 樓四章
 다시 若干의 例題를 掲載 하겠는데 前言한바 此 例題는
 一人이 能히 數語를 利用 할수 있으니 남보다 더 많이 利
 用하도록 程度껏 設마던지 作成 해서 俾야 한다 .

다시 記字는 喪字에서 兼用은 避 하며 ,

A. 前 半말이 必히 一筆之下에 俾지는 때는 꼭 前韻

二音節을 다 쓰고 上에 略記號를 쓰고 ,

B. 前 半말이 배침字가 有 할 때는 必히 初音字와 終

音字를 交叉 함을 主로 하되 終音字가 不便한 記號

인 때는 三音 재 序로 交叉 하고 ,

C. 다시 初音과 三音 又は 二音 재와 四音 재가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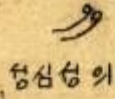
— 음의 四 (말송달송 자과자족 等々) 同 一 守를
 並記 하는, 이 三種原則을 굳게 利用 할
 것 같으면 略字上 能率的 일 것이다.

例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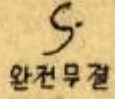
광망칠광 廣大無辺 奇想天外 餓之死處 官算民卑 傀儡
 集團 公平無私 計劃樹立 氣盡氣盡 氣焰万丈 九重怨艾 怪
 想奇則 窮僻山村 嬌慢放恣 穀價昂騰 —— 調整 暖房裝
 置 落花流水 踏柳踏花 綠衣紅裳 去々益々 尤陰四流
 光明正大 刮垢磨光 官災口舌 觀音菩薩 規古音菩薩 柳
 乘八景 官僚政治 瓜田之屨 遇失致死 共存共榮 公娼廢止
 空中樓閣 公設市場 公民道德 光明天地 公明正大 只知
 便所 —— 墓地 —— 生活 孤掌難鳴 高飛遠走 孤立無依
 孤獨單身 冠蓋表裏 區々泥々 救命因生 救病施食 口蜜腹劍
 甘生刺骨 老少不拘 富貴榮華 —— 功各 不歸之客 百尺竿頭
 遙在半天 物訖腐々 無窮無盡 無依無托 袖手傍觀 雪上加
 霜 始依이半 上근 벵근 數々丕々 世上万爭 青天霹靂 確固
 不動 하리가망 花無十日紅 豪言壯談 風靡世上 天井不知
 處之處外 无亨利貞 太上當君 立錫余地 延置困難 早置琴
 室 因數分解 一葉片舟 安全地帶 椽木求魚 因賭而息
 秋風落葉 代理行使 拉運系福 七條紫床 屹然獨立 黑白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page of aged paper. The notation consists of approximately 10 horizontal lines of rhythmic symbols, including vertical stems, horizontal lines, and various curved and angular shapes. Some symbols have small 'x' marks or dots above them.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several groups of Korean text corresponding to the musical notation above. The text inclu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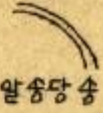
1. 10수불권
 2. 신거운동
 3. 명심보감
 4. 월가월부
 5. 만사불당
 6. 人山 人看
 7. 유공지미 유러결식
 8. 民國 樹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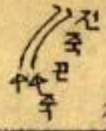
성심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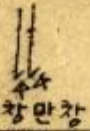
완전무결



알송당송



진국수주



진창만창



후락부락

※ 各 自 記 入 欄

第六章 逸波式特殊略字法(一)

第六章 逸波式特殊略字法(一)

特殊略字法이란 名詞를 除外한 各品類 全般中 待知
한 設詞에만 限하여 쓰게 되는 略字를 總稱 하는 말
이다.

第一節 數詞와 이에 伴하는 略字記法

記 法

A. 십數는 일 이 삼 사 를 1 2 3 4 5 6 7 8 9 를 그대로
쓰며 10 = 다 + 十字 100 = 다 + 百字 1000 =
천字를 15mm로 하여 字尾 빠침 10000 = 만字 및
口位置 加點 일백 = 다 + 100 일천 = 다 + 1000 을 쓴다.

但 "일"은 略字 "일"을 써도 無妨 甚.

B. 우리말 십數인 하나 둘 셋 또는 스물 쉰 아흔
열흔다섯 아흔둘 백여든넷 算々은 일 이 삼 사 數字
를 半分程度로 적게 쓰되 待知 "첫"은 基本記号 "한"은
略字 "한"을 쓴다. 但 數字的 暗号로서 하나 = 하
둘 = 두 略字 셋 = 세 略字 넷 = 네 略字 다섯 = 다 略字
여섯 = 여 略字 일곱 = 이 略字 + 七 여덟 = 여 + 八 아홉 =

- 아 亥字 + 十 열 = 열 亥字 백 = 백 亥字 스물 이상 아 昏 까
 지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 C. 教詞와 재 字는 卍位를 利用 한다, 但 "첫 재"의 첫은 基本記號를 쓴다.
- D. 教詞와 재를 卍位에다 "번" 字를 쓴다.
- E. 教字와 番 教詞 字尾에 繼續 해 卍 쓴다, 但 한 번은 한 亥字 + 十 번을 쓴다.
- F. 教詞와 番재 "속" 亥字 位置를 利用 한다. 但 "한 番재"는 한 亥字 + 卍 亥字를 쓴다.
- G. 教詞와 차 "차" 字를 쓴다.
- H. 教詞와 차례 "차" 字를 쓴다.
- I. 教詞와 番차례 "차" 字를 쓴다.
- J. 教詞와 種 1mm을 쓴다.
- K. 教詞와 年月日 年은 亥字 "년", 月은 亥字 "월", 日은 卍 終聲 "年", "해 동안", 은 年 亥字 中 向 又 달 = 달 亥字 그리고 年月日이 繼續 될 때에는 上下 位置를 利用 한다. (但 계속될 때에는 "年"은 쓰지 않는다.)
- L. 教詞와 週年 週日은 卍 卍 記號를 쓴다. 但 한 週年은 한 亥字 + 週日을 쓴다.
- M. 教字와 週年 L 卍 卍 記號를 쓴다.

N. 教訓와 周是..... | 各訓略字의 "기" 와 同이다.

O. 教訓와 時間..... 時 = 시字 分 = 분字 秒 = 초字 但 時分秒가 繼續 될 때에는 上下位置를 用 하여 略化 한다.

P. 教訓와 度量衡..... 屯 兩 斤 勾 石 斗 升 合 勺 兩은 모
도 基本記號로 쓴다. 但 兩屯重 두屯重 할 때는
"아라비아" 數字에다 分字로 交叉하며 Km = 千
字 + 米字 dm = 十 米 Cm = 十 米 mm = 十 米 兩
= 兩 立 = 立字 "파운드" = 磅의 字尾 刪침 a =
알字 ha = 畝字 他는 全部 基本記號로 쓴다.

Q. 聯 된 是 略 字 于先 年 所 已 有 者 初
旬 = 초字 + L 中旬 = 중字 + L 下旬 = 하 + L 月
初旬 = 月 + 字頭 L 交叉 月中旬 = 中 + L 交叉 月下旬 = 字
尾 L 交叉 그리고 各月마다 各日이 있는데 "正月보름"
하면 數語略法을 쓰고 午前 = 午字 午後 = 午 + 同行
1. 上午 = 上字 下午 = 下字 새로 = 새의 字尾 刪침
時半 = 2mm 半字로 中間 交叉 午正 = 午字 子正 =
子字 曜日 = 일字 + 7 記號로 中間 交叉 記念日
= 일字 + 0 週年記念日 = 年 + 0 + 0 記號 節 =
初字에다

尙及字로 中國交叉 결례 = 결及字中國交叉 해서 表記
 하며 곧으로 여러개 여러날 算々은 "개" 及字 = "여러,
 로 하여 해 날 날 차례 번 算々은 亦 中國 交叉 해서
 쓰다.

例 文

※ 下에 그 一部를 記述 加 보겠다.

(但 ㉠印은 例外 略字임)

(A例)

10 100 1000 10000 一百 一千 4万 4万

(B例)

4万 4万 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0 1000 10000 100000 100 1000 10000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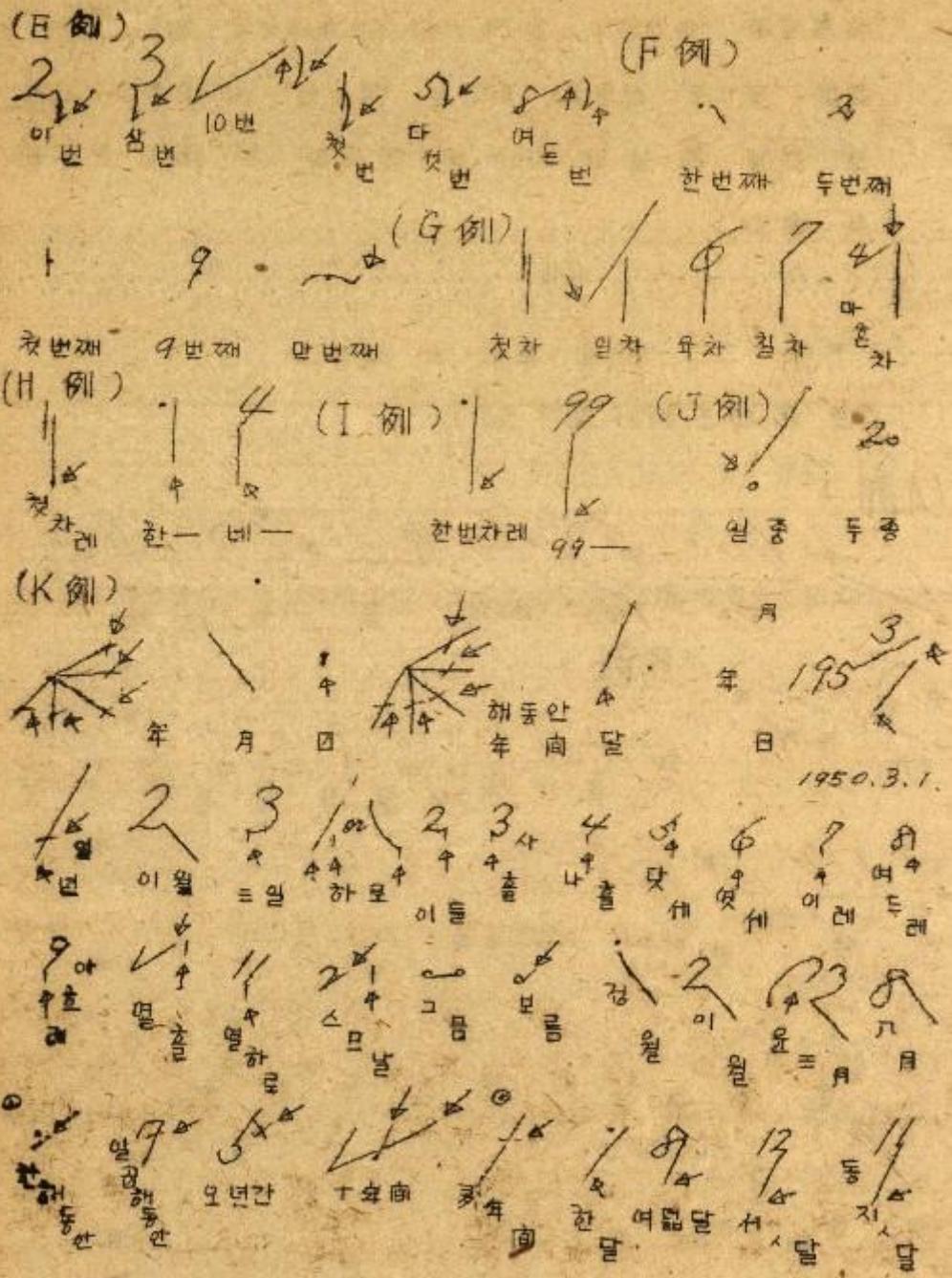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 10000 100000 1000000

(C例)

1 2 5

(D例)

1 2 3 4 5



~ 190 ~

(L 例) 陰五月十五日 하루가 열흘 끝소 한周日 두-3-4-9-

(M 例) (N 例) (O 例) 計週年 일-5- 一週息 10- 時 分 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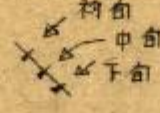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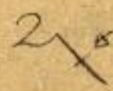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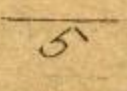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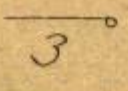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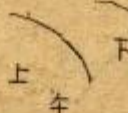

(P 例) 3시 5분 40초 8분 9초 한시간 3초 10관 2리 3민에 5斤 20초

3石 5斗 2升 8合 一斗 = 升 三合 四勺 6升 7合 8勺 m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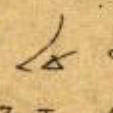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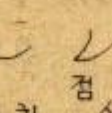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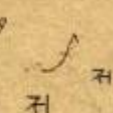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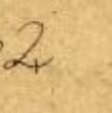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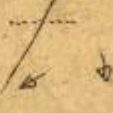

佛 三萬佛 6은스 面 尺 九寸 寸分 里 哩

町 步 三萬拜 한마지기 두두 락 대자세치 오尺 三寸 자가못 두자세치닷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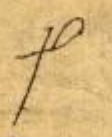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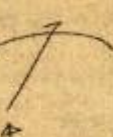




(Q 例) 正月 보름 三月 칠 四月 九日 五月端午 六月 昇斗 七月 七夕 八月 보름
 八月 初夕 八月 初旬 九月 初旬 正月 초하루 正月 元旦 初旬 中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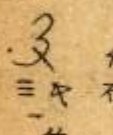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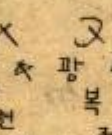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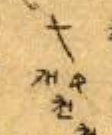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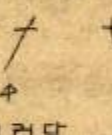





二月中旬 午前5時 午後3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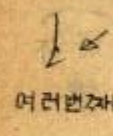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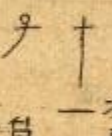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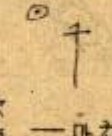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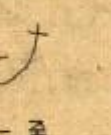


正 子正 아침 점심 저녁 例로 두時半 曜日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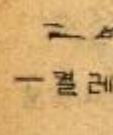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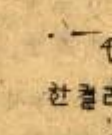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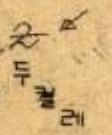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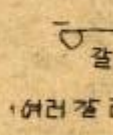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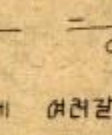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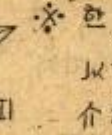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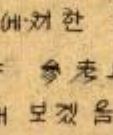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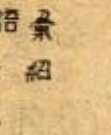


月 — 火 — 水 — 木 — 金 — 土 — 記念日 念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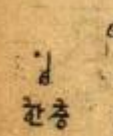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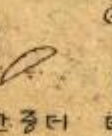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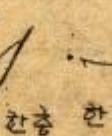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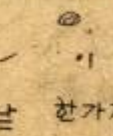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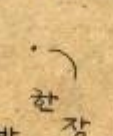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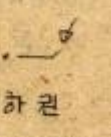


三 前 三 前 추수감사절 여러달 해 날 시간 번

여러번재 차례 주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글레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 192 ~

活用例 보면 다음과 같다。

II (體)	반	반다	반게	반지	반드라	반습니다	ㄹ
	와	와라	와요	와서	와요	ㄹ	
	우	우나	우나	우며	ㄹ		
	운	운것	운것을	운지	ㄹ		
	울	울것	울것어다	울지	울는지	ㄹ	
	움	움을	ㄹ				
	웁	웁니다	웁소	웁것다	ㄹ		

記 法

即 此 略記法에 있어서는 語源에 있어 初音節만 쓰
고 (發字는 變文은 誤記이 없게) 活用例를 簡易化 한
것인데 그 語源의 中聲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區分된다.

A. ㅏ 워	15mm	외 字	例 語	고 마 워
B. ㅑ 워	15mm	회 字	"	아 름 다 워
C. ㅓ 워	15mm	리 字	"	싱 거 워
D. ㅕ 워	15mm	피 字	"	고 워
E. ㅗ 워	15mm	시 字	"	함 스 러 워, 미 끄 러 워
F. ㅛ 워	15mm	외 字	"	머 워, 아 시 워
G. ㅜ 워	15mm	외 字	"	매 워, 드 새 워

~ 194 ~

- H. 기쉬워 15mm ㅈㅅ 例證 가 기쉬워
 I. 적어리다 15mm ㅈㅅ " ㅈㅅ적어리다
 J. 적거리다 "기쉬워" 中位로 ㅈㅅ " ㅈㅅ적거리다
 K. 다랄다 20mm ㄷㅅ " ㄷㅅ다랄다
 L. 워 죽겠다 흔히 形容詞에 右綴 되는 語中에 우리
 民族의 常用語로 죽겠다는 말을 쓰는데 이 變遷에는
 中位로 ㅈㅅ 또는 同位語를 使用 하여 ㅈㅅ—죽겠다
 죽겠다 ㄷㅅ終聲—죽겠음 — ㄷㅅ終聲 — 죽겠
 음으로 略字化 한다.

例 文

※ 以下 그 一部만 記載하는데 特別히 上記
 活用に 依據 하여、

- A. ㅅ尾 無ㅅㅅ침 ㅅ ㅅ다
 B. ㅅ尾 ㅅㅅ침 ㅅㅅ ㅅㅅ것
 C. ㅅ尾에 ㄷ ㅅㅅ ㅅㅅ것
 D. ㅅ尾에 ㅅㅅ ㅅㅅ
 E. ㅅ尾에 ㅅㅅ ㅅㅅ ㅅㅅ다
 F. ㅅㅅ + L + ㅅㅅ 'ㅅㅅ다는, 'ㅅㅅ다는것, 으로 쓴다.

(D) 宇尾스름 宇尾배침 宇尾+ㄹ 宇尾+ㅅㅅ 宇尾
 ㅍ ㅍ다 ㅍ워 ㅍ우 ㅍ운 ㅍ운것 ㅍ울 ㅍ울것 ㅍ음 ㅍ게

次 따라서 此 例에 準 하여

宇尾+년 宇尾+ㅂ 下記와 같이 各行字가 쓰여 진다.

ㅍ다는 ㅍ다는것 ㅍ음 ㅍ음다

(A) ㅍ (-다) ㅍ(워, 우) ㅍ(운, 운것) ㅍ(울, 울것) ㅍ음 ㅍ게 ㅍ다(는, 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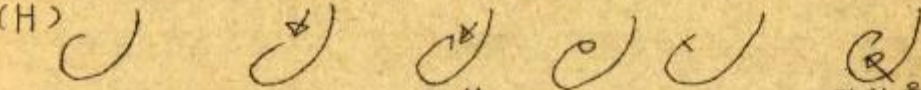
(B) ㅍ음 (-다) ㅍ(바, 바다, 워우) ㅍ(운, 운것) ㅍ(울, 울것) ㅍ게 ㅍ다(는, 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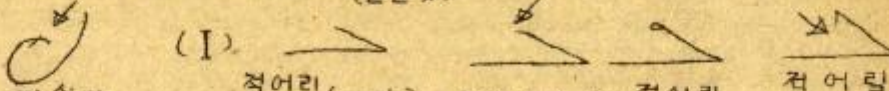
(C) ㅍ음(-다) ㅍ(바, 바다, 워우) ㅍ(운, 운것) ㅍ(울, 울것) ㅍ음 ㅍ다(는, 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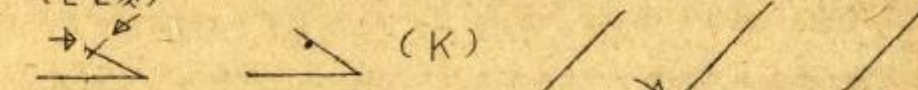
(E) ㅍ게 ㅍ음(-다) ㅍ(바, 바다, 워우) ㅍ(운, 운것) ㅍ(울, 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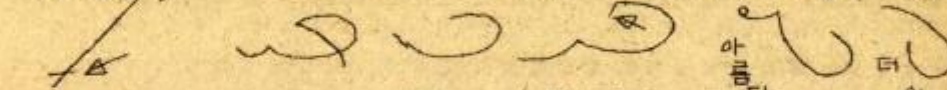
(F) ㅍ(운, 운것) ㅍ(울, 울것) ㅍ음 ㅍ(-다) ㅍ(바, 바다, 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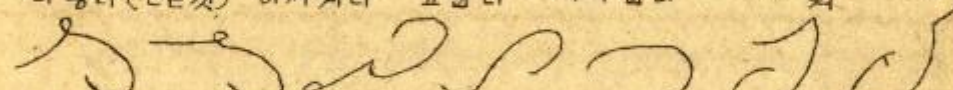
(G) ㅍ(바, 바다, 워우) ㅍ(운, 운것) ㅍ(울, 울것) ㅍ음 ㅍ게 ㅍ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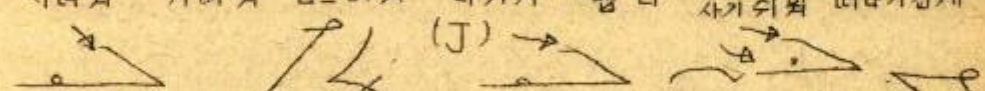
(H)  기쉬 (바다 위우) 기쉬 (운운것) 기쉬 (올올것) 기쉬음 기쉽게 기쉬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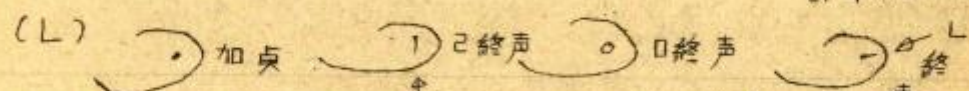
(I)  기쉽다 (느는것) 적어리 (-다) 적어린 (-다) 적어림 적어림 (-것)


(K)  적어린다 (느는것) 적어리게 다랑 (-다) 다란 (-것) 다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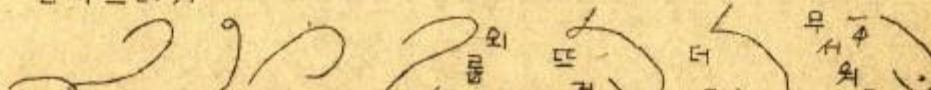
 다랑다 (느는것) 아가워라 표말다 사나웁다 아름다워 더워

 시려워 키여워 험스러워 마쉬워 멍다 사기쉬워 떠나기쉽게

(J)  큼적어린다 크다랑게 자랐다 큼적거린다 만적거린다 흙적거리기예

(L)  ㄷ 위죽겠 (-다) ㄷ 위죽겠음 (-것) ㄷ 위죽겠음 ㄷ 위죽겠다 (느는것)

(全体例)  간사스러워 간지러워 사랑스러워 체로워 괴로워죽겠다

 미끄러워 밤새워 뭉겨워 더러워 무서워죽겠다

~ 1977 ~

(D) 宇尾스름 宇尾배침 宇尾+리 宇尾+사미 宇尾+네
 곱다 곱히 곱우 곱은 곱은것 곱을 곱을것 곱음 곱게

※ 따라서 此 例에 準 하여

宇尾+년 宇尾+비

下記와 같이 各行字가 쓰

여 진다.

곱다는 곱다는것 곱음 곱음다

(A) ㅅ (-다) ㅅ(뉘우) ㅅ(운운것) ㅅ(을을것) ㅅ음 ㅅ게 ㅅ다(는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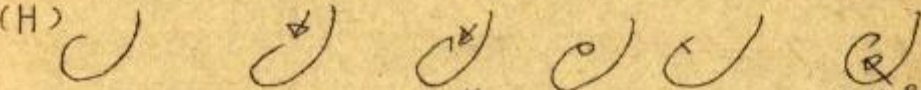
(B) ㅅ음 (-다) ㅅ(뉘우) ㅅ(운운것) ㅅ(을을것) ㅅ음 ㅅ게 ㅅ다(는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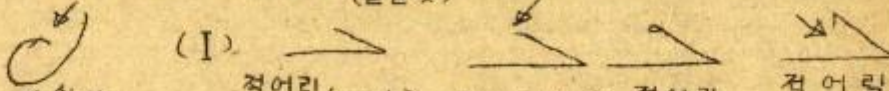
(C) ㅅ음(-다) ㅅ(뉘우) ㅅ(운운것) ㅅ(을을것) ㅅ음 ㅅ다(는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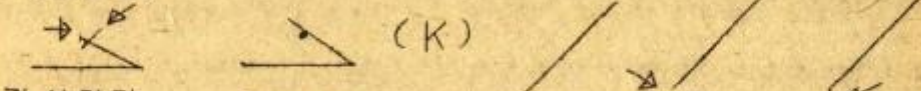
(E) ㅅ게 ㅅ음(-다) ㅅ(뉘우) ㅅ(운운것) ㅅ(을을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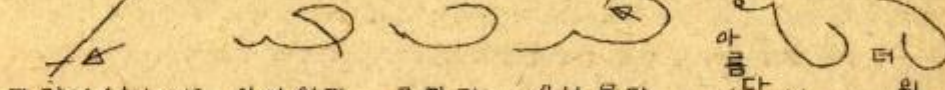
(F) ㅅ(을을것) ㅅ(을을것) ㅅ음 ㅅ(-다) ㅅ음게 ㅅ음다(는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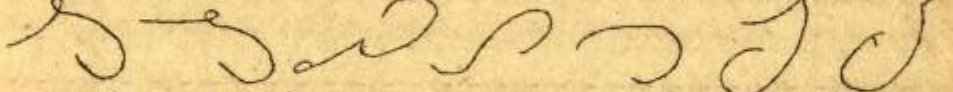
(G) ㅅ(뉘우) ㅅ(운운것) ㅅ(을을것) ㅅ음 ㅅ게 ㅅ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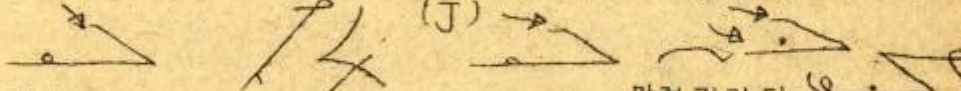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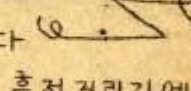
(H)  기쉬 (비바다 위우) 기쉬 (운운것) 기쉬 (올올것) 기쉬움 기쉽게 기쉬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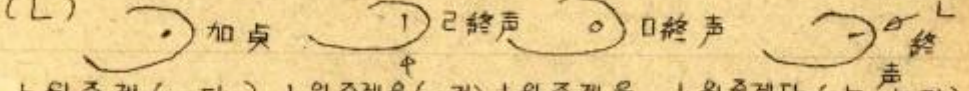
(I)  기쉬다 (느느것) 적어리 (-다) 적어린 (-다) 적어림 적어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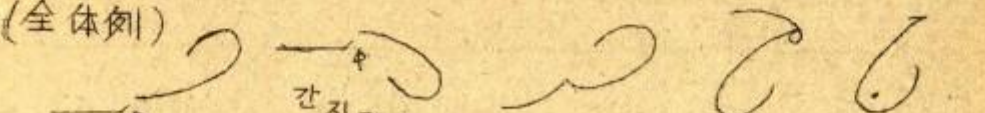
(K)  적어린다 (느느것) 적어리게 다람 (-다) 다람 (-것) 다람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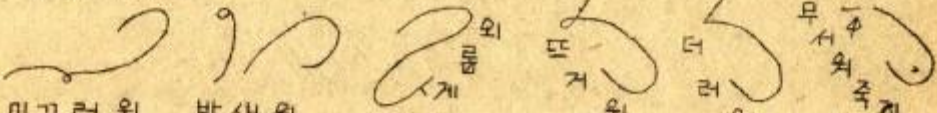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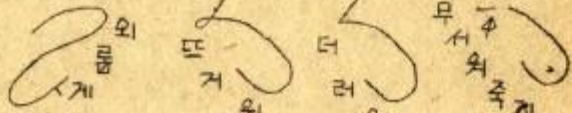
 다람다 (느느것) 아까워라 꼬말다 사나롭다 아름다워 더워

 시려워 키여워 함스러워 마쉬워 맵다 사기쉬워 떠나기쉽게

(J)  큼적어린다 크다랗게 자랐다 큼적거린다 만적거린다  흙적거리기에

(L)  加 貞 1 2 終 声 0 終 声 終 声
 卜 위 죽겠 (-다) 卜 위 죽겠음 (-것) 卜 위 죽겠음 卜 위 죽겠다 (느느것)

(全体例)  간사스러워 간지러워 사랑스러워 체르워 피로워죽겠다

 미끄러워 밤새워  뭉겨워 단겨워 더러워 무서워죽겠다.
 ~ 197 ~

第七章 逸波式吐記法(一)

第七章 逸波式吐記法(一)

第一節 吐記号의 性格

우리 말에 있어 吐의 役割이 言語를 左右함은 卽論이다. 實上 吐 그 自身은 獨立 하지 못 하고는 各 詞에 附屬 되어서 그 性格이 維持 되는 方面으로 因해서 吐에 該當 시킬 記号는 記号中 第一 簡便한 것이며 詞의 記筆 速度를 吐에 있어서 더욱 能率的으로 이끌 수 있게 構成 되어야 비로소 吐 自身の 速記와 더불어 言語 全體의 速記録에 一定한 均衡을 주게 되는 것이다.

換言 하면 吐가 附屬語의 本本이 되느니만큼 速記号에 있어서도 吐記号란 各 詞의 速度性에 附屬 시키어 그 調節을 할 수 있게 피 하여야 理上에서도 妥當한 바 그런 目的을 지닌 것이 以下의 吐의 記法이요 그만큼 記号의 簡略性 維持가 또한 吐記号의 生命인 것이다.

그러므로 吐記号는 그 全部가 一種의 特殊한 略字體를 構成 하고 있고 記筆 速度의 上昇이 이에서 保障되는 것을 알아 낱말보다 한층 더 無意識的 記筆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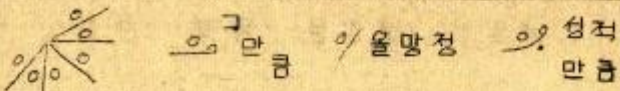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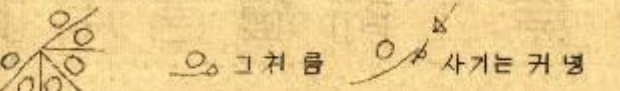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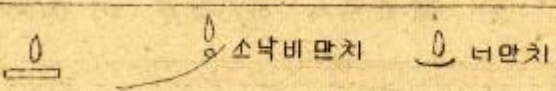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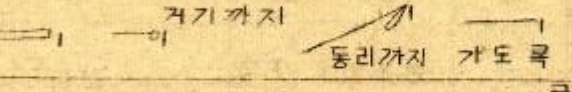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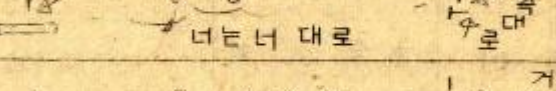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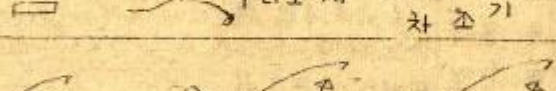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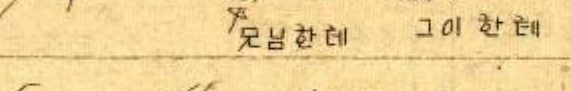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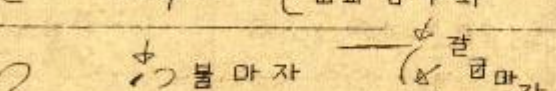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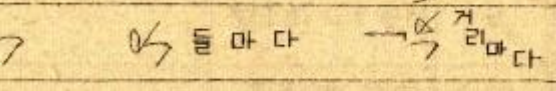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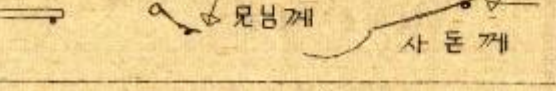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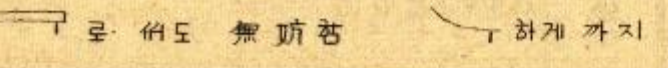
에 까지, 가도록 線唐 해야 됨은 勿論 이다.

※ 文章速記에 있어 ㅁ에서 말이 떨어 지듯이 ㅁ에다 낱말을 붙임은 兪禁 한다.

第二節 體言用吐一覽圖

※ 略記字가 아닌것은 此 例圖에서 大概 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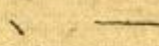



















ㅁ	記 法	例	文
가	基本文字 "가" 字	2 감 기 다	보 초 가 쇼 내 기 가
이	變字 "이" 字	고 향 이	尼 卍 이
을, 을 것 를, 른 것	AE AF AG 線 에는 "어" 字, AB AC 線에는 "어" 字를 쓴	山 을 넘 다	身 軀 를
은, 은 것 는, 는 것	년 變字 와 同	元 來 는	江 山 은 오는 것 을
로, 으로	대 字 와 同	걸 거 리 로	門 前 으 로 江 으 로
도	태 字 + 2 種 태 字	파 수 도 가 구 도	待 生 도 물 도
에, 외	초로 에 變字 補助로 편 字	가 경 에	규 측 에 결 구 에
만	시 變字 位置 와 同	나 만	거 기 만 고 만
부 러	문 字 와 同	더 부 러	첫 짜 부 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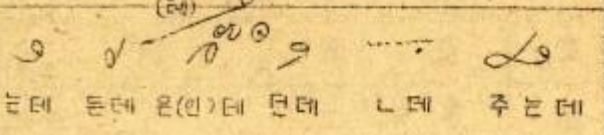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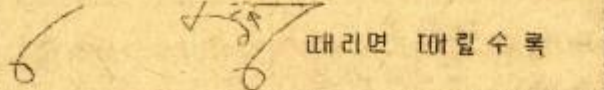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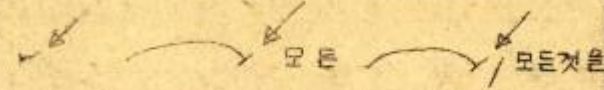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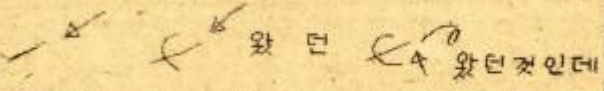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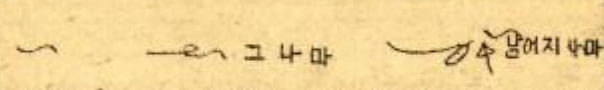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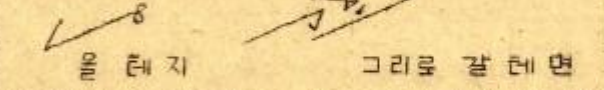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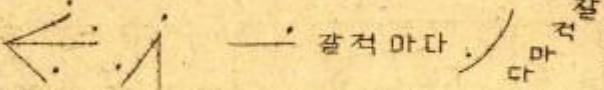
보 다	요 자 와 同	
만 큼 2양정	만 位 置 에 口	
처럼 커 념	만 큼 의 大	
만 치	시 位 置 + 2mm 방 夾 字	
까 지 도 록	同 行 T 記 号 를 獨 크 해 서 合	
대 로	시 位 置 + 2 終 声	
조 차	시 位 置 + 까 지 位	
한 데	음 자 를 合	
와 과	夾 字 "와" 字	
마 자	머 저 의 半 分	
마 다	머 더 의 半 分	
계	기 位 置	
* 계 + 까 지 는		

인 인 것	字尾 凸 斜下 3mm 位置	
※ 各 白 記 入 欄		

第三節 名詞格吐一覽圖

此	記 法	例	文
때 문 때문에	2.5mm 간격 字 尾에 걸쳐 씌		
까 닭 까닭에	처 字 를 字 尾 에 中 向 걸 친		
馬	2.5mm 外 를 字 尾에 걸쳐 씌		
것	처 字		
뿐	處 字 分		
수	수 字		

此	記 法	例	文
고	긱 字 고	 가 (行) 고  사 (興) 고	
◎ 고 저 (하 고 저)	퍼 II, 를 2.5mm로	6  모 고 저  절 어 가 고 저	
◎ 그 듯	긱 字	 그림 듯  말 듯	
서	러 字	 거 기 서  와 서	
◎ 머	만 마 와 回	 하 시 머  오 머	
◎ 면 만 은	머 마 + L	 집 을 지 면  거 기 만 은	
◎ 그 지	디 字	 그림 을 그 린 지  님 을 지	
◎ 그 진 대	딘 字	 그 린 진 대  왔 을 진 대	
◎ 그 지 언 정	딘 字 + 中 向 入 桌	 살 지 언 정  할 지 언 정	
◎ 그 줄	줄 疾 字	 그림 줄  가 실 줄	

㉠ ㄴ 데	ㄴ ㄹ 字 同 書	 <p>(ㄴ) ㄴ데 ㄴ데 온(인)데 ㄴ데 ㄴ데 주는데</p>
㉡ 수 록 ㄹ 수 록	ㄹ 字 의 ㄴ 尾 出	 <p>때리면 때릴 수 록</p>
㉢ 든 든 것	ㄹ 字 ㄴ 同	 <p>모든 모든 것은</p>
㉣ ㄴ 든 것	ㄴ 字	 <p>왔던 왔던 것인데</p>
㉤ 나 마	ㄴ 이 의 ㄴ ㄹ ㄴ	 <p>그러나 남겨지나</p>
㉥ ㄴ 데	ㄴ 字	 <p>올 테 지 그리로 갈 테 면</p>
㉦ ㄴ 적 마 다	ㄴ 字 尾 ㄴ 上 ㄴ 字 位 置 加 ㄴ	 <p>갈 적 마 다 다</p>
※ 各 函 記 入 補		

註 古語에는 “이” 字로서 “이” 字로 “을” “를” 의
 此를 兼記한것이 例證이었다 따라서 와 파 은 는 과
 同様 우리 말에 있어서 終聲 有無에 따라 此音
 이 確然히 分畧 되는 理를 보아서 適當 速
 記 符에 亦도 同一 字로 쓰게 된것인데 特히 “이”
 와 “가” 字에서 () — 로 한것은 單純히
 記筆上 同一 級數의 單線인데다가 必히 “가” 音
 字記號는 그處 相當히 익숙 해졌을것은 考慮해
 ㅅ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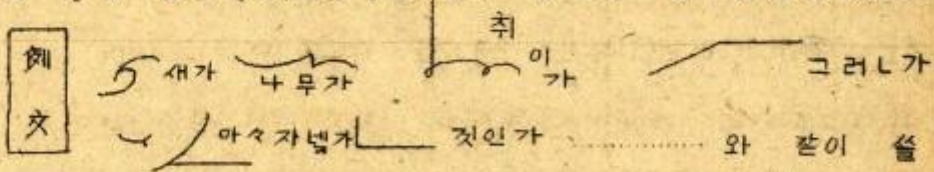
그런만큼 特히 ,

() = “이” 字 (例) 사람이 나무가

— = “가” 字 (例) 그런가 (그러한가의 縮語)

언젠가 (언제인가의 縮語) ,

로 (을, 를) (와, 파) (은, 는) 式으로 同一 記法을 使用해서,

例 文 

수가 있음을 附言 하는 바이나 이는 各自의 便宜에
 마꺼졌다 . 但 “것이” 할때는 字体가 빨라지
 면 “것을” 로 誤認 하기가 쉬우니 (同行 1 略
 應用) 字를 쓸것 .

第五節 復用吐路記法

復用吐라고 함은 前記 基本的인 個音吐 끼리
서로 兼用 하여 用言으로서의 吐를 이론 우리
말 現象을 말 하는 것인데 此 復用으로
因해서 實로 우리 말의 吐는 “에 게 서
까 지 라 도,,”의 形式들 이루어 複雜化
되어 있음을 볼 때 此 記法의 重要性이
또한 覺知 될 것이다.

따라서 以下 但用 復用吐를 끝라서 簡
記體를 構成 하고 서로 서로의 科學的 記
字體系를 維持 할수 있게 作成 해 놓았
으니 吐의 復用實體를 把握 하여 一吐
의 疎忽도 없기를 바란다.

“註” 復用吐라는 말은 語學上 用語는 아니며
速記上에서는 一見 同意語의 空然한 羅列 같
아서 煩雜之感이 不少이나 우리말이 拮据하는 多
感多情한 語態의 自在發揮的 妙味語로서 咀嚼
吟味할 實體語 임을 再認하라.

은	同 - 기 음	고든, 서든, 모든, 에든, 에든
도	도, ㅌ字의 右쪽만 음	고도, 서도, 은도, 에든
로	로, ㅌ字의 左쪽만 음	것으로, 에게루
시	小円으로 表未함	
에	에 + 小円	에서든, 에서든, 에서만은
에	에, 시, 의 小円이 楕円임	에든, 에든, 에든, 에든
로	대, 字	대, 는, 도, 만이
한	에, 字	한테서 부러, 는
면	맥, 字	나면서, 자라면서, 그렇게(하)면서
고	2.5mm 패, 字	고, 는, 고, 고서도
와	15mm 누, 字	와갈(-다) ※ 갈과同 變化는 下와 같다
와	와 + 누 字	와도갈(-다) 이, 음, 은것, 은
근	올, ㅌ字의 半分 + ㅌ字 식 ㅌ	가기가 없는 지라도

① 기로	권 奘 亨	→	↪	↪ 쓰리기로 ↪ 오기로
② 기로서니	길 奘 亨 中 向 气 奘	→	↪	↪ 그렇기로 서니 ↪ 오기로서니
③ 든 지	두 亨	↙	↘	↘ 나 든 지 ↘ 이가 들 지 지 든 지
④ 던 지	두 亨	↙	↘	↘ 누구 던 지 ↘ 알 던 지
⑤ 든 지 은 지	지 十 口	↘	↘	↘ 쓰는 지 ↘ 마는 지
⑥ 든 지	디 十 口	↘	↘	↘ 잘는 지 ↘ 올는 지
⑦ 드니	드 디	↘	↘	↘ 사 드니 ↘ 드디 드니
⑧ 더니	더 다	↘	↘	↘ 나무를 ↘ 삼 더니
⑨ 는 것은	는 亨	↘	↘	↘ 잘르 는 것은 ↘ 르기 은 것은
⑩ 고 로	것으로 十 속 位 置	↘	↘	↘ 그런 고로 ↘ 숨 고로
⑪ 는 고로	고로의 倍	↘	↘	↘ 마는 고로 ↘ 車에 삼은 고로
만의 使用 例				

드라도	라도 + 口			
치드라도	러도 + 口			

것의
復
用
例

것은 것도 것으로 — 는 — 도 — 만 — 만은 — 까지 — 기

기는 — 기만 것만 이 — 만큼 것처럼

* 以上 時에 있어 口 是은
 것 下에 서는 이 事 이
 變 論에 들어 가며 獨
 立 句 法에 屬 句 法
 用 法에 屬 句 法
 用 法에 屬 句 法

것이라도 것이나 것이지만 것이므로 것이기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것이므로

例 外 略 字

그러므로 + 口 예 + 口 예 + 口 지 만 지 만 은 不 抽 口

는 데 도 不 抽 口 는 데 不 抽 口 예 도 — 여 러 가 지

ㅁ에 뒤 오는 낱말을 **ㅁ**히
 混文体式으로 피어써라.

古諺文에서는 混漢文을 한글충字化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한글字的 ㅁ가 挿入 되는 格式의 記體이였기에 混文体와 같이 피어써 도박 도박 피어써 쓰자 않아도 無妨했지만 純 우리말과 ㅁ를 이러한 式으로 쓴다면 낱말의 終音과 ㅁ가 混同이 되어서 자칫 하면 全然 뜻 하지 않던 誤會를 가져 오게 하여 흔히 애들 말에 아버지 가방에 든다는 ㅁ이 됨은 周知의 일이다.

그와 同樣 混記文에서도 ㅁ와 다른 畧詞은 ㅁ히 피어써 써야 誤譯이 없음을 勿論이며 이로 인하여 ㅁ의 記號가 兼用記號 일지라도 混文上 支障이 없음을 知覺 할것이다.

다시 피어써 쓴다 해서 5mm 10mm 나 間隔을 두라는것이 아니라 ㅁ 序尾에 直線 해서 쓰지 말라는 뜻이며 또 混記文体는 늘 記號가 上이나 下로만 뻗음을 防止 하여 ㅁ의 右綴語를 中間位置로 이끌어서 쓰도록 하며 畧詞에 더 많은 記號를 다닥 다닥 써 넣도록 各 畧 序尾整理 를 하기 바란다.

第八章 逸波式特殊略字法(二)

第八章 逸波式特殊略字法(二)

第一節 動詞“하다”“되다”記法

우리의 用語에 있어 “하다” “되다” 는 行動的인 面을 떠나서 오직 이의 性格을 가진 語로서 全面的인 記法은 合遂 合該고 此節에서는 基本面만 보겠다.

A. “하다”…… 字尾 直線을 “하” 位置로 하여 加點 한다.

但 權助로 20mm 點字 (다람다와同)을 두어 속字 字 4度 字尾 位置에 使用 한다 또한 하다는 이다와 같이 쓰는데 이는 하 = 이 의 뜻에서가 아니고 純 全히 遺文上 誤記이 없음을 示 이니 此 點을 잊지 말기 바란다.

B. 되다…… AD AE AF 線은 字尾 右斜上 3mm

位置를 AB AC 線은 字頭 右斜上 3mm 位置를

“되” 位置로 하여 亦 加點 한다 ※ 하다 + 7 = 되다

C. 한다 되다…… “한다” 는 字尾 右斜下 3mm 位置

即 卽 “인” 과 “이” 而 “된다” 는 되 位置에 L을 쓴다.

D. 함 됨…… 各位置에 1mm 小四을 한다.

E. 하 다 = 이 다 . 함 = 임 한 = 인 으로 兼用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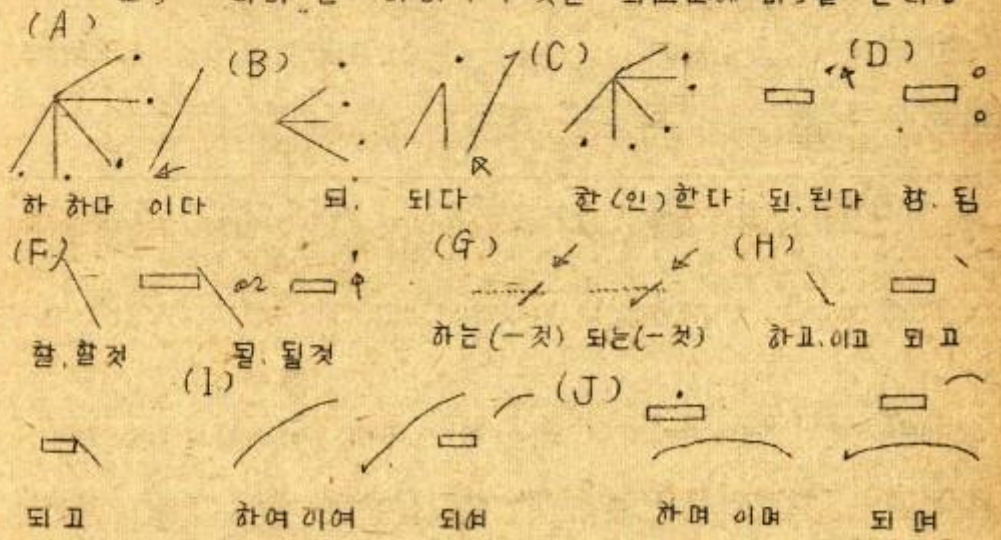
F. 할 (一것) 될 (一것)..... 할은 할 及 字 를 쓰며 될은
할 + ㅍ 又は ㅍ 位置 에 ㅍ 를 써도 들림은 아니다 .

G. 하는 (一것) 되는 (一것)..... "하는은 ㅁ" 는 "의 記號
를 5mm 로 하며 "되는은 하는 + ㅍ 으로 쓴다 .

H. 하고 되고 "하고는 예守 "되고는 하고 + ㅍ
又は ㅍ 位置 에 ㅍ 字 를 쓴다 .
但 하고 = 이고 가 된다 .

I. 하여 되여 "하여 (이여)는 20mm 오 字 "되여,
는 하여 + ㅍ 又は "되" 位置 에 ㅍ 字 를 쓴다 .

J. 하며 되며 "하며는 ㅁ의 ㅁ" 又は 20mm
오 字 "되며는 하여 + ㅍ 又は ㅍ 位置 에 ㅍ 字 를 쓴다 .



(全體例)

규정하다 인정하다 만족하다 다 이 것 다 이 것 계속되다 인정되다
 상 기 하 다 정치를 한다 기 원 한故로 밀수품인때문에 제정한다 고 한다.
 스 임 규 명 함 사 람 됨 을 상 속 함 으 로 을 *한(-다)므로 또
 오 게 함 것 이 다 모 게 될 것 을 내가 하는것을 되 는 것 을 오 게 하는 것은
 생각하(이)고 (—이여) 고생되여 하 령 게 그렇게 되며 초과되여

第二節 存在詞 "있" 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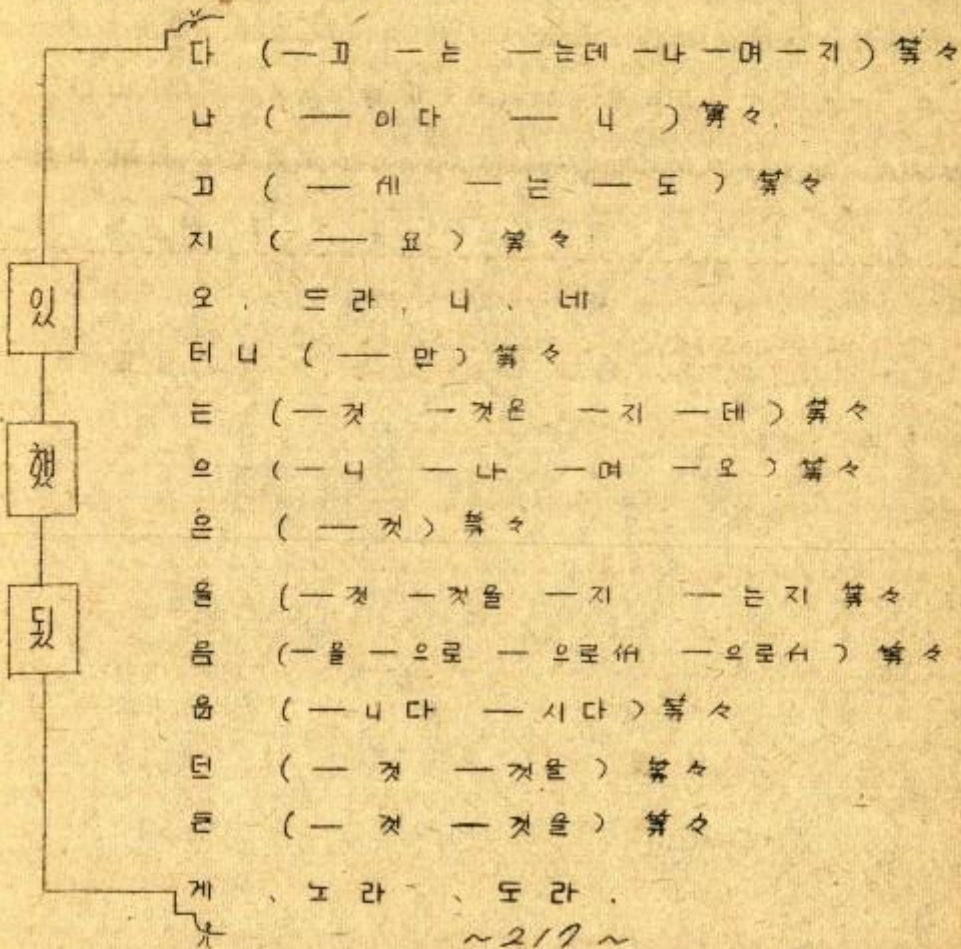
動詞 "했" 및 總記法 及 應用

記 法

前項에서 하다 = 이다로 쓴 예와 비듯이 存在詞
 "있다" 와 動詞 "했" 은 同一한 記호로 붙 쓰게 되어

있으며 "있다"는 그 위치만이 相違 될 變 記号上 에
서는 亦 同- 하다.

※ "있다" 卽 "있다" 가 相互 同意語 이면 兼用이 不能
이나 純全히 選文上 又は 記号 構成上 用語의
- 類度上 兩者 兼用이 利함이 多으니 此后도 此處에
留意 하라. 그러면 于先 "있", "했", "되" 의 活用
體 부터 보아 보겠다.



E. 있겠으 있겠음 있겠을것 (欄도同)..... 고字十7
을 한다.

F. 있겠음 했겠음..... 고字를 欄內으로 한다.

G. 있(했)은(것)..... 口位置에 一을 쓴다.

H. 있(했)은(것)..... 口位置에 吐(吐)字를 쓴다.

大略 上記 "있다" "있겠다" 記法이 ㅅ다 記法 첫째 本
本이 되는것으로서 다음의 此記法을 고머로 字尾 直下
位置로 옮기여 쓰면 있었 했었 記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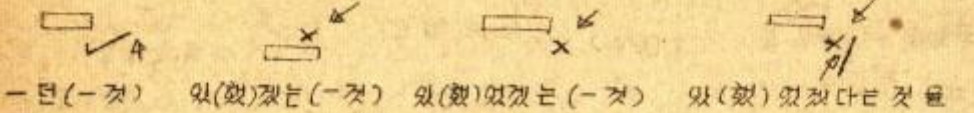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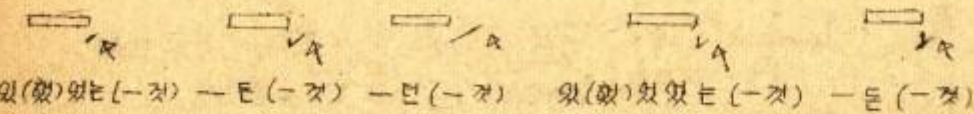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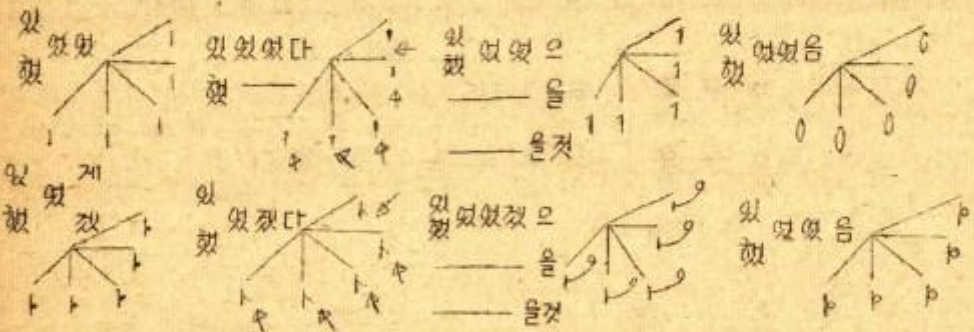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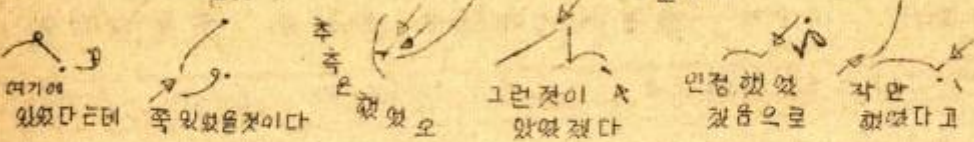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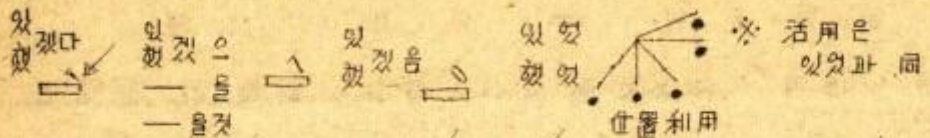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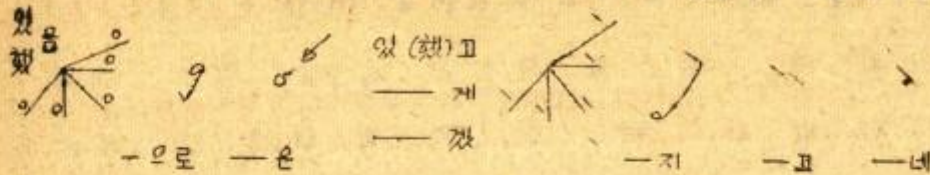
即 字尾 直下 位置가 ㅅ 있 和 矣 하면 ㅅ었다 고字
를 쓰면 ㅅ게 ㅅ겠 ㅅ고 스字를 쓰면 ㅅ으 ㅅ을 ㅅ
을것 ㅅ< 記法가 同이란 말이다.

다음에 "있(했)있었" 과 "있었었" 은 2.5mm 처字를 가
지고 省略 字尾直下位置와 口位置에 쓰면 되는데 이는、

- A. 2.5 mm 처字 = ㅅ있었
- B. 字尾 ㅅ침 = ㅅ있었다
- C. 十 7 = ㅅ있었은 ㅅ있었을 ㅅ있었을것
- D. 欄 內 = ㅅ있었음
- E. 口 位置 = ㅅ있었것 一 게
- F. 口 十 〇 = ㅅ있었겠다
- G. 口 十 스字 = ㅅ있었것은 一 을 一 을것



있(있)물것어다 —으니 —으면은 —으면서 —을는지 —을지나라도



※ 處에 대한 ㄹ ㄹ 다 記法

했 ㄹ
했 ㄹ
하 다
이 다

했 ㄹ
다

인정했 ㄹ
인정했 ㄹ
인정했 ㄹ
인정했 ㄹ

(應用)

있 = ㄹ

있 ㄹ = ㄹ ㄹ

있 ㄹ = ㄹ ㄹ

있 ㄹ ㄹ = ㄹ ㄹ ㄹ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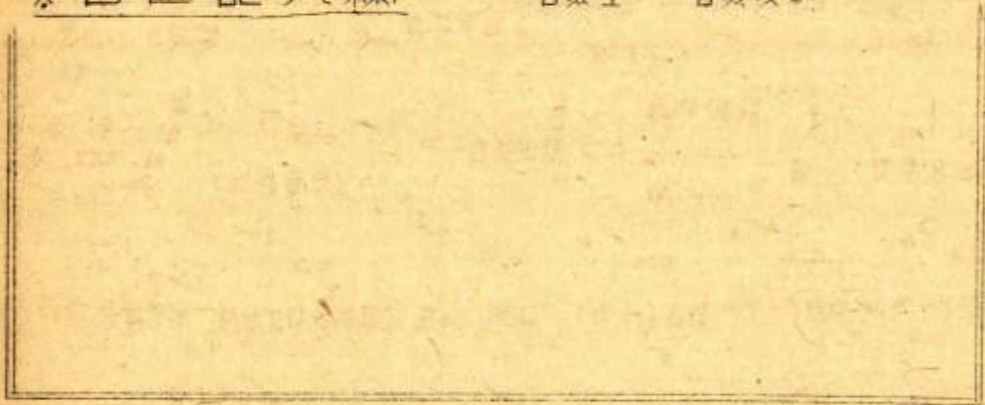
있 ㄹ ㄹ = ㄹ ㄹ ㄹ

있 ㄹ ㄹ ㄹ = ㄹ ㄹ ㄹ ㄹ 다

감 ㄹ
있 ㄹ
심 ㄹ ㄹ 다
심 ㄹ ㄹ 다
심 ㄹ ㄹ

※ 各 ㄹ 記 法 欄

남 ㄹ 오 남 ㄹ ㄹ 네



第三節 動詞 "하 ㄹ" "되 ㄹ" 의 總 記 法

"하 ㄹ" "되 ㄹ" 은 앞 一節에서 20mm "오" 字 이 란 記 하 ㄹ 다.

處 이 나 "하 ㄹ" 나 "되 ㄹ" 나 우리 말에서 는 "하" "되" 로 變

음 됨이 주이고 文上에서나 "하여" "되여" 를 쓰는게 變
便習이여서 구대여 同一語를 區分할 必要가 없음이 原
則이나 實上 語法이 "해" "되" 로 統一 使用이 되지 못
하고 混同 하는 이가 許容 하여 여기에 不得已 此 記
法을 두게 된것이다.

그런만큼 諸君은 速記上에 있어서 卽 "하여" 와 "해" 를
區分 해 달라는 懇請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尹格히
區分 하되 非然이면 "해" 면 "해" "하여" 면 "하여" 로 統
一 시킴이 可 할것이다.

記 法

- A. "해" 는 "있" 과 同記 하며 "하여" 는 또한 "하여"
에서 말이 끝났을 때 했다와 同 加點으로 表
示 해도 變文上 잘못이 없게 되는데 보다 더、
B. □ 位置에다가 "되다" 記法을 그대로 옮겨서 쓰면
그것이 "하여" 記法이 되며、
C. 하였다 記法은 此 記法을 다시금 쓰여 位置를
옮겨서 쓰면 足 하다、

다음에 되여는 記號上에서는 되어로 쓰히지만 言語
上에서는 되여로 統一 되여 有는나만큼 "되여" 로 쓰기로 望되、

- A. 되여, 되엿 되 位 置 에 어 字
- B. 되 엿 다 " " 언 字
- C. 되 엿 으 算 " " 엿 字
- D. 되 엿 음 " " 엿 字
- E. 되 엿 겻 " " 어 + 기
- F. 되 엿 겻 다 " " 어 + 기 + 0
- G. 되 엿 겻 으 算 " " 어 + 기 + 스
- H. 되 엿 겻 음 " " 어 + 기 + 人 田
- J. 되 엿 엿 되여 + 从 엿 (엿 엿) 記 法
- 으로 쓰면 된다.

다시 "하여"에 있어서 20mm 오수를 재용할 境遇에는.

- A. 20mm 오수 = 하여, 하엿
- B. 20mm 은수 = 하엿다
- C. 20mm 은수 + 7 = 하엿으 算
- D. 20mm 예수 = 하엿음

으로 쓰면 되며 다시,

- ① 하엿엿 = 하여 + 从 엿 記 法
- ② 하엿겻 = 하여 + 从 겻 記 法

으로 쓰여짐은 勿論이다 또한 20mm 오수 + 7으로
되여로 쓰는 境遇에는 하엿으 算이 7終兩을 加한 記号

임으로 되었으셈은 7을 反初로 하여서 区别 하면 좋다.

例 文

(하) 그리개시 인정개시 — 02 있따와同 그리하여 인정하여

(하였) (이였) 하였 (으.을.을.것) 하였 음
 이였 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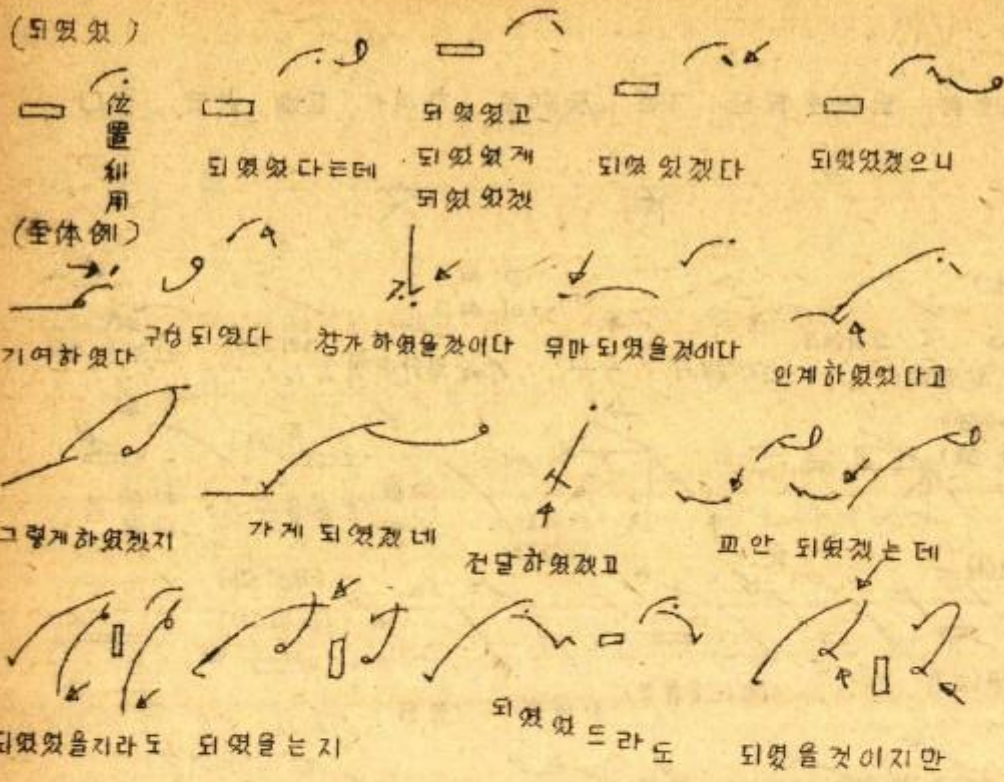
(되) 되여(-였) 되였다 되였(으.을.을.것) 하였음 되었음
 (하였겠) (이였겠) — 다

하(이)였겠 — 다 — (으.을.을.것) — 음
 (되였겠) — 다

되였겠(으.을.을.것) 되였겠 음
 (하였겠) (이) — (하였었다) (하였었다)
 (이) — (하) 위치

하였(으.을.을.것) 하였음 (하였겠)
 이 이

하이었겠다 하였(으.을.을.것) 하였겠음
 이 이



第四節 推測詞“것”總記法

記法

이미 ㅅ것記法에서 認知한바와 같이 ㅅ = ㅅ = ㅅ의 連를 그대로 使用한다.

- A. ㅅ = ㅅ 位置 ㅅ다 = ㅅ + ㅅ ㅅ으等 = ㅅ + ㅅ字
- ㅅ음 = ㅅ + ㅅ用

B. 하ㅅ (하ㅅ) 20mm 호字를 쓰며 字尾 ㅅ = 하
 ~228~

(이)겠다 + ㄱ = 하(이)겠으랴 字尾의 小用 = 하(이)겠
음이 된다.

※ 하겠 = 하게가 됨은 있게 = 있게나 同이다.

C. "게"에 다시금 "하겠"이 올 때는 게하겠 = ㄱ + 의 ㄹ字
게하겠다 = "게하겠"의 字尾비침 게하겠으랴 = ㄱ +
슬 ㄹ字 게하겠음 = ㄱ + ㅎ ㄹ字를 쓴다.

D. 되겠 記法 있겠 記法들 그대로 되位置에 옮기면
된다.

다음에 만나 單語 밑에 하게가 올 때는 "겠다"와
同樣으로 써도 誤記이 아니 되므로 을겠다 = 을 하겠
다 식으로 써도 無妨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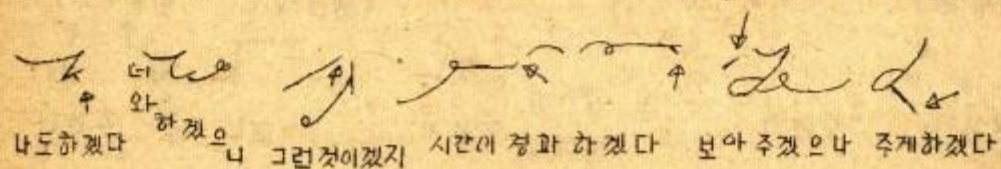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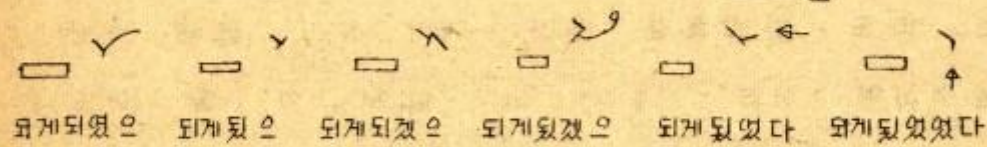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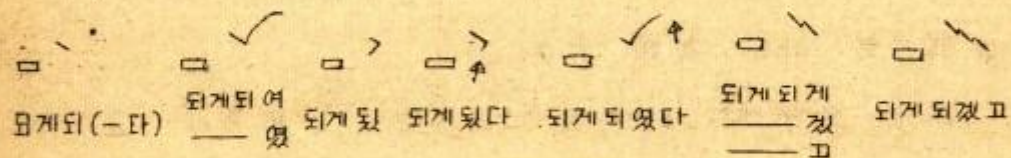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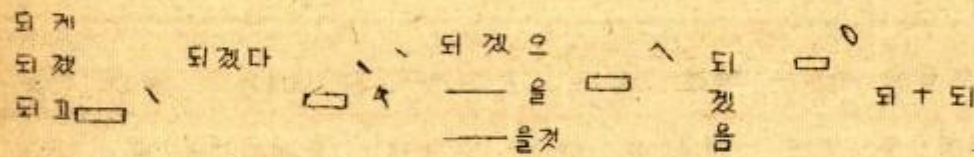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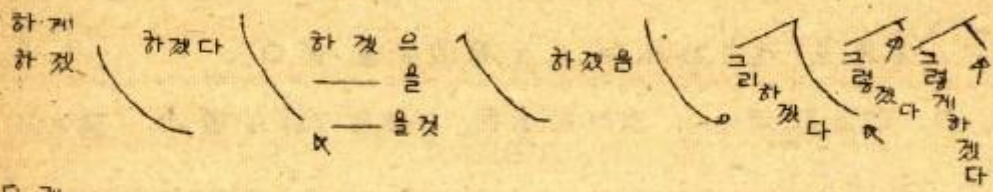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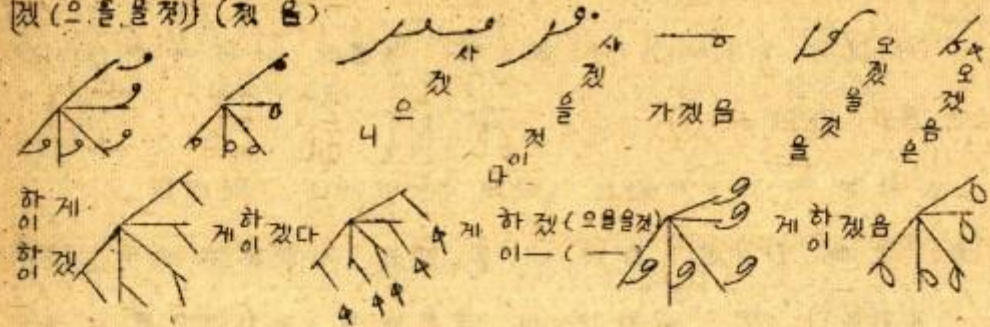
다시 "되게"에 "되게"를 비롯한 되用言이 올 때
는 따로 되位置를 올라 가지 않고 連續 해서
쓸 것이며 이는 "하게"에 "되게"가 올 때도
同樣이다.

例 文

(게겠) (겠다)

그렇겠지 지 매 습 달겠고 달겠고 벗겠지 가겠다 다 주겠다

(겠 (으, 올, 올겠)) (겠 음)



第九章 逸波式吐記法(二)

第九章 逸波式吐記法(二)

第一節 終言吐略記法

終言吐라고 함은 言語의 끝 마침에 使用 되는
다 오 요 비나 다 나? 까? 等々를 指稱
하는데 此 終言吐의 略記體가 能率的이나 非
然이나가 實로 速記學上 分秒時 記字數를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의 分岐點이 되어 왔
느니 만큼 全般的으로 略記化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以下 現在 未來 過去를 아주 美 해서
習學 하기 쉬우게 記述 하 겠다。

7. 終言"다"略記法

오다, 가다, 쓴다, 왔다 等々 "다"가 終言
言인 捷速 即 漢語에 비보다 文章論體에 最
用 되는 語는 一切 下 記法을 遵守 해야
한다。

<p>Calligraphy examples for 'L +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L', '0', and '2'.</p>	<p>L + 0 2</p>	<p>0 2 L + 0 2 L + 0 2 L + 0 2</p>
<p>Calligraphy examples for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0' and '2'.</p>	<p>0 2</p>	<p>0 2 0 2</p>
<p>Calligraphy examples for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0' and '2'.</p>	<p>0 2</p>	<p>0 2 0 2</p>
<p>Calligraphy examples for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0' and '2'.</p>	<p>0 2</p>	<p>0 2 0 2</p>
<p>Calligraphy examples for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0' and '2'.</p>	<p>0 2</p>	<p>0 2 0 2</p>
<p>Calligraphy examples for 'L +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L', '0', and '2'.</p>	<p>L + 0 2</p>	<p>L + 0 2 L + 0 2</p>
<p>Calligraphy examples for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0' and '2'.</p>	<p>0 2</p>	<p>0 2 0 2</p>
<p>Calligraphy examples for '0 2'. The examples show various strokes and combinations of characters, including '0' and '2'.</p>	<p>0 2</p>	<p>0 2 0 2</p>

此記法	例	文
4다	3位置+다	3位置+다
7다	2位置+다	2位置+다
4다	A F線	但發發發線
가다	A B線	가다
發用	A C線	發用
發다	上軌+位	發다
從다	置+和角	從다
發다	同位置+發	發다
發다	2種四線	發다
發다	2.5mm 發	發다
從發	上+位置+口	從發
4다	4다	4다
가다	가다	가다
다	다	다

브 다	비후의 字尾 배침 + ㄱ 으로 "브다"	
브 다	끄후 + ㄱ	지브다 → 끄브다 → 손을 댔다
브 으	브다 + ㄱ	지브을 것이다 → 보브을 것을 보브 → 달랖으나
브 음	브다 + ㅁ	지브음 → 보브음 보브음 → 담랖음
외 다 나 다 버 다	15 類 외字 외와 외, 하와 다, 이와 다, 로드 씬	외다 2 類 애字 하— 이— 만다, 다, 소

ㄱ. 終言 "오", "요", 略記法

亦是 純全한 講演用 演說用 算語체가 아니라 純話的 算語体形式인 標準語는 下記 略法으로 因해서 躊躇 없이 記筆 된것인즉 흔히 演語만 重視 하여 記字의 數及만 올리려는 弊端을 一捨 하고 ㄱ의 "다" 記法에 依한 論文体와 共に 純話語 又は 演語와 純話語의 混同体인 國會用語算 言語로 構成 發表되는 語는 一切 同速度로 記筆 할수 있는 基礎를 鞏固히 하여야 한다.

흔히 過去의 習學生의 例를 보더라도 純話語나 文

~ 237 ~

筆的 語는 元音인자 敬遠 하여 假令 3200 字를
 쓴다고 하는 點가 日常 練習對象인 用語에만 局限
 되며 他語는 절々 每는 例를 보는데 이것은 眞正한
 速記士가 아니라 方更的 一時的 受驗的인 手續에
 不遇한것이니 이런 面을 떠나서 基礎練習에 있어서는
 雜誌 新聞 圖書録等이 缺할것 없이 俯지도록 恒時
 留意 해서 모처럼 마련 된 極少의 略法마저 死滅
 시키는 弊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

또한 前節의 大記字나 此節에 있어 그 應用
 으로 그을 加 해서 中間音節은 一節音略記 하
 는 式은 그略化의 途程을 잘 보살펴서 되도록
 많이 利用 하여 主로 動詞에 있어서는 그 語源의
 첫字와 末字 音으로 併 構成 되는 略字의 妙理
 를 十分 体得 함진대 此節의 記法은 한層더 意義
 깊은 記法이 될것이다。

重言 같은나 恒常 略記의 法則은 이를 徹底히
 記憶 해 두어서 該當語에 相遇 하여 此語는
 어느 法則에 該當이 됨이 瞬時に 予測이 되지 못 함진
 대 速記字의 元來目的을 達成하지 못 함을 覺悟
 하여 一節々々 究明后 前進 해야 된다。

가 오 나 오	가 위치 ㉑ + ㉒ 나 위치 ㉑ + ㉒	 가오, 나오, 그리로가오, 다라나오
應用	가오는 AB AC AD線, 나 오는 A E A F線	 물건을 사오, 그러지마오, 땅을 파오, 것이라오
가 (까)오 나 요 봐 요	가 위치 ㉑ + ㉒ 나 " " " " 봐 " " " "	 가오, 나오, 봐오, 처져올봐오
應用	가오는 AB AC AD線, 나요 는 A E A F線	 신을 사오, 가까오, 물라오, 내라오, 배가 고포오
나 봐오 하나봐오 가 봐오 할까봐오	봐 요 + ㉑ 와 요 + 反 ㉑	 나봐오, 가봐오, 하나봐오, 그렇게 할까봐오
ㄷ ㅌ 오 ㄷ ㅌ 요 ㄱ ㅌ 요 ㄱ ㅌ 요	全部 + ㉑ 은 로 써 表 示 한 다	 따라가오, 달려가오, 밀려나오 나가오, 나가오, 가나오, 사나오, 떠나가오
하 ㅌ 요 할 까 요 할 나 요	ㅌ 요를 5mm로 하 ㅌ 요 + ㉑	 하나오, 할나나오 하하오, 할까오, 중도록할나나오
이 오 (하 오) 비 오 비 조 시 오	15mm 포 ㅌ 15mm 수, 주 ㅌ 15mm 보 ㅌ	 것이오, 오시오, 합쇼, 합쇼, 십시오

합니다	하位置+버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니다	갔습니다 = 버 니다 + ㄱ	내가 갑니다	— 갔습니다	
	왔(왔)습니다 = 왔다記号+버다	걸러 왔을 것입니다	걸러 왔습니다	
	것습니다 = 것 으 + 버니다			
	있(있)습니다 = 있으 + 버니다 or H + ㅅ + 버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물랐습니다	보았습니다
	하였습니다 = 하였 + 버니다	왔습니다	고였습니다	
	졌습니다 = 겠 + 음 니다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 되 + 버 니다	오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있(했)었습니다	
	시다 버 다 나 이 다 음 나 이 다 버 시 요	버시다 = 20mm ㄴ 들 ㅅ 버시다 = 20 mm 리 ㅅ 나이다 = 20 mm 논 ㅅ 음나이다 = 나 이다 + ㅁ	버시다 (합 -) 버시다 (합 -) 나이다 (물 + 버시다) 하 - (ㅅ + 버시다) 음나이다 (하 -) 음나이다 (이 -) 20mm (비 + 버시다) 버시요	올시다 것이올시다 바이올시다

第二節 “ㄱ”吐略字記法

以下는 “ㄱ”을 伴 하는 語中 特히 簡記 해야 할것을 選次 해서 그 簡記法을 定한것이다.

記法과 例文

※ 例文은 一部만 本보기로 한다.

ㅏ 字 의 ㅓ 字 尾 배침 (ㅏ ㅓ) 但 이 ㅓ (하ㅓ) = 예 字	
(例文)	
- ㅓ ㅓ ㅓ	
- ㅓ ㅓ ㅓ	
H ㅓ ㅓ ㅓ ㅓ ㅓ ㅓ	

외 해(—하) = 加 貞, 외 하여 = 加 貞 記号

외 한(—첫) = L 을 쓴다.

B. 에 兩 해..... 同行 上 記号로 中間交叉 한다.

但 "하여" 인 때는 ㄷㄷㄷ 記号를 쓴다.

C. 에 依 해, 에 因 해, 에 起 因 해..... "依 해" 는 字尾
右斜上 2mm 位置, "因 해" 는 0 位置, "起 因 해" 는
續音 位置를 쓴다.

D. 에 屈 해, 에 歸 해, 에 依 據 해..... "屈 해" 는 "속"
変字와 同, "歸 해" 는 에 + 임, "依 據 해" 는 거 守 又,
는 改 変 字를 쓰며 "하여" 인 때는 屈 하여 = 加 貞 記
号, 歸 하여 = 하여 + 0, 依 據 하여 = 假 다 位置 加 貞으로
쓴다. 但 字頭 右 位置를 "繼 해" 로 伯도 좋다.

E. 에 兩 聯 해, 에 應 해, 에 準 해..... "兩 聯 해" 는
同行 上 記号의 字尾 結 合, "應 해" 는 應 変 字, "準 해" 는
L 을 쓰며 "하여" 인 때는 兩 聯 하여 = ㄷㄷㄷ ㄷ 字
를 結 合 他는 全 部 "하여" 를 쓴다.

F. 에 이 르 러, 에 이 어, 에 있 어, 에 있 어 서, 에 비 추 어
..... "이 르 러" 는 말 字, "이 어" 는 이 字, "있 어" 는 러 字,
(ㅁ ㅂ) "있 어 서" 는 ㄹ 字, "비 추 어" 는 어 字를 各 己
繼 續 해 서 쓰며 다시 비 추 어, 에는 흔 히 "보다" 라

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中向기로 表示 하되
 中向기 記号의 活用은 "되다"의 活用記号와 同인
 데 다만 過去形인 보았이 될 때는 보+았 記法
 을 쓰면 된다. 即.

加 矣 = 보(-다)	ㄴ = 보(-다)	ㄹ = 봤(-것)
ㅁ = 봤	ㅇ = 보겠다	ㅍ = 보(겠제)
았 = 보았	았다 = 보았다	았으 = 보았으

算으로 쓰는데 此 記例는 此 向도 中向기 略字는 全
 部 同様으로 되니 此가 基本임을 覺知 할 것이다.

例 文

(A 例) 
 예 처 해, 예 처 해 ㅍ - 하 는 - 하 만 은 - 하여 - 하여 ㅍ - 한 - 한 (것) - 하는

(B 例) 
 - 하 는 - 한 - 하면 예 처 해 - 하여 - 한 - 하여 ㅍ - 해 ㅍ

(C 例) 
 因 해 因 하여 因 한 (것)
 依 해 依 하여 依 한 (것)
 起因 해 起因 하여 起因 한 (것)

因 해 ㅍ 因 하여 ㅍ 因 한
 依 해 ㅍ 依 하여 ㅍ 依 한
 起因 해 ㅍ 起因 하여 ㅍ 起因 한

(D 例)

에 屬 해 에 屬 하여 - 해 하 - 하여 하 (에 隨 해 에 隨 하여 에 繼 해

(E 例)

에 繼 하여 에 依據 해 - 하여 (에 與 聯 해 - 하여 에 應 해 - 하여

(F 例)

에 準 해 에 準 하여 에 準 했다 에 이르 러 에 있 어 에 있 어서 에 이 어

에 비추 어 - 보 - 보다 - 본 - 본 다 - 볼 - 볼 것 - 봄 - 보 았 다

- 보 았 으 나 - 보 았 고 - 보 았 습 니 다 - 볼 진 대 - 보 겠 다 - 보 았 겠 다

必 各自 記 入 欄



이르 러 비추 어 임

에 부수 해

第五節 “와, 吐略字記法

날 말	記 法	例	文
와 파	2種略字 字尾 削침 但 獨立 해서도 씀.		와 함께 파도 함께 ^함
와 파	와 + 터 러		와 터부러
와 파	ㄹ+ㅇ을 字尾 削		와
와 파	와 + 數種의 1000		同時에 나는
와 파	中向位置 利用 但 하여는 하假記號		해 해서 하여 하여서 한 함
와 파	瘦字 속記號 但 하여는 하假記號		해 해서 하여 하여서 한 함
와 파	와 中 ㄷ 又 마 字		- 이다 - 을 시 다
와 파	에 聯 結 記 法 파 同 - 하 다		해 하여 해서 하여서 한 하여는
와 파	와 + 詞 字		신 앙 과 如 히
와 파	와 + 〇		와
와 파	와 에 ㅍ 字 削 침		해 하여 해서
* 各自記法欄		同伴訓	

第六節 '로' 吐略字記法

記法과 例文

A. 로 因 해 로 緣 由 해..... "因 해"는 中間 八 位 置 "緣 由 해"는 末 位 置로 利 用 하여 예+00 해와 同 一 記 쓴다.

B. 로 말미아마 로 하여금 로 터부러 로 미루어..... "말미아마"는 마 字로 交叉 "하여금"은 字 尾 小 四 "터부러"는 "와 터부러"와 同 미루어는 어 序를 쓴다.

但 "미루어"에는 " 쓴다"라는 말이 늘 附 隨 되니 이는 "비추어 쓴다"와 同 樣으로 쓴다.

(A例)						
	因 해	연유해	인해시	연유해시	인하여	연유하여
	로 하여금	로 터부러	로 미루어	로 미루어 보	로 미루어 보아	로 보아

* 各 函 記 入 欄

第七節 '것' 吐略字記法

날 말	記 法	例	文
것이야 말로	것 위에 말 字		보고 있는 것이야 말로
것까지 것처럼 것만큼 것대로 것조차	말 字 部 切 서 ㅅ.		것인가 것만치 것일지라도 것만큼 수것대로 것조차 것 때문에

第八節 “는”에 吐略字記法

記法과 例文

此 “는”에 關한것은 그 記法이 大略 에 十〇〇해 記法과 同- 하므로 說明을 略하고 -括 해서 例文 으로 보겠다 .

	보치
처해해 처해시 처해시 처하여시 처하여시 -있어 -도- 보치	는테비추어
* 各自記入 擴	
하사고	

第九節 “지, 줄, 吐” 略字記法

記法과 例文

前편 한바 미루어 본다의 예는 비단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 여기에 “는지 모른다, 나” 앞으면 안된다, 나” 로
 줄 안다, 第々 大略의 捷速 連綴語를 形成 하는데
 連記學上 이런 類語는 眞正으로 略字化의 好例 인바
 앞으로도 同類語는 躊躇 없이 마치 四音字熟語 모양
 으로 右綴語를 略記 해 버린다.

또한 그 記號構成도 前卷의 “미루어 본다, 와 同様
 되다 된다의 記號를 그대로 中向기으로 移記 하게
 되므로 別달리 習學할 必要가 沒되니 누구나 容易히 此
 第 例語의 略記化에 容易이 없기를 바란다.

※ 여기에 “쓰는지” 記號로 “人 + 제” 字를 쓰기로 한다.

中向知處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르(-다)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르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르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르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르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르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르	모	르	는	지	모	른	는	지	모	른	는	지

모름니다	—겠읍니다	—랐다고합니다	—랴겠읍니다
르 줄 아 — 다	르 줄 로	르 줄 로 아 — 다	르 줄 도
르 줄 도 모르 — 다	르 줄 도 아 — 다	르 줄 은 —	아 . 아 다 모 르 모르 다 아 . 아 다 — 모르 . 모르 다
㉠ 르 줄 = 할 줄 알 줄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더	가 샷	며	할 줄도 알지만
그럴 줄 모를 — 리가 없다	그러 할 줄 — 알면서	다	올른지 모릅니다

第十節 “을, 吐略字記法

記法과 例文

A. 을 系 派 系 派 吐 記 法 에 서 아 는 바 이 겠 으 나 特 히
 을 (을) 의 밑 에 을 때 는 “것 파” 와 同 樣 처 서 쓰
 며 그 反 對 를 系 하 여 로 쓴 다 . 그 리 고

※ 기위해 위해 + 小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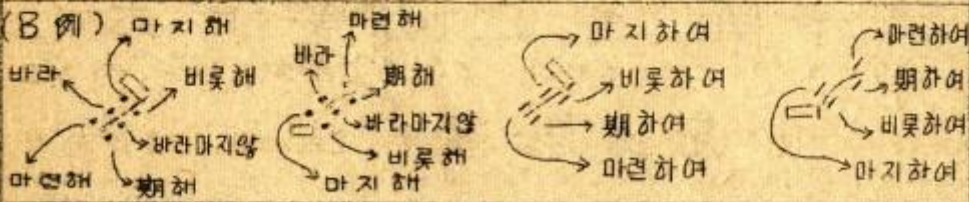
B. 을 비롯해, 을 마련해, 을 期해, 을 마지해,
 을 바라, 을 바라마지않 "비롯은 字頭右方, "마련
 해"는 口位置, "期해"는 字尾右方, "마지해"는 字
 頭左方を 利用 한다 그리고 "바라"는 中向上 "다름"은
 中向下를 쓴다.

C. "을 蕪始해, 을 契機해 을 契機로해..... 蕪始해,
 는 字尾에 小円屈, "契機해"는 右方에 位置 + 小円
 "契機로해"는 左方에 位置 + 小円 특히 "하여"인
 때는 小円을 3mm 圓으로 한다.

D. 을 하기 蕪해 때문과 同이다 但 "하여" 할
 때는 5mm 圓로 한다.

(A 例) 

— 위해 — 위하여 — 위한(-것) — 위함 — 위해서 — 위할(-것) — 위하여

(B 例) 

마지해, 마련해, 비롯해, 마지하여, 마련하여, 비롯하여, 期해, 마지하여, 마련하여, 비롯하여, 期하여, 비롯하여, 마지하여, 마련하여

(C 例) 

마지한, 비롯한, 마련한, 위시해, 계기로해, 위시해, 계기해, 계기로해, 위시해, 계기해

제기로하여 위계 시기 하 하 여 여 위시한 제기한 제기로 한

(D例) 을 하기위해 을 하기위하여 한 을 하기위다

것을 위해서만 을 위할 따름이다 보기 위해서 - 하여서 보기를 위한 손님을 맞이한다

살기를 기한다 다 관련만 자 그를 비롯해서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마땅히 소신 후들다

경주하여 완성이도록 되기해야 한다 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여 을 바라 바라다

第十一節 “吐略字記法”

오기런 現在進行形 이라고 하면 두렸이 알수 있는
 此 吐略 亦 用言中 重要的 語的 部分을 말아 가지고
 왔으니 下記 記法에 徵 하여 全的으로 初用장기
 바라다 .

“註” 辨히 終言 “어” 外로 “어시” 에 關聯되는 “吐略字
 記法을 黑主編成 하였으니 留意 하라 .
 ~ 255 ~

한말	記法	例	文
린어	와아올러 아올러와 □ + ㄱ		아올러와 만들어 권부러 가들러 가들러 가들러
권어	○ + ㅈ ○ + ㅊ		가들러 가들러 가들러 가들러
존러	아올러볼이 물어볼이		아올러볼이 물어볼이 물어볼이 물어볼이
T어	방울 거 꾸로 쓴다		방울 거 꾸로 쓴다 꾸로 쓴다 꾸로 쓴다
IT어	T어의 배		T어의 배 T어의 배 T어의 배 T어의 배
이어	ㄱ적마다와 (이여 除外)		이여 이여 이여 이여
이여서	1 位置 + 2.5mm 赤字 (이여서) 은 ㄱ적마다와		이여서 이여서 이여서 이여서
H외	ㅈ 位置에		H외 H외 H외 H외
H어	다 + ㅈ		H어 H어 H어 H어
H어	의 ㅈ을 쓴다		H어 H어 H어 H어

아 와 어(외)	방 字	종와서 어와서 나와서 보아서
ㅓ 어 1	10mm 방 字 를 쓰	집을지어서 꽃이피어서 나누어서 고기를구어서 기 달구어서
라 래 러	从 位 置 에 다 初 音 후 (終 聲 除) 만 쓴 다	달라서 달래서 플라서 물라서 살라서 발라서 물려서
ㄱ 아 크	기 위 記 號 를 字 尾 上 으 로 함	켜서 겨서 켜서 여서 저서 쳐서 려서 퍼서
ㅅ ㅆ ㅈ ㅊ ㅋ ㆁ		ㅅ어 ㅆ어 ㅈ어 ㅊ어 ㅋ어 ㆁ어 ㅅ어 ㅆ어 ㅈ어 ㅊ어 ㅋ어 ㆁ어 ㅅ어 ㅆ어 ㅈ어 ㅊ어 ㅋ어 ㆁ어 ㅅ어 ㅆ어 ㅈ어 ㅊ어 ㅋ어 ㆁ어

水名自記入横

↪ 내세워서

↪ 시킨 것이여서

↪ 짜 여

↪ 재 여

記法要領

어셔를 어셔와 ㅅ의 ㅅ字를 쓰나 此에 ㅅ字로 쓰나
 別般 差違가 없는것 같이 여긴다면 그것은 큰 誤解
 다 터우기 小用 大用에 右經 되는 어셔는 ㅅ字가 眞
 신 運轉이 "스무—ㅅ" 한것은 實記에셔 알수 있고
 또한 "ㅅ 어셔"는 그 例語가 구 어셔 누— 두—
 이 루— 미루— 부— ㅅ ← 주— 추— ㅅ에
 不過 此나 全的으로 使用 해야 하고 | 여 | 여셔 本
 20mm ㅅ字보다 便宜의 ㅅ은 勿論 이요 其他 新記号
 인 ㅅ 위 ㅅ ㅅ (除 어셔) ㅅ도 單 一字의 差違라는
 生覺을 버리고 어나 여 에셔 一單 ㅅ은 語 및 "ㅅ"에
 ㅅ ㅅ은 例語 ㅅ은 ㅅ에 注力 하여야 할것이다 (練習
 途中 該當語가 나오면 一々히 記帳 하라)

다시 逸派式 速記號는 密學者 本位로 構成 시킨
 것이어서 大概가 많은 例語에 用한 利用應用式으로
 나와 있어 特殊變字記法 略字法 復用吐記法等은
 비롯 해서 仔細히 觀察 할진대 마치 數學의 公式
 같이 一定한 公的記號를 내 제외히 該當他語를 略記
 寫化 할수 있게 하여서 『記號의 複雜性을 防止
 하고 密學의 便宜性과 利用上 合理性을 賦課 시킨데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모든記號가 用 놓고
 날진대 一筋筋 ㄱ의 記號가 모도 出處가 뚜렷
 하여 秩序 있게 짜여 있어 어느 記號를 놓고 보던
 지 그 出處를 辨認수 있으므로 用 覽文上 又是 記
 算上 整理를 肅來 하지 않게 되어 있는 處에 通
 達 할진대 速記는 滋味가 들고 能率向上이 巨絶로
 이루어 지는것이다。



— 如上과 같이 그 出處를 大體에 芻蕘할 수 있는 處이라야
速記符는 完全 芻蕘 했다고 될 수가 있으니 未審히 여
기는 處는 自己의 努力不足을 自覺 하여 一層 課業
에 熱心을 加 해야 할 것이다.

第十二節 "면" 吐略字記法

"면"의 後用인 면은 면만 면만은 [따외가 아니
라 주로 〇〇+면 〇〇〇+면은의 例語를 對象으로
삼아서 그 記法을 此節에서 檢討 해 보겠다.

然이나 此 記法은 否定詞記法(二)에 나올지+〇〇면
記法과 아울러 記字數上에 있어서 一單線 三音節 以上
의 略記符로 되어 있어 그만큼 能率的인 것임을 附言
해 둔다.

記 法

A. 하면 (이면) 5mm 位の 면 又は 點符々
를 베침. 하면은 (이 —) = 하면+ㄱ 又は 點符々
의 符尾 5mm 베침. 但 左側이 "안된다." 位
置가 되고 右側이 "아니된다." 位置가 되며 字頭쪽
조가 "안하다." 右가 "아니하다." 位置가 된다.

B. 하자면 20mm 寸字+L ※ 活用은 上과 同

C. 하시면..... 20mm 소수 + L ※ 活用上과同

D. 보이면..... 左曲보 + L ※ 活用上과同

E. 해보면, 해보면은..... 右曲보수 左曲보 + 현수.

※ 位置는 "卜" 에 準한다.

F. 안하면, 안하면은..... 와 + 한은 一筆로 쓰며

"안하면은" 은 撇침을 5mm로 한다 ※ 位置同

G. 아니하면, 아니하면은..... "하면", "하면은" 의 中

向을 가지고 字尾交叉 한다. ※ 位置同

H. 없으면, 없으면..... 없으를 5mm로 하여 L을

加하여 "면은" 하면 L을 5mm로 한다 ※ 位置同

I. 알+면, 아니+면, 못+면..... 从였 位置에什

손字 = 알+면 흥字 = 아니+면 몽字 = 못+면

으로 쓰며 "면은" 이 될 때는 7을 加한다.

※ 位置는 同이나 中向入 "고만" 位置 字頭 쪽

기으로 "안되, 쪽이" "안하", "아니되, 쪽이" 아

니하. 位置가 된다. ※ 但

J. 알+면, 아니+면, 못+면..... 同 소수 호수 모수를

쓴다 ※ 但 "면은" 은 L을 加하여 他는 I. 에 準한다.

K. 알-면, 아니-면, 못-면..... 同 세수 혜수 ㅁ

字를 쓴다 ※ 他는 I. 에 準한다.

L. 알면 아니면 못하면..... 同 소시수 호시수

모마字를 쓴다 ※ 그는 "I."에 준한다.

M. 알하면 아니하면 못하면..... 同 세수의 소피 벌림

해수의 소피 벌림 매수의 소피 벌림 記號를 쓴다.

※ 그는 "I."에 준한다.

N. 알지면 아니지면 못지면..... 同 15mm 외수.

15mm 회수 15mm 외수를 쓰며 그는 "I."에 준한다.

하면 以上으로 諸語는 "알 아니 못"에 뒤 오는 "면"

에 屬한 例語는 그 全部를 略記化 할수 있게 되었

음을 알것이며 "그수"나 "지"나 "한지"에 "면"이 오는

變遷은 이를 別途로 第十章에서 論 하겠다.

O. 그것같으면, 그것같은면..... 15mm 회수+L

L

P. 러면 러면은..... 렉+L 렉+린수,

※ ※ 位置 上同

Q. 上 A~P에 L다면 L다면은 이 올 때.....

주로 L다+L L다+린을 쓰며,

특기 한다면 = 한다+면 基本記號 한다면은 = 한다

며+린을 써도 無妨하며 位置利用은 亦 同이다.

例 文

양H면
 못H면
 아니하 위치
 아니H면

양H면은
 못H면은
 아니H면은

양1면
 못1면
 아니면

양기면
 못기면
 아니기면

양기면은
 못기면은
 아니기면은

양1면은
 못1면은
 아니면은

(O 例)

근처같은면은

(P 例)

려면
 려면은

(A-N) (Q 例)

안아
 L다면(한-)
 L다면은(하-)

L다면

안아
 만 L다면은

오게 한다면
 아니된다

허잔
 다
 면

본다면

해본다면

아니 한다면

양는다면

양드다면

양고다면

양고다면

양는다면

양쁘다면

양진다면

안되다면

안되다면

안되면
 안됩니다

보기로 하자면야

해본다면
 해보라지

이제
 가
 안될결

안될결

안
 다
 고
 안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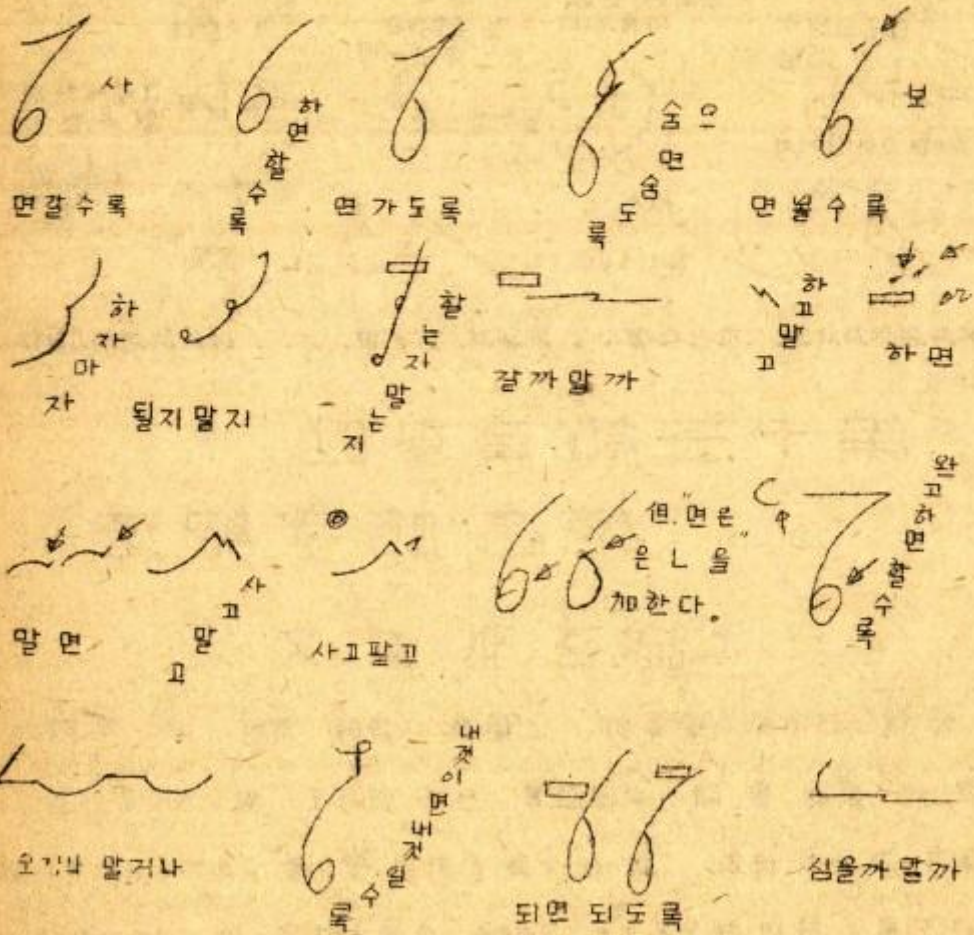
第十三節 “륙” 및 “吐”
 緩音 略字 記法

記法 과 例 文

“륙”은 2수륙, 도륙의 二種을 意味 하며 이 두語가
 면.에 后緩 될 때 中間語를 쓰지 않아도 알수가 있음을
 利用 하여 榜히 “면 ○ 수륙 (하면 철수륙 비면 일수륙) 면
 ○ 도륙 (하면 하도륙) 은 20mm 수륙, 11字 및 20mm 려,
 ~ 265 ~

度字로 써 쓰기로 한다 .

다시 緩急이라는것은 〇자말자(하자마자) 〇지말지(찰지말지) 〇가말가(찰까말까) 및 一 一이 緩急인 境遇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〇자자 〇지지 〇가가 式으로 주로 動詞의 初語彙만 쓰고 다음은 一을 連結해서 쓰면 된다. 但, 一을 加하여 “一”도 應用 한다 .



第十章 逸波式特殊略字法(三)

第十章 逸波式特殊略字法(三)

第一節 動詞^ハ와

一部 助詞 略記法

여기에 一部 助詞란 주로 否定詞 및 存在詞를 意味 하는데 此 記法은 우리 말中 頻用語로서 그 記法의 效果가 歷然한바이니 格別 注意 하여 縱橫無忌 驅使 해야 된다.

7. 하(이) + 吐 略記法

18mm ~ 20mm의 單線으로 卅 別途記法을 定한다

- A. 하(이)가 -까 20mm 흥字.
- B. 하(이)거 -구 -기 -계 等 20mm 호字.
- C. 하(이)나 20mm 난字.
- D. 하(이)니 -네 20mm 노字.
但. 하는 = 5mm ㅅ字
- E. 하(이)다 20mm ㅌ字.
- F. 하(이)되 -더 -드 等 20mm 도字.
- G. 하(이)라 20mm ㄹ字. 但. 하_이라 ㅍ =
20mm ㄹ + ㅌ로. 하_이라는 것 = 20mm ㄹ로
~ 268 ~

H. 하 (이) 리 -려 -래 等..... 20mm 로字 但, 하리다=립다

I. 하 (이) 마 20mm 모字,

J. 하 (이) 며 20mm 모字 但, 며 = ^하며

K. 하 (이) 사 ^하신 20mm 쓴字,

L. 하 (이) 시 -소 -세 -셔 等 20mm 소字

但, 하시다 하셔요 等 終言은 시다 셔요를 俚
立 해셔' 쓴다.

M. 하 (이) 와 20mm 온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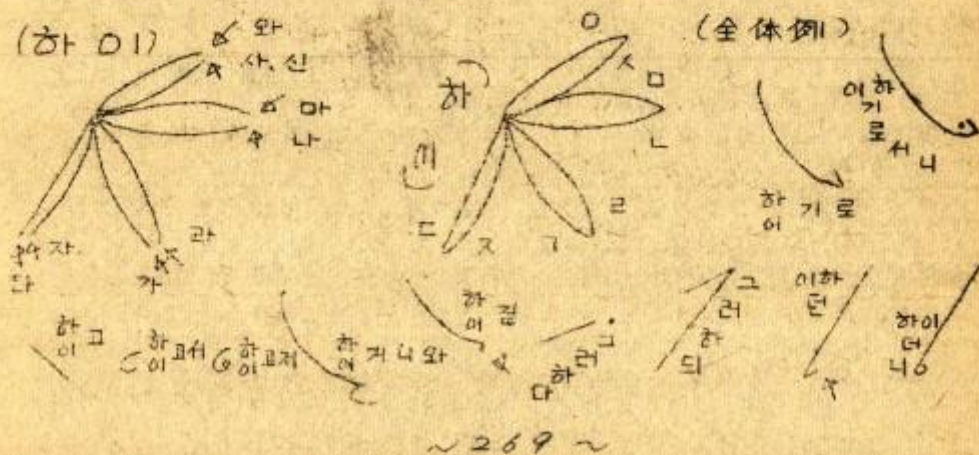
N. 하 (이) 여 -요 等 20mm 요字 但, 하오=포

O. 하 (이) 자 20mm 종字

P. 하 (이) 지 -조 -재 等 20mm 조字,

但, 以上 記號는 7을 加 해서 되 우 어 으
等으로 利用 할수가 있다.

例 文



L. "하"와 否定存在.

形容詞等 略記法

記 法

없, 아니, 없, 못, 싫, 있, 마, 많, 좋, 심 等語上에 하지, 하기, 하는수 等이 올 때 下記와 如히 쓴다.

- A 1. 하지않 (一다) (하지않, 지않도 同).....20mm 세 字
- A 2. A 1 中間에 "는" 이 올 때20mm 소시 字
- A 3. " " "를" " "20mm 조지 字
- A 4. " " "도" " "20mm 제 字
- A 5. " " "만" " "20mm 모미 字
- A 6. " " "나" " "20mm 네 字

但, "않은" 은 20mm 시 字, "않음" 은 시 字 + 소 字로 表示한다.

- B 1. 하지아니하 (一다) (하지아니, 지아니 同)....."하지않" 의 소 字 別림
- B 2. B 1 中間에 "는" 이 올 때하지는않" 의 소 字 別림
- B 3. " " "를" " "하지를않" "
- B 4. " " "도" " "하지도않" "
- B 5. " " "만" " "하지만않" "
- B 6. " " "나" " "하지만않" "

- C 1. 하지못하 (一다) (하지못, 지못 同)..... 20mm 세 字의 소 字 別림.

C2. C1 中間에 吐는 이 을 때 하지못 + L

C3. " " 를 " 하지못 + 를 (여)

C4. " " 도 " 하지못 + 復用도 記號

C5. " " 만 " 하지못 + 2mm 여 字

C6. " " 만은 " 하지못 + 2mm 면 字

C7. " " 나 " 하지못 + 2mm 너 字

D1. 하지마 (-오) (지마 同) 原本 아래 를 더 깊어 둥그린다

D2. D1 中間에 吐는 이 을 때 하지마 + L

D3. " " 를 " 하지마 + 를

D4. " " 도 " 하지마 + 復用도

D5. " " 만 " 하지마 + 2mm 여 字

D6. " " 만은 " 하지마 + 2mm 면 字

E. 하지말으 (-오) (지말으 同) 마 + 5mm 以下半

* 中間吐기 活用記號는 "하지못" 과 同樣이다.

F. 하지마시 (-오) (지마시 同) 하지마 + 字尾小円

* 中間吐기 活用記號는 "하지못" 과 同이다

G. 하지싫 (-다) (가싫 同) 20mm 길 字

* 中間吐기 活用記號는 "하지못" 과 同이나 但, 가싫 字尾는

개 變字를 쓴다.

、 하지싫여하 (-다) (가싫여하 同) 하지싫 + 7 記號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G 와 同 이 다 .

I. 하기종 (一다) (기종 同) 20mm ㄱ + 同行 上 記号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G 와 同 이 다 .

J. 하기종와하 (一다) (기종와 同) 하기종 + ㄱ 記号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하지못과 同 이 다 .

K. 하기힘 (一다) (기힘 同) 20mm ㄱ 후 + 2mm 정수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G 와 同 이 다 .

L. 하기쉬우 (一뒤) (기쉬우 同) 20mm 계수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G 와 同 이 다

M. 하는수없 (一다) (는수없 同) 20mm 호수 + ㄱ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하지않" 과 同 이 다 .

N. 하는수있 (一다) (는수있 同) 20mm 호수 + ㄱ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하지않" 과 同 이 다 .

O. 하는수밖에없 (一다) (는수밖에 同) 15mm 보수

中向을 前 字 尾 에 結 찬 다 .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하지못" 과 同 이 다 .

P. 하는지 (는지) 몰으 (一다) 20mm 모수 + 2mm 정수

※ 中向吐入 活用記号는 "하지못" 과 同 이 다 .

※ 以上 ㄱ 記号 "되" 가, 된 다 .

例 文

~293~

양 (-다)

(A)

하지 - 는 양 -
 하지 - 만 양 -
 지 - 나 양 -
 지 - 들 양 -
 도 - 만 은 양 -

하지
 하지
 지
 지
 도

만 양
 만 양
 만 양
 만 양
 만 양

않았다 / 며으
 고 압
 다
 다
 다

하지만 양이었으면

양 (으음음것)

하지
 하지
 지

는 양 (으-)
 만 양 (으-)
 나 양 (으-)
 만 은 양 (으-)

다
 다
 다

는 양을 것 인지라
 만 양 으면

(B)

하지 - 아니 - 나 -
 하지 - 만 -
 지 - 도 - 나 -
 지 - 들 - 만 은 -

다
 다
 다

는 아니 할 것이다
 만 아니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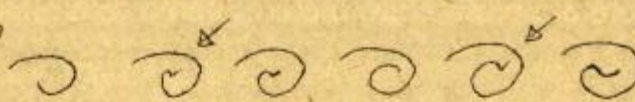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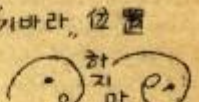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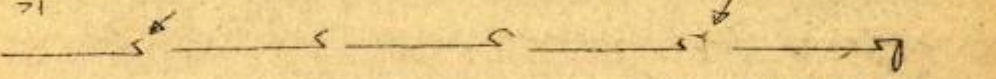
하지
 하지 못하 (-하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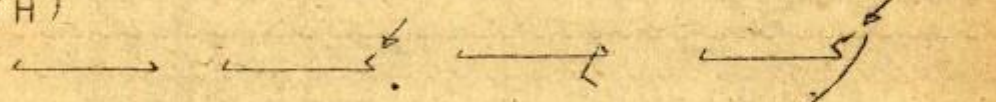
는 -
 를 -
 도 -
 만 -
 만 은 -
 나 -


되지 못한 것 ! 하지만 못 할 것을
 그렇게 하지만 못 합니다
 할 테지요
 하지만 못 했다고 하지만 못 했 으면
 리 는 지
 할 것입니다


(D) 
 하지 마오 -는- -도- -를- -만- -만은- -나-


(E)  (F) 
 하지 말으(-오) -는- -도- -만- -만은- -나- 하시마시오 ^{하시}말으시오

(G) 
 하기 ^하기 ^하기 ^하기 (-다) - 습니다 - 습니다 - 겠지
 기 
 -는- -도- -만- -만은- 하기가싫여서

(H) 
 하기싫여하(-다) -는싫여한다 -를싫여하고
 기 " " -도싫여는 하지만

(I) 
 하기좋(-다) -는- -만좋을것이다 -만은- -도-
 기 " " " " " "

(J) 
 하기 ^하기 ^하기 ^하기 (-다) -는- -를 ^하기 ^하기 ^하기 합니다 -만은-

(K) 
 하기가싫(-다) -는- -도- -만- -만은-

—만은 쉽습니다 —엄게 여기고 —다고 —1
 (L)

하기 쉬워(-우) —는— —도— —워요 —읍 다다
 기
 —올 겁니다 —버갠지 —쉬워히 —워라

(M)
 할수없(-다) —야— 는
 는수 " —만— 만
 —도— —가— —가없습니다

(N)
 하느수있(-다) —야— —는— —만은—
 는수 " —만— —가— —는워갠지 —야있갠지

(O)
 하느수밖없(-다) 하느수있(으를을것)
 하느수있(으를을것) —을것들 —을는지
 하느수가 있을것입니다

의 字尾 ㅁ침 (但 ㄹ전대 ㄹ지라도 ㅁ ㅁ는 "ㄹ"과
不区别時는 獨立 해서 쓰면 ㅁ진대 ㅁ지라도가 됨)

B. ㅁ(ㄹ) 理 勿 氣 哈 (-다) ㅁㅁㅁ대 ㅁㅁㅁ "ㅁㅁㅁ"
와 ㅁㅁㅁ이며 ㅁㅁㅁㅁㅁ 活 用 記 号 는 "ㅁㅁㅁㅁ" 과 ㅁㅁ이다.

C. ㅁ(ㄹ) 理 없 (-다) ㅁㅁㅁ ㅁㅁㅁ 記 号 를 ㅁㅁ
며 "없으" ㅁㅁ은 ㅁㅁ "없음" 은 ㅁㅁㅁ이다 또한
ㅁ(ㄹ) ㄹㅁㅁ (-다) 는 下 記 号 記 号 의 半 ㅁㅁ이다.

D. ㅁ(ㄹ) ㄹㅁ 20mm "ㄹㅁ" ㅁㅁ를 ㅁㅁ다.

E 1. ㅁ(ㄹ) 수 없 (-다) "하 ㅁㅁ" 를 ㅁㅁ다.

E 2. ㅁㅁㅁ에 ㅁ "는" 이 올 때 "사 ㅁㅁ" 를 ㅁㅁ다.

E 3. "도" " " "자 ㅁㅁ" 를 ㅁㅁ다.

E 4. "가" " " "나 ㅁㅁ" 를 ㅁㅁ다.

E 5. "만" " " "마 ㅁㅁ" 를 ㅁㅁ다.

E 6. "만은" " " "마 ㅁㅁ" + "ㅁㅁ" 을 ㅁㅁ다.

E 7. "나" " " "나 ㅁㅁ" 를 ㅁ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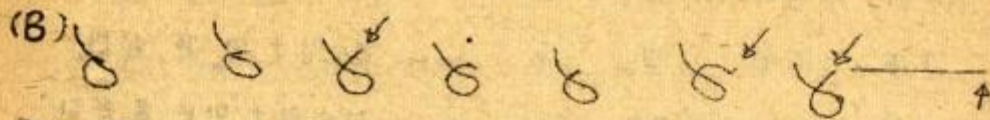
E 8. "야" " " "아 ㅁㅁ" 를 ㅁㅁ다.

* 但 "없으" ㅁㅁ은 字尾 ㅁㅁㅁ, "없음은" ㅁㅁ은 ㅁㅁㅁ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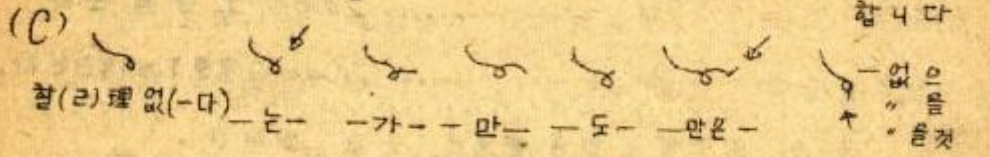
F 1. ㅁ(ㄹ) 수 ㅁㅁ (-다) 20mm ㅁㅁㅁ를 ㅁ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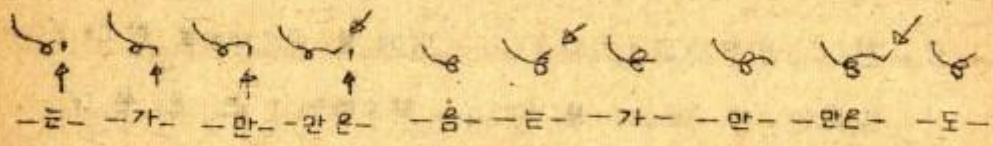
F 2. ㅁㅁㅁ에 ㅁ "는" 이 올 때 20mm ㅁㅁㅁ를 ㅁ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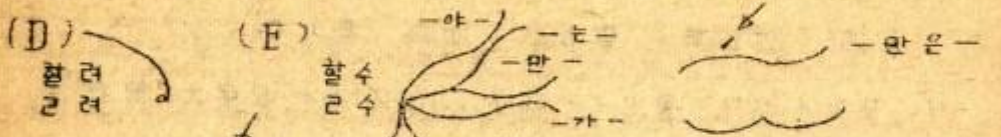
F 3. "가" " " 20mm ㅁㅁㅁ를 ㅁ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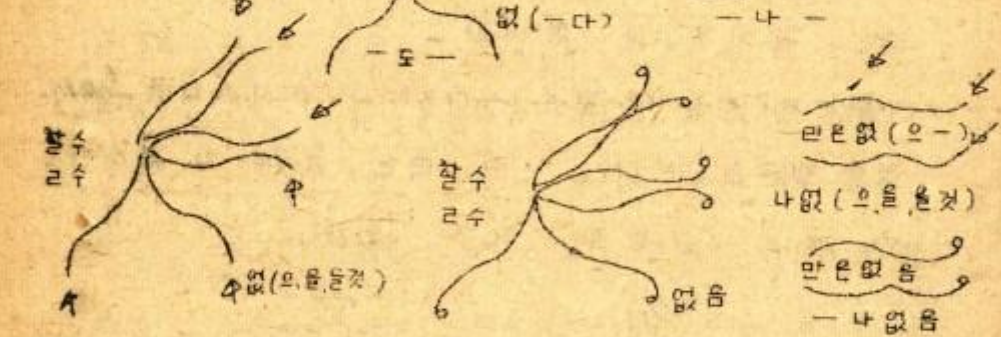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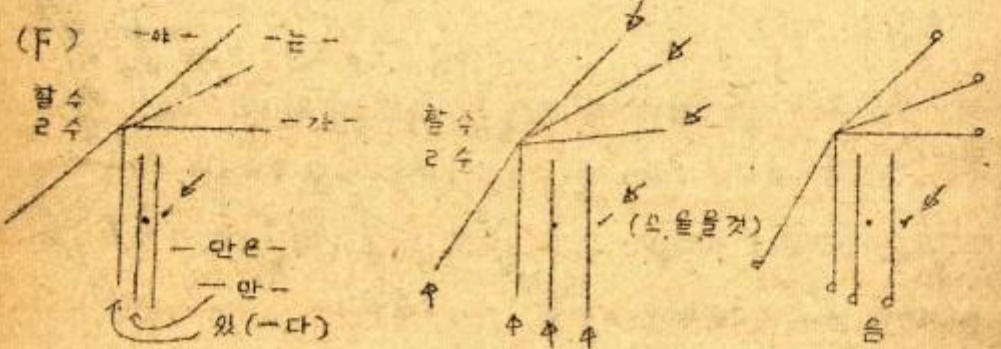
팔(2) 理 -가- -는- -만- -도- -만은- -는 凡氣 합나다
 萬氣하(-다)

(C) 
 팔(2) 理 없(-다) -는- -가- -만- -도- -만은- -는 凡氣 없을것
 萬氣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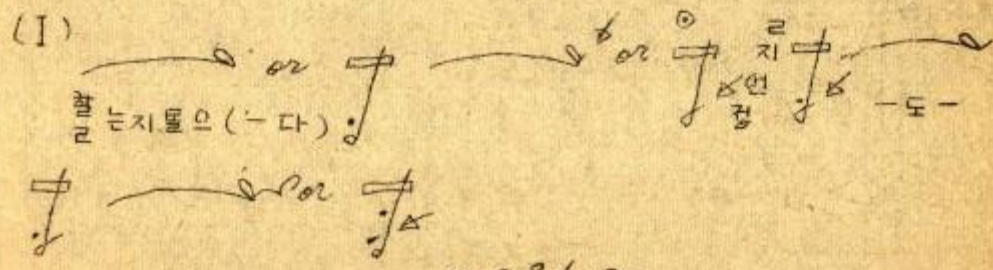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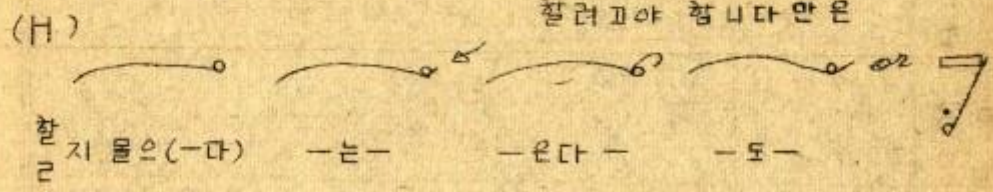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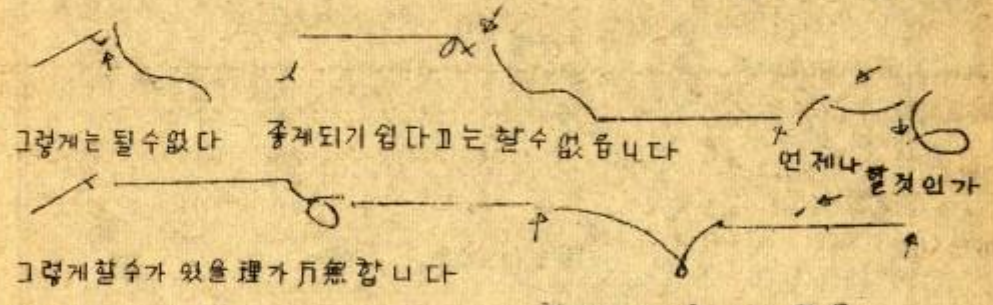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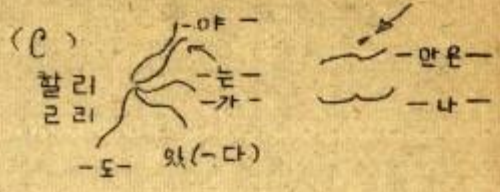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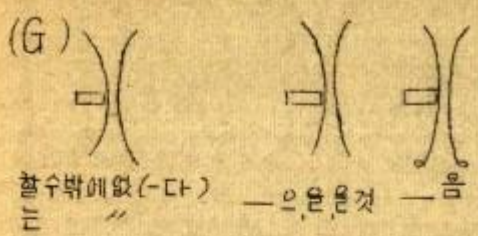

 -는- -가- -만- -만은- -음- -는- -가- -만- -만은- -도-

(D) 
 팔려 려

(E) 
 할수 리수 -아- -는- -만- -가- -없(-다) -나-
 -도-
 할수 리수
 할수 리수
 없(으.을.들.것)
 없음
 만은없(으.)
 나없(으.을.들.것)
 만은없음
 -나없음

(F) 
 할수 리수 -아- -는- -가- -만은- -만- -있(-다)
 할수 리수
 할수 리수
 (으.을.들.것)
 음

만은
나



2. "해"와 動詞中略記字

下記 數種에 만 限 한다.

날 말	記 法	例	文
해 보	"부" 字의 卍을 터 둥 구 립	바라다 位 置 L 다	바라보치 보기 보기를 보시
해보기	但. 中 間 기 "바라 바라다"	해보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볼 理가 万無 하다
해보시	位 置 가 됨. + ㄱ = ㄱ 보	해볼 것 같으면 고	해 보시 다
해 주	"수" 字의 卍 을 터 둥 구	바라보치 해준다고	해 줄 해 주시 해 주시
해 주기	리며 活 用 은	해 주시고 —기를	해 주실 시 요
해 주시	는 파 同 이 다 + ㄱ = ㄱ 주	해 주실 수는 있 을 것 입 니 다	—신다면 갈여 주다

발음	記法	例	文
해버리	左曲 ㄴ字 利用	바라 위치	바라 위치
해버리	活用 上과 同	기	기
해버리	ㄷ = ㄷ버리	기름	기름
해나	ㄴ字 利 用 活用	바라 위치	바라 위치
해나	上과 同	기름 바라다	기름 바라다
해나	大円中에 생략 字入 (20mm)	하나갈수있겠다	하나갈수있겠다
해나	ㄷ = ㄷ나	라네	라네
		주기	주기
		주시	주시
		맡어 나가 십시다	맡어 나가 십시다

※ 各例記入種

第二節 否定詞記法 (二)

記 法

前 一回에서는 簡略히 初歩만 習學 하였는데 此篇에서는 殘 全般的인 面을 詳細히 보이고자 한다.

A. 양 (없)의 過去形..... ㅅ다 記法을 그대로 쓰게 되므로 "없" 記號를 3mm 程度로 크게 해도 無妨하다.

B. 없지 (않지)..... 字尾 直下에 "이" 字만 써 둔다.

* "없 이" 의 沒字 略

C. "아니" 와 ㅁ..... "아니" 나 "아니요" "아니지" 等々

은 各各 ㅁ字의 中間이 字尾交叉가 되게 쓰며

아니 = 아니다 아닐 아닐것으로 쓴다.

D. 안되 記法..... 右曲 "버" 字의 中間으로 字尾交叉 하

여서 버字 = 안되 안되다 법字 = 안됨 --- 다

--- ㅁ ㅁ字 = 안될 --- ㅁ 右曲 ㅁ字 = 안됨 ㅁ

ㅁ = 안됨 --- 다 안됨은 ㅁ = ㅁㅁㅁ 안됨은 =

ㅁㅁㅁ 안됨은 (--- ㅁ) = ㅁㅁㅁ ㅁㅁㅁ를 쓴다.

E. 안되여 記法..... 右曲 ㅁ字 中間 字尾交叉 이며 活用

은 ㅁㅁ ㅁㅁ이다.

F. 아니되 記法..... 左曲 ㅁ字로 "D" 와 同様 쓴다.

G. 아니되여 記法..... 左曲 ㅁ字로 "F" 와 同様 쓴다.

H. 별만아니(一라)..... 별夾字로 "났다"와 同樣으로 쓰며 中間에 마가 올 때 은 = L 도 = 도 (復用記号) 이 = 가 夾을 각 2 口位치에다 쓴다.

J. 것이아니(一라)..... "아니라"와 同樣 쓴다.

J. 지(하지 ㅎ지)않으면..... "지않으"의 字尾 배침, 但, 活用은 "지않으"와 同이며 "않으면은" 할 때는 L을 添加 하고 "않는다면" 할 때는 하지 않 + L 다 + L 을 써서 活用 시킨다.

※ 지않는 = 지않는다 지않는다면은 = 지않는다면 + 自字.

K. 지(하지 ㅎ지)아니하면..... 20mm T字를 쓰며 活用其他는 J와 同이다. ※ 지아니한다면 = 지아니하면 + 自字.

L. 지(하지 ㅎ지)못하면..... 20mm 무字의 尺을 上例에 하며 活用은 "지못"과 同이다. 但, "면은" 할 때는 "L"을 尺자로 添加 한다.

※ 지못한다면 = 尺을 더 크게 함.

M. 기(하기)않으면..... 20mm 계字의 小尺을 楯尺으로 하며 活用은 L과 同이다.

N. 기(하기)않여하면..... 20mm 계字의 尺을 3

- mm* 半圓으로 한다. ※ 活用은 L과 同이다.
- O*. 기 (하기) 굵어 한다면 *N*의 圓을 더 크게 한다.
※ 活用은 L과 同이다.
- P*. 기 (하기) 쉬우면 *N*의 反對記號를 쓴다.
※ 活用은 同이다.
- Q*. 기 (하기) 쉬움다면 *O*의 記號를 反對로 한다.
※ 活用은 同이다.
- R*. 안한다면 아니한다면 못한다면 上位位置에
15mm 수 *15mm* 무 *15mm* 후 字를 쓰며 "면
은" 하면 L을 加한다.
- S*. 양하겠다면 (아니 — 못 —) *R*의 圓을
反對로 한다. 但 "면은" 하면 L을 加한다.
- T*. 양그런다면 (아니 — 못 —) 同 *15mm* 字 *15*
mm 구 字 *15mm* "할만한" 字를 쓰며 "면은" 하면
亦 L을 加한다.
- U*. 양그러겠다면 (아니 — 못 —) *T*의 圓을 反對
로 하며 면은 = L 加는 同이다.
- V*. 양그렇게 하겠다면 (아니 — 못 —) *U*의 記
號를 *20mm*로 한다.
- W*. 는지 (하는지) 들으면 *20mm* 母字 + 聲字,

※ 活用 上과 同이며 "면은"은 L을 加한다.

X. 는지 (하는지) 물은다면 는지물 + L다 +
L記号를 쓰며 活用은 上과 同이고 "면은" 하
면 5mm 배침을 한다.

Y. 리지 (할지 암지) 물으면 20mm 모후
+ 마 "터" 字. 他는 W와 同이다.

Z. 리지 (할 일) 물은다면 리지물으다 + L
다 + L記号, 他는 W와 同이다.

AA. 리는지 (할 일) 물으면 20mm 모후 +
送記 "형" 字. 他는 W와 同이다.

AB. 리는지 (할 일) 물은다면 리는지 물으다 +
L다 + L記号, 他는 W와 同이다.

AC. 如上 안된다 아니된다 안됐다 안되였다 又는
지않는다 지못한다 算 終言"다"에 고하면 이 을 때는 고
+L을 쓰고 고하면은 = 고 + 린 고한다면 = 2mm에서 +
L고한다면은 = 2mm에서 + 린 字를 쓰면 되며 안되 아니
되 고만 (中商上 위치) 等 위치는 亦 同樣 利用 한다. 또한
此 記法은 他 다 終言 一切에 使用 할수가 有
다.

例 文

~ 287 ~

(F G)

아니되(-다)

(H)

아니되어

뿐만은아니(-라)

뿐만도아니(-라)

뿐만이 아니다

그런것이아니라

버것이아니다

(J)

않으면

左쪽 안되位置

안된다

지 하지

右쪽 아니되位置

안될면 아니될 것이다.

(注意)

하지 않
하지 않을것이다 으르수없다

있을수가 없
저 않으면 하지만 않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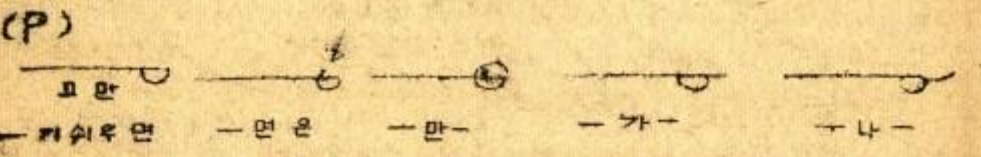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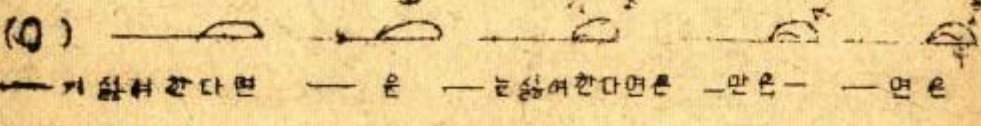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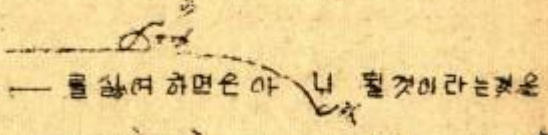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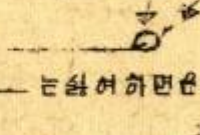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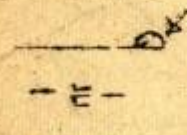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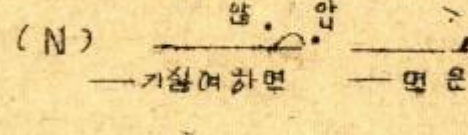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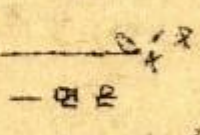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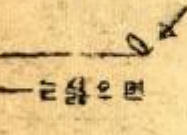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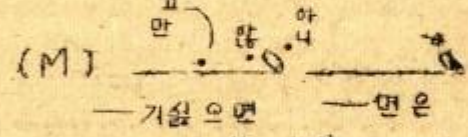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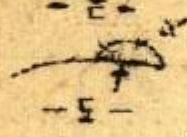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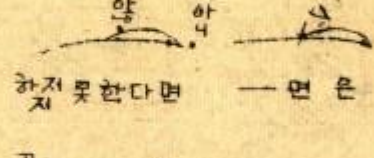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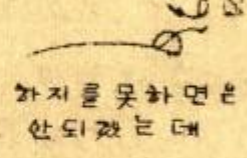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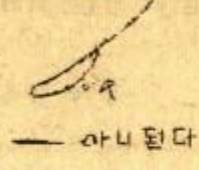
지 하지

※ 位置同
면은

하지않는다면 지

하지를 않는다 면은 안될 줄로 압니다.

하지 않는다면서



— 기나 쉬우면은 — 가 쉬우면은 ※ 中間에 語가 入時는 加算하라

— 기나 쉬우면은 — 가 쉬우면은

(Q) 고만 위치

— 기 쉬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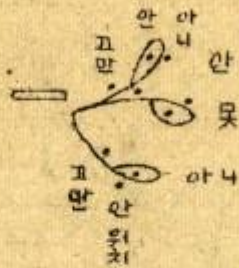
— 면 은

— 는 —

— 는 — 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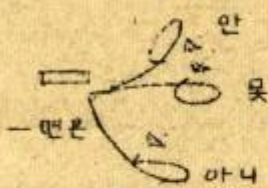
(R)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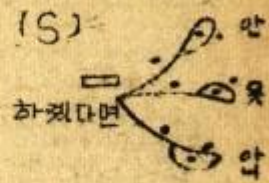
(T)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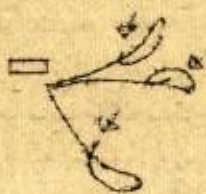


(S)

하졌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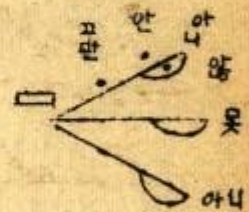


하졌다면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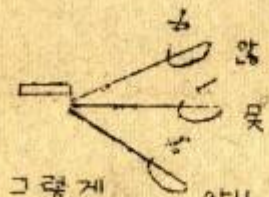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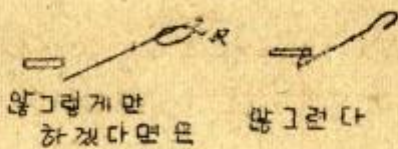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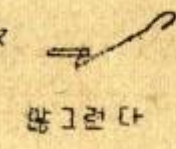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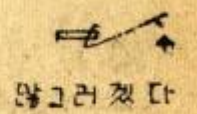
그런다면은





안그런다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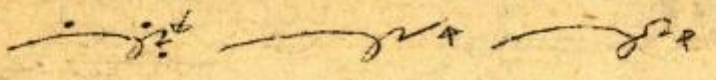




안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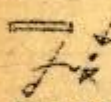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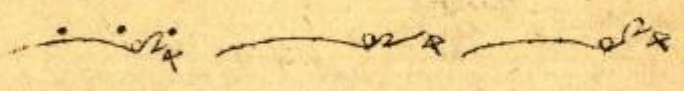





안그러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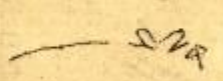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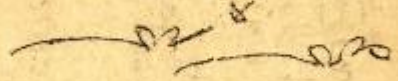
(W)  
 은지(하-)물으면 -나- -도- -면은 은지물으면


(X)  
 은지(하-)물은다면 -면은 -지도물은다면 남지도물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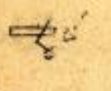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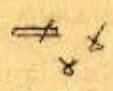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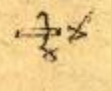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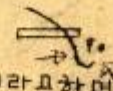
(Y) 
 리(할지)물으면 -면은 -도- -를-물-면은

 (Z) 
 리(할)물으면 리(할)지물은다면 -면은 -도-면-

  (AA) 
 -를-면은 리(할)는지물으면 -면은

 (AB)  
 -도-면 리(할)는지물은다면 -면은 -도-다면서

(AC)      
 고하면 고하면은 고한다면 고한다면은 간다고하면 오신다고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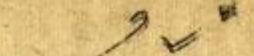
     
 없다고 - 안한다 - 안된다 - 안된다 - 없지않다 - 아니될것이다.




 것이 아니
 라고
 하면은




 지않는다고한 다



 지아니한다고하면은



 기삼다고 하면




 기삼여한다고하
 면 않되겠지



 기키움고
 하면서도



 안하겠다고
 한다면



 는지물은다고하면은

※ 各自記法權

第三節 形容詞. 動 詞의 "ㄷ", "ㄹ" 略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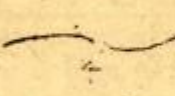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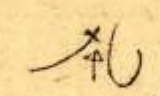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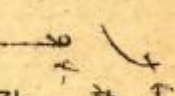
記法과 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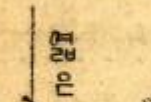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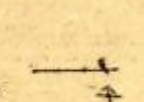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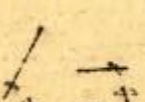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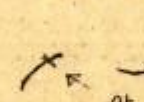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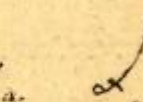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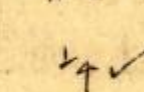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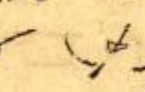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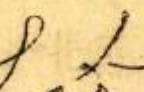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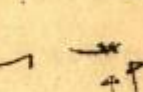


世의 "은인" 이 形容詞의 있어서는 L R 를 變化
 하여 말르은 나무 = 말른 나무 결리인 앞과 같은
 語態를 나타내고 있고 다시 動詞에서는 잡히인
 손 = 잡힌 손과 같이 廢하여 現在形을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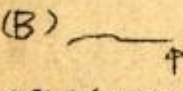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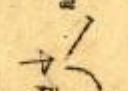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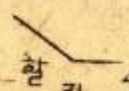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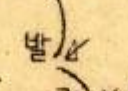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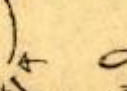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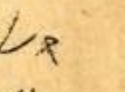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表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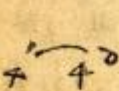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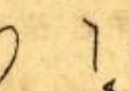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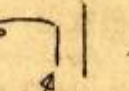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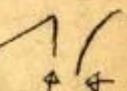


A. ㄷ記法과 終声 + ㄷ ㄷ은 L + ㄱ (倅聲字) 을 쓰며,
 특히 終声 + ㄷ은 O + ㄷ (倅聲字) 의 形
 式記號를 쓴다.

B. ㄴ ㄴ 記法 終音의 "다" 略記字中
 "ㄷ다" 記號를 같이 쓴다.

(A)     
 마른 나무 시드르꽃 말은 나무 살른 불 큰 은

      
 넓은 씩은 작은 뒤은 엷은 얇은 짙은
       
 모든 성질 골은 약속 허튼 수작 잘린 나무 얇은 몸

(B)        
 이겼다(이긴) 절린 살긴 할긴 발린 밤 하 주신

        
 제민고기 미친여자 고친다리 받친로월 곧마친월 다친팔

第四節 人地名句 俗語 筭記法

記 法

有名한 人地名 及 이나 俗語等은 그 大體가 常識圖內에 들어 가는 것이므로 持히 그 全文을 記筆 하지 않고 一部를 省略 해 버린다.

假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同價紅裳) 라는 語 라면 이러한 類의 語는 四音字 熟語의 "처럼방방" 이나 同樣 固定된 語이므로 그 一部를 略 해도 畫 文上 支障이 없다. 또한 人名 地名等 固有名詞에 있어서도 그렇고 常用英語에 있어서도 같은 取扱을 하여서 이렇게 常識化 된것을 略記 하는게 此節의 目的인데 이는 下記와 同한 區別記號를 쓴다.

A. 人名 地名인 境遇 人名에서는 姓만 쓰고 下에 道線을 거며 그 道線末에 姓名 끝字를 쓰거나 그 職位의 끝字를 쓰며 地名 亦은 初 終字만 쓰는데 持히 道名은 南道—도字 北 道—도字 南北道—초字로 中間交叉 한다.

B. 英語의 境遇 亦 初音字만 쓰며 밑에다

下曲線을 건다.

C. 句 俗語..... 初錄 되는 語만 쓰고 下略한다.

따라서 勿論 自己 識見外의 語이면 그 全部를
이하 畧음은 두말 할 것이 없다.

D. 다음에 職位上 算稱으로서는 博士 = 바字交叉
法學士 = 법字交叉式으로 初音字로 交叉하며 다
음에 長官은 L 次官 = L+O 局長 = 장字
副局長 = 부字 課長 = 가字 係長 = 계 襄務取
調役 = 저+의 常務理事 = 상字 會長 = 호字
助教 = 예字 查員長 = 은字 查員 = 안字 查員全
長 = 안 + 회 位置 + O 字算을 쓰며 以上이 算
稱이 될 때는 全部 占 變字記號를 利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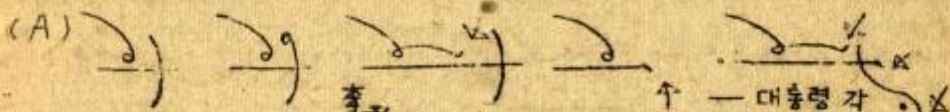
※ 各自 此式으로 略記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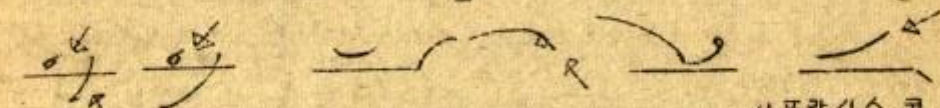
E. 政府 各部는 初音字 + 가字 局은 初音字에다가
나만(吐)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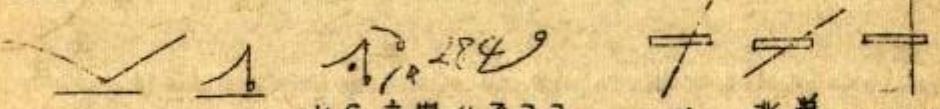
※ 各會社名 歷史上 有名한 史記 要目 大政 名稱
等々 아 물론 그 全部를 記號하지 않아도
變文時 若干의 參考로 알아 辨수 있는 語는 一切
에에 屢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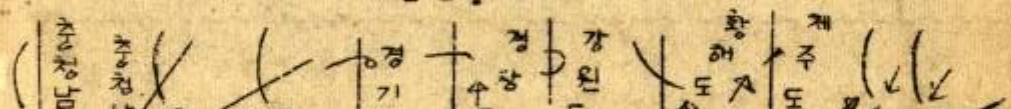
例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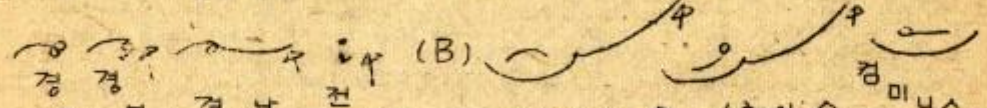
※ 以下 一部만 紹介 하겠다.

(A) 
 李博士 李博士任 李承晚 李大統領 하계음서



 김전무 一리사 아이젠하워 美大統領 로스안젤스 산푸란시스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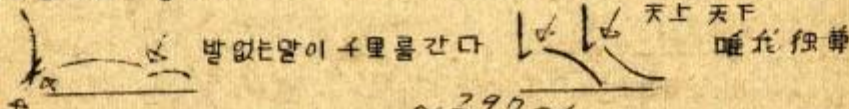

 문 동 서울 서울 특별시 종로구 南道 北道 南北道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제주도 思北 思南


 경기북 경남 전북 인푸레이 손 스테이 손 점미니스 트


 노옥별 嶺 수상자 코리아 제피 마담 군모닝 바이스 클

(C)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비류 ≡ 4 R 아나 天 獨 獨 에 연기 나라


 발없는 말이 수로를 간다 天上 天下 唯我 獨尊

인도 아세아 中華民國 비동반 인도네시아

宋나라때 朱熹는 人生易老하니 學難成이요

一才光陰 不可輕이러나
 禾不睡池 澆吾華夢 庭前梧葉 既秋 聲이러나
 勤學語를 지어 靑丘學徒의 左右銘으로

有名합니다. ↑
 ※此는 어는 俗語의 略이나 ?

다 음 은 무 순 固 有 名 詞 나 ?

다 음 은 牙 ?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examples for the word '牙' (too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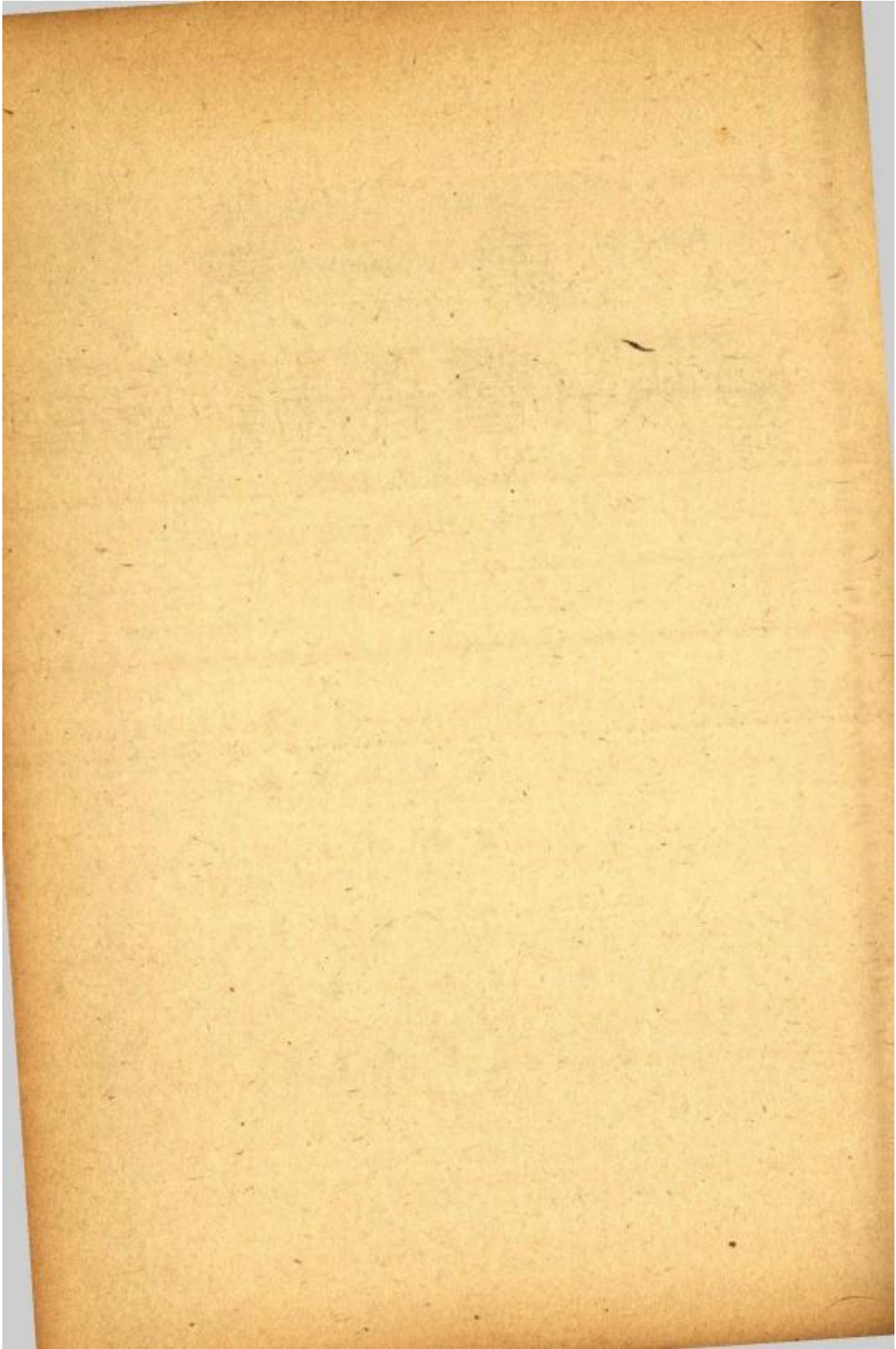
(解文) — 雄辯은 銀이다 — 말은 바로 해야 맛이 난다 — 솜
 아날 구멍이 왔다 — 말이 어둡다고 한다면은 — 사랑하라 —
 겨자먹기 — 공에 들어가야 虎兇을 연는다 — 자갈버릇 — 得男 —
 保障理事會 — 株公司 — 公社 韓國銀行 — 社 治安局 —
 오얏전고치다 — 洞峯山 — 銀漢은 三更인데 (時調全文) — 金이다
 — 차면 기우나니 — 天命을 待한다 — 기억수 — 從時俗
 — 寡婦라야 안다 — 남은 품안에 들어가야 맛이다 .

○○○○○○ ㄱ
調 ○○○○○○○○

歲 流 迅 催 促 하 니
 不 歸 此 時 刻 이 간
 榮 衰 后 々 時 否 고
 無 復 一 平 生 을
 望 虛 無 骨 子 라 。

第三篇

學號記速算式波逸



第一章 逸波式高等略字法

第一章 逸波式高等略字法

第一節 卓과 動詞 "하"

"되" 略記法 및 그 應用



























來字에 있어서나 ㅁ에 있어서나 卓에 自體 되는 位置利用에 不便을 덜게 하고 다시금 一宇를 덜어 버리기 爲 해서 다음 略記法을 定한다.





然이나 此 記法은 前者에 있었다 記法과 同樣 잘 基本的인 理記號를 把握하지 않고 無依定 外우려면 오히려 復雜만 해지나 順理로 차근 차근 略記 해 나가서 그 眞價에 損이 없게 해야 한다.

ㄱ. "전" "정" "점" + 하 (되) 記法


發 音	記 法	例	文
하	한다 ㄴㅇㅇ에	□ □	이거하다 (-해)
하다	2//// A B	하(-다) 해 하여	
해	흔을 삼.	□ < □	고정함시다
하여	하여 ㄷ 倍	-하고 -하면서	

한(-다) 참(-것) 합	字尾배침 十 欄 用	한(-다) 참(-것) 합	인정한다 고한다.
되(-다) 된(-다) 되어	하 + ㅅ쪽 ㄱ 될 됨은 熟略	되(-다) 된(-다) 되어	固定收入
했(-다) 했으 ㄹ 했음 하 ㅅ 하었으 ㄹ 하었음	하 + ㄱ 字尾배침 하 + ㅅ 하 ㅅ의 倍 하었으 ㄹ의 倍 하었음의 倍	했(-다) 했으 ㄹ 음 했었음 운전했으나 완전하 했었다	하었음 (-다) -으 ㄹ -음 고만진정 했음것입니다
해야+하 하+ㄹ+하	左便締結 但 結은 하 + ㄹ + ㄱ 上의 倍	하(-다) 하(-다) 할(-것) 함 하여야하 (-다) (-다) (-것) 함	해야만 합니다 -만함(-다)
해야+되 하+ㄹ+되	左記 男의 右 便締結 但 結 = 하 + ㄹ + ㄱ 上의 倍	되(-다) 된(-다) 될(-것) 됨 하여야되(-다) -됨(-다) -될(-것) -됨	해야만 될것이다

되어야 + 하	되어야 하 記法					
되어야 + 되	되어야 되 記法					
했어야 + 하	20mm 드음 利用					
했어야 + 되	20mm "터 "터" 字利用					
하였어야	했어야의倍			活用上同		
된어야	했어야 + ㄱ			活用上同		
되었어야	하였어야 + ㄱ			活用上同		


 작정하여) 조정
 야만) 되어야

 된다) 할것을

 규정했어야한다

 제정
 했어야
 될것을

* 如上 해야 하다 以下의 것은 他語에도 使用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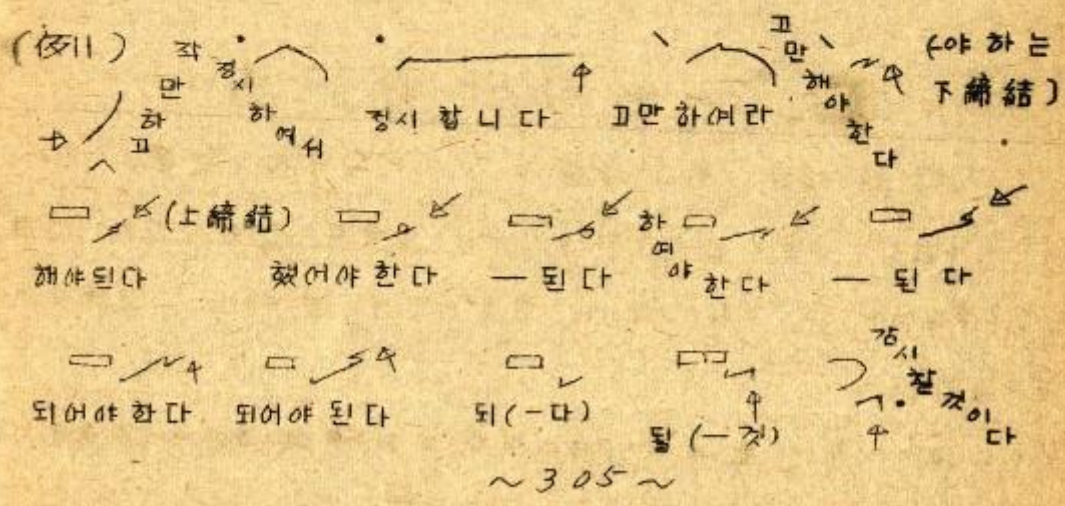
(例) 
 중지해야 한다
 
 강구해
 야 된다
 
 청련하
 여야 한다
 
 성
 공했
 어야
 합
 니
 다
 성공했어야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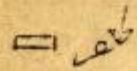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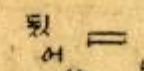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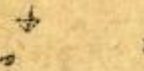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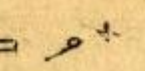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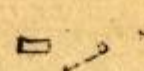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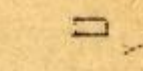



L. "만" "시" "명" "업" "等 (中 上 上 上) 파 "하" "되" 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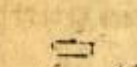







此 記法은 上 點 + 하 記法을 利用 하(서) 記号의 方 向을 달리 해서 略化 하려는 것인즉 前 記法에, 익숙 해진 然後에, 前 AB 方向을 AF 方向인 2mm 리터를 記号 삼아서 前記와 같이 活用符号를 作成 해서 쓰면 된다.

따라서 說明은 略 하고 若干의 例文 만을 들 어 보겠다.




 되 
 어 
 야 
 다 
 하 
 여 
 야

되었어야 한다 되었다 하였어야 한다 되었어야 한다 하였어야 된다


 되 
 었 
 어 
 야 
 다 
 하 
 여 
 야

되었어야 된다 면명해야만 됩니다 분만해야한다 하여야 될것이다

※ 各 自 記 入 補

□. "가 + 하" 되 略記法

前記와 同히 "한다" 位置에 2mm 거 字를 記号로 用什
 인가한다 하면 인+한다 + 2mm 斜字를 쓰면 되며 活用
 (記号의) 亦 7과 同이니 各 自 7에 詳 해什 依 此 字 기
 바 란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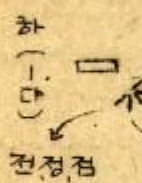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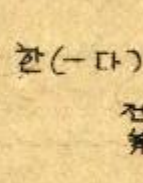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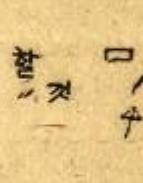
持히 改야 한다 = 2mm 거 字 下 續 結 2mm 斜字로 하

고 上 締 結 을 된 다 로 하 는 것 만 留 意 하 면 누 구 나 依 成
 이 될 것 이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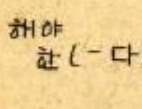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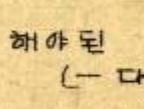
2. 他 位 置 + "하" 되 略 記 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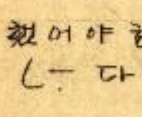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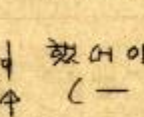
이 는 同 位 置 에 서 殘 余 符 号 인 AD AC 외 各 2mm 直
 線 을 利 用 하 여 AD 는 直 綫 畵 AC 는 卍 符 號 記 號
 수 가 有 른 則 此 亦 各 自 記 例 를 依 成 可 기 바 랐 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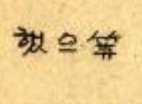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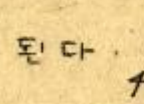
例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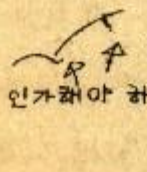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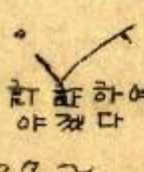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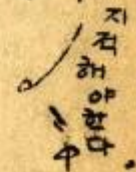
하 (一 다)  망 시 명 명
 가
 직 綫 畵
 기
 전 정 점
 한 (一 다)  만 符
 가
 직 綫 畵
 전 綫 畵
 기
 할 것 

但 一 點 (一 點) 만 은  할  될 事 를 쓴 다 卍 

해야  (一 다) 해야 된  (一 다)

했어야 한  (一 다) 했어야 된  (一 다)

했으 卍  된 다 

인 가 해야 하 겠 다  하 겠 다  하 겠 다 

가, 계, 과, 하, 여, 서

거기 와 어야 만
 차 네
 정 계
 해 야 겠 다
 정 과
 해 야 하 고

순 순 하 여 서

※ 各自記入補 (注意) 處 = 有

第二節 漢音의 訓諒 利用略字法

여기에 終聲을 우리 말로 直譯 하면 마지막 소리가 된다.
 卽, 마지막 나는 목소리를 漢字로 終聲 이라고 幼穉
 슨 말은 외 하느고 하니 뜻은 漢字 音은 이렇게 말
~~解~~가 縮少되는 것인즉 辭放而 우리 말을 찾자고
 해서 純全히 訓諒으로 漢語를 解釋 하고 보니 그야
 물론 무슨 말인지 臆絶할 노릇이었었지만 結局 漢字

는 낱말로써 훌륭히 個々人의 意思를 表現 하되 漢語의 單語는 이미 우리말로써 語彙의 數價가 半減된 것이 許코 하여 그저 그러한 意의 範圍內의 뜻을 쓴 셈 하고 있는 말로써 해 버린 것이 現今 우리의 常用 漢字인 것이다.

換言 하면 여기의 "쓴셈" 하면 한 말로 쓴다는 말이 된다. 쓴다면 物什을 쓸수야 있지. 뜻을 쓸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뜻을 쓴셈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 말로 形容 하면 뜻은 맘속에 품고 (지니고, 들어, 갖고) 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쓴셈이란 말과 비할 때 大端히 먼 距離에 있는 말이 된다. 쓴셈이란 마치 입에다 살그머니 形体 없는 그 무엇을 물고 입술을 살짝 다물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싸 버리듯이 隱然中 보드랍게 싸여 있는 現象을 나타 내는 말이다. 이 말과 뜻이 섞이여 있다는 意 쓴셈과는 實上 우리 말의 直截的인 適格語가 아닌 만큼 이렇듯 漢字語가 우리 말로 利用되는 면과 그 直截的인 解取과는 言語의 意蘊이 判異 하다고 볼수가 있는 것이다. 漢字에 있어 漢音字로서의 使用能便을 爲主한 訓讀의 大略 우리의 民族語를 基本 삼는 것은 固知의 일이다.

따라서 이 現象은 避利用 하여 漢字의 音을 記하고 그 訓讀으로 遷文 시키는 卽 우리의 語를 該當 漢字의 音을 表記 하므로 卽 略記化 하려는게 此 略記法의 目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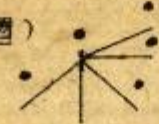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말로 "가르친다" 하면 該當 漢字로 卽 "敎"字가 있으나 "가르 친다"라고 두 記號를 쓰느니 보다 "교"字 한 記號 만 쓰면 그 만큼 速記上 利得이 있음은 勿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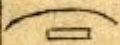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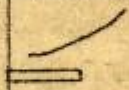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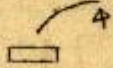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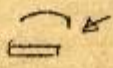
然이나 此 漢字音 利用에 있어서는 用言의 語彙에 注意 하여 終音 "다"로 固定을 시키고 L 다 = L 다 記號 ㄹ(ㄹ겨) = ㄹ ㄹ = 소의 記號를 쓰되 勿論 此 記法 利用 略字보다 速度性이 있는 것으로서 簡記가 緊要한것을 避用 하여 遷文上 支障이 없는 限 利用 해야 된다.

또한 名詞에 있어서도 略字法에 該當이 되는것을 卽 허수아비 (備用) 따위는 此 記法에 依據하지 말것은 勿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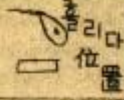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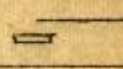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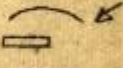



記法 例文

此節의 略記字는 辨히 卽 "이"여, 位置에 該當音字를 記하여 他語字와의 混淆를 避하면 되는데 記字는 兼用字는 되도록 避함이 가능하다. ~ 310 ~

(位置)  가르치(-다) 가르쳐 가르친다 가르칠(-것) 가르침 가르치면 가르치면은 가르치고 가르쳐야겠다 가르쳐야한다 가르칠수없 가르치지아니하면은

時 語	記 号	例 文	時 語	記 号	例 文
무름 스고	冑		날라가다	飛	 허름프다 活用
그림자	影		살라버리다	燒	
다리	橋		몽기그릇	羹	
저녁	夕		복송아	桃	
모름지기	須		얼골	顏	
마지막	終		계집	女	
서로	互		돌아가다	歸	 活用
벌어먹다	乞	 活用	범쳐흐르다	溢	 活用

略語	記号	例	文	略語	記号	例	文
기득차다	滿		活用	마루바닥	廊		
오래도록	久			나그네손바닥	旅掌		
오래간만에	久			구루마	車		
기가막혀(-히다)	息		活用	어루만지다	撫		活用
기가막히게	"			귀신	鬼		
숨이막히게	"			물씬들다	無漏		活用
숨이막혀(-히다)	"			바늘	針		
소나무	松			갯난아해	兒		
회오리바람	颶			돼지	豚		
책을읽다	讀			꾸지람을듣다	叱		活用
움직이다한가지	動			찍어눌르다	壓		活用
걸어다니다	步			숫가락	匙		
흔들리다	搖			젓가락	箸		

略語	記字	例文	略語	記字	例文
버드나루 노를	柳 淚		도라다보단	願	
※ 以上 字法에 準해서 各處 몇々 依成을을 許한다.			도리켜보다	〃	
가라사되	田		자나치게	廻	
눈동자	瞳		바라보다	望	
구슬	珠		바라다보다	〃	
가다리다	符		※ 各自 記入 欄		

第三節 二音吐利 用略字一覽

吐利 二音의 것을 가지고 各詞 略字로 利
用 할 수가 있다.

吐	略字	記号	吐	略字	記号
보 다	羨 答		이 자	椅 子 利 子	
까 지	持	가지고 가졌다	이 지	依 持 連 志	
대 로	大 路		하 사	下 士	
하 소	하 소 연		하 수	下 水 下 水道	
하 나	one		이 리	이 리	
이 마	이 마 河 馬		하 기	夏 季 下 界	
이 미	意 味				
※ 各 自 記 入 欄					

第四節 句略記法

利用略字一覽

記法 及 例 文

한 文 體 語 句 가 거 의 固 定 되 어 나 오 는 境 遇 (이 境 遇 은 各 職 場 別 로 各 種 常 用 各 語 가 따 라 있 다) 에 는 마 치 美 語 에 U.S.A 라 고 쓰 는 式 으 로 各 單 詞 의 頭 字 만 付 錄 고 圈 字 를 20mm 圈 字 로 들 러 싸 서 略 字 化 法 을 採 用 하 는 것 이 다 .

다 음 은 그 片 鱗 만 記 載 보 겠 으 나 各 自 職 場 常 用 語 別 로 依 成 하 서 使 用 하 기 바 람 다 .

巴里電 26日

AP 合同 通信

1 26 \ (b)

— 通信 報 道
에 依 據 則

傳 警 合 同 搜 查 本 部

出 入 記 者 團 과

財 政 經 濟

會 見 席 上 에 서

演 說 委 員 會

京 城 電 氣
株 式 會 社

滿 場 의 紳 士

淑 女 界

※ 各 自 記 入 欄

第五節 理外簡記號一覽

略字의 出處를 說明 할수 없는 略字를 畧커리며
速記上 略字化를 圖 하려 해도 四上 略字法式에
抵觸이 안되는것 몇々를 추려서 比에 畧으로 例차
를 두는 바인데 勿論 個人의 模倣을 極히 制限해
서 逸波式의 傳統에 處긔 없게 해야 하며 不
規則略字란 正히 極力 必要한것 몇語에 不廻해
야 爲다는 拏論을 固定化 시킴으로 써 速記學은
그 學的인 面이 永久히 生長 하여 나가는데임을 認
知不忘 할것을 再々 強要 하는 바이다.

繁言 잡으나 速記號는 恒用 熟練字 및 一定한 法式
이 樹立 되어 있어 그 略字의 途程 卽 理由가 分明
한것이라야 遷文이 可能 하지 非然인것은 一時的인
略記號에 不廻 하여 結局은 自己自身の 前途를 亡
지고 該 法式마자 模倣 시키는 筈 아닌 結果가 必
至하게 되는나 만큼 重言附言 함을 正認 하여 少聲의
어긔도 없게 해야 諸君은 所期의 目的을 無難히 達
成 할수가 있는것이다.

速記 習學者가 約 2500 이고 쓰게 되면 마차

渴喉者가 冷水를 欲求 하듯이 無限定 略字를 與
 버여 자칫 하면 道理에 벗어 나는 路로 轉리는 弊가
 生하는데 이를 善辨 하는것이 前述한 모든 略字法 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諸佐者의} 前轍을 識지 않으려면 모
 름지기 此言을 領心 하여 例外 略字의 與欲을 前記
 略記法에서 求할 路를 模索 하는 者만이 速記能기
 者가 될수가 있다는것을 充分히 心中에 鑒戒 하여
 나가기를 - 바란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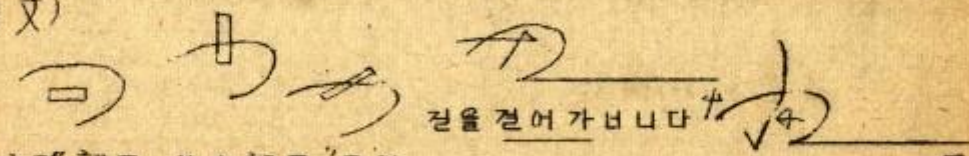
略語	記法	記號	略語	記法	記號
感謝	2.5mm 강	o	음	2mm 사마	o
가장	강	o	본분	15mm 분	
가운데	中向上 찍크		炭 入	15mm 분	
향약	강 기	o	炭 出	15mm 분	
더구나	던 + ㄱ	✓ ㄱ	밤중	5mm	?
더군다나	더구나加貞	✓ ㄱ	炭 月	15mm 할	
더더군다나	분 + 加貞	✓ ㄱ	生活	10mm 생 字 頭 無	
다음	츠	↓	생각	ㄷ 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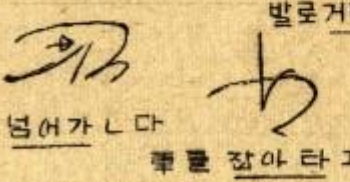
略語	記法	記号	略語	記法	記号
동안	L 中 固 文 又		생각하여		
민족 민족	문		여러가지	(여러 + 까지)	+
無責任	정외字尾 無字 + L		수단	속의字 尾 배림	
責任	책 + L		오늘 오늘날	오늘을 5/21로	
지급	口 + 口	8	以上	中 固 上 2.5mm 이	
조금	2.5mm 방	0	以下	中 固 下 2.5mm 이	
하물며	야 라		會 談	예	
하여금 하여튼	요이 + L		年 度	"만" 同	
학 校	2mm 터디 + 비		會計年度	회 + 년도	
학 生	2mm 터디 字尾 出		最 大	基本주序 외 及 對 円	
여러분	一部 省略		諸 君	야 + 문	
※ 各自記入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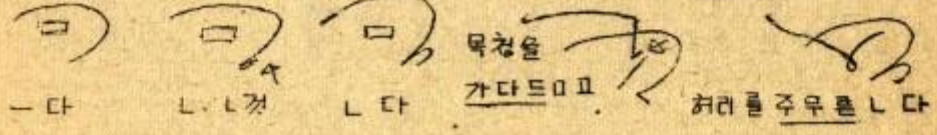
第六節 用言略字法

語加 았어서는 前 四音字熟語와 同様 恒用 前 語에 따르는 固定 된 后語가 許容 하다 假令 發 聲 (動足) 하면 한다(徵)는 말이 联想 되며 汽車 하면 한다(乘)는 말이 联想 되는데 이런 類를 捕捉 하여 后語가 略字化 시켜야 겠는것을 略記 하고저 함이 比節의 目的인데 이 記法은 后語가 名 詞가 아니요 用言이기 때문에 그 語의 意味이 全 함이 問題가 될것이니만큼 訓讀利用 略字에 準 하여 什 現在 (L다) 過去 (쓰다) 推測 (ㄹ) 程度로만 쓰도록 制限 함이 可하다.

(例文)


 用言略記号 基本記号 "모자" 발로 거터차
 로 둘러싸거나 交叉 함. 但. 三音節 以下 不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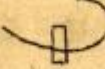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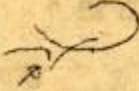



 산을 넘어가 L다 책을 잡아 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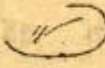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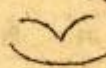

 - 다 L L 것 L 다 목청을 가다 드미고 허리를 주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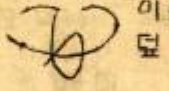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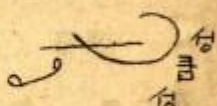


 人(人)을 물리치고
 2 2것 ㄷ

●-는다 記号





 人(人)을 막치고 間(間)을 날른다
 머리를 꺾는다 소리를 집는다





 손을 잡는다 口(口)을 물건을 찾는다 口(口)을 풀는다 口(口)을 닫는다




 두도막으로 잘른다 처(處)를 돌른다 이(耳)를 덮는다






 手(手)를 앞(前)에 댄다 手(手)를 뒤(後)에 댄다 口(口)을 감(閉)는다 口(口)을 감(閉)는다 口(口)을 감(閉)는다

※ 各自 記入 機

第二章 言語速記號文体一覽

第二章 言語速記號文体一覽

第一節 論文体速記文

論文体는 日常 우리의 言語와 呼려 文体로서 가장
듣고 매만졌으며 難語를 많이 挿入 한데다가 終言의
가 依例 "이다 하다"로 끝 나는것이 그 特徵이
여시 寔地의 言語速記와는 달리지만 이러한 論文章의
速記能기 甚 라야 他 速記에 있어 훨씬 뛰여난 字數的
能率을 올릴수 있는것이다.

然인 則 單語의 練習은 늘 論文体에서 求 하고 마와
"하" 記法의 練磨는 演語体에서 求 하여 双方이 一率
的으로 能達하게 練習을 하여야지 쓰기 쉬운 演語体
에만 留意 하면 效果性으로 보아서 時日短縮은 勿 惜
수 있겠으나 自己의 寔力面에서 感心할 效果를 勿
올리는 터이니 習學者는 모름지기 速記면 무슨 語体
든지 무슨 文章이든지 偏癖 되지 않게 工夫 工夫
써지도록 留意 하여 尙或 學院이나 學校에서 教學에
不備 하여 一方的으로 치우치는 傾向이 有 하여도 그
그릇은 自身 描寫는 거나 自身 個人이 따로 論文体

小説體練習은 兼行 하여야 乃終에 自身에 裨益 實
은 勿論이다 .

더욱이 論文體 練習은 常識面의 範圍에 在り 演譯
體에 比 할바 못 될만치 飛躍的인 發展을 隨然中
養成 시켜 주는 特性이 有 함을 알고 政治的 社會的
인 것에서부터 學的論文에 이르기 까지 數 많은 雜誌 新
聞의 文化面 社說等 어느것이나 가리지 말고 速記練
習의 対象을 삼아서 速記符와 常識을 아울러 膨脹
시키는데 怠慢이 없기를 期 해야겠는데 왜 그러나 하
면 人語의 記錄은 그 發言人의 意思 表語를 알아
듣지 못 하고서 尙히 速記가 出来る 萬의 一의
例外도 不許 하는 바이므로 이고 또 速記人이란 他人
의 演說이나 朗說이나를 笑論하고 一語 一語를 배
놓지 않고 記號 해내려는게 그 業인지라 普通人이
大層 難 (不得 一語 一語를 꼭 들으려 애 쓰지도
않으며 或時 잘 못 알아 듣는 말이 有 해도 無
心 하지만) 듣고 大意를 把握 함으로써 足
하는 것과는 그 殆 殆 原因가 判 異 함을 自覺 할진대
聽取的 環境이 아주 不良 해서 알아 듣지 못 하는
境遇에야 不可避 하겠지만 其外는 其 演者의 高語

이제 다시 (終結) 換言하면 韓日 關係의 發展은 日帝로부터의 解放으로 開始하여 今으로서는 國土 兩斷 越傳의 三年 有餘의 多量 (精多) 事實이 現 實 等이 多量 그 中에서 韓日 關係의 發展은 1945 年 2 月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2월 15 日 世界 史上 最大 最惡의 變故였던 것이니 同 極 定에 決 定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그 中에서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韓日 關係의 發展은 韓日 協定에 由하여 決定된 事 實 等이 多量

第二節 對話體速記文

文學的인 語와 講演體인 語와도 또 달라 對話體
란 우리의 日用語體를 말 하는 것이어서 中聲音이나 口의
使用이 相當히 많은 變化를 가지고 있는 것이 對話語의
特徵이다.

더우기 地方語에 이르러서는 標準語使用者로서는 語
處不解의 例語가 相當만큼 이에 對한 練習 亦은 論
文體 다음 가는 重要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무릇 速記學의 驅使對象이 演語體記錄이 例事
이기 故로써 此 語體에 對한 練習이 尠은 使이
一般的으로 發見 勿得인데 이것도 習學生으로서는 大
錯誤이다 왜냐 하면 우리의 演語란 尊嚴語法이 固定
된 一種類가 아니요 “습니다” 式을 떠나서 對話의 “오”
式 語를 混入使用 하는 것이 恒例이니만치 此을 말 對
話語體 練習에 能熟하지 못 할진대 演語體 速記에
미치는 影響이 클것은 勿論이며 다시 對談이나 座談
辭談等 又는 台詞速記等에 있어 失敗를 보아 未熟速
記人의 衰稜를 不免 일지니 論文體와 對話體 (地方
語는 次要하고라도) 에 于先 能熟한 然後에 演語

体로 음감이 腹理음을 強調 해 둔다.

이 語體練習은 小説과 戲曲은 対象 삼음이 露다.

(特發) 담배 피고 싶은데
안해 「담배는 취성상 좋지 않아요」 남편

오늘 저녁에는
안해 「영화는 교육상」

내일 저녁에는
안해 「초대가 있어서 오는 시간이 좀 늦게 오」

.....
남편 「여보」

.....
안해 「小説은」

.....
(註) 對話의 性別 또는 時은 必히 初頭에 記入하고 表示를 할 것.

너들거라 요만한 어린놈이 감(最히) 일군을 소란하게 하니

죄당만사라 (終略) 러 때 물고 물 (너와) 내려와 수 죽은 에 사코이 불상한 지라

잠깐 유 주는 것이니 여한이 있거든 빨리 말하랴다

사사 밝고 밝으신 사또안전에 소인이 온 들은 무슨 원한

이 있어오리 개명은 단 원스러운 것은 상놈으로 대며 (하여서) 재주를 펴지 못하고

게 죽 음하 나 이 유 한 이 을 사 다

中央力 55万으로
佛國에는 65万을 最大限으로

設定 참시마하고 提議하였읍니다
그런만큼 이들 數字亦是

現 情勢下에서는 滿足스러운것이 美國은 수 권이층 소의 들이 있고 으며
아니라고 생각한 다고

美國 則으로 앞으로의 予斷을 不許하는바입니다.
縮에 한 의 突度는

仁川 港 東 洋 仁川 地区 自由 勞組 賃金 引上 與 待遇 改善

4/16 仁川 地区 1200 名
印 爭 在 員 會 自 己 的 條 件 이 徹 底 되 겠 을 때 에 는

再 廣 明 告 白 (部 音)
勞 務 者 釜 山 地 區 의 20000 名 이 一 時 에 罷 業 을 斷 行 하 는 基 本 方 針 을

第四節 演語 速記 文

所謂 雄辯家의 演語와 討論의 報告式 演說과 呼訴式 演語와 答答式 演語 祝賀弔哀式 演語가 各々 色이 다르지만 가장 까다로운 것이 會議席上 討論일 것이다. 여기에는 瞬間的인 感情 激憤이 섞이며 言語의 條理 마자 못 하는 境遇가 있고 數人이 白面 曰否 하는 騷擾까지 일 때가 있으니 速記가 難라지고 前後分別이 顛倒 되는 이러한 境遇에도 能히 沉着 하게 言錄을 내는 것이 速記人의 技術이나 만치 演語 練習에 있어서도 式辭 祝辭 紀行이나 兒學報告演說이나 牧師의 說教 教授의 講義나 學生이나 一般 雄辯大會 政治講演會 模擬裁判 演說等々 大衆을 相次 佔는 演會에는 不 變히 다하여서 速記 實力を 培養 하도록 할진대 演語의 各種 特色과 用語가 細아러지고 어느 式場에 든지 參席 하여 速記 實력을 질러 나가면 式辭까지 能熟하게 되려니 이만한 誠意 없이는 速記 能力者가 되기는 어렵다 하겠다.

附白 速記士 不足으로 學場에서 國會錄 練習으로만

第五節 會議體速記文

于先 會議의 主眼點 參席人員 發言者의 語彙等 이
리 參考될 予備知識을 갖추고 聽 함이 賢明한 事
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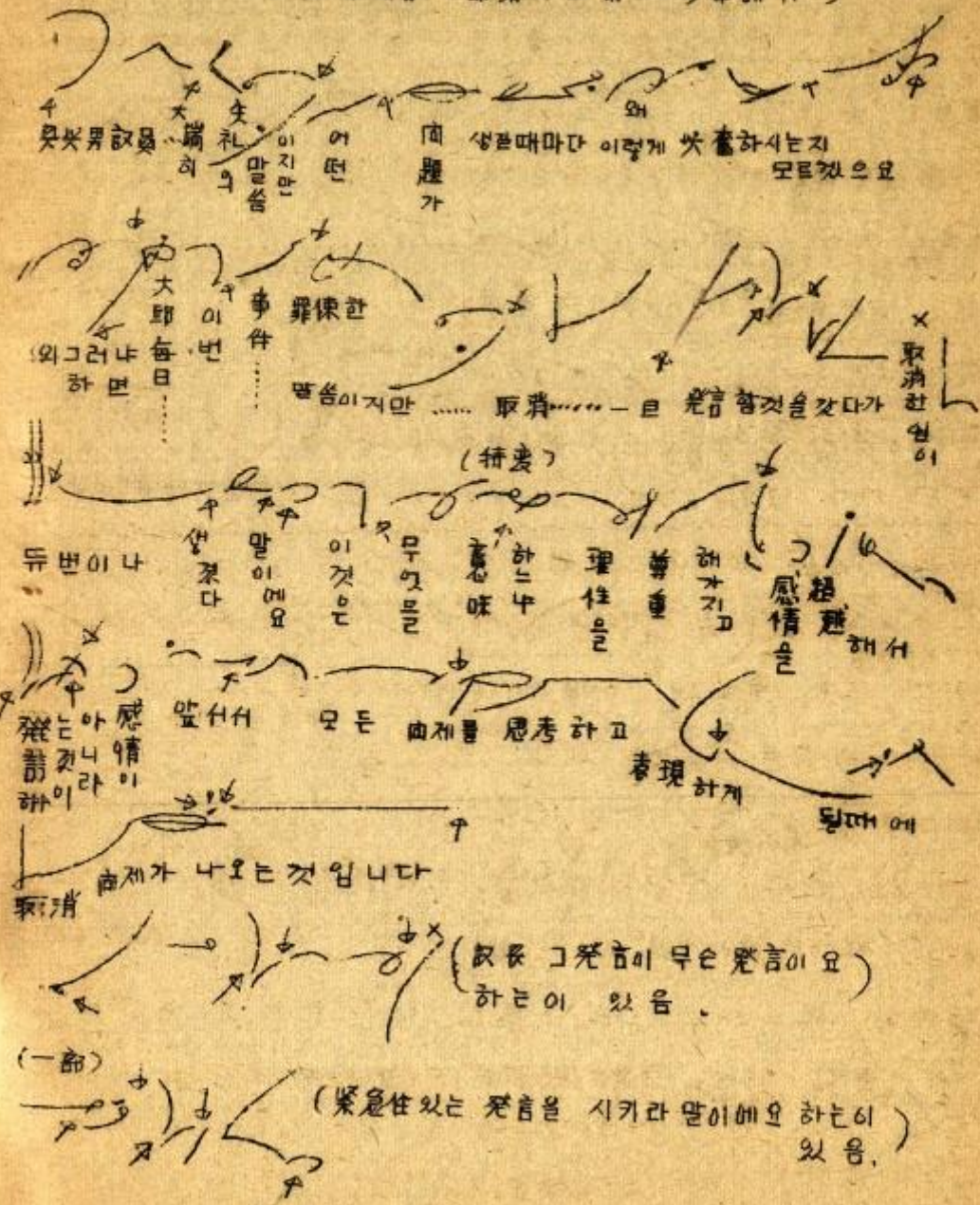
座談會等 司會者가 指名式으로 發言 함을 記錄
함은 쉬운 事이나 이 때 參席者가 많으면 個人에
게 席次表를 과 두고 發言者를 聽임 後에 記錄
함도 한 手段이요 其他 總會 같은 大會場이나 國會
같은 會議 席에 在는 發言者 外로 聽取者들의 動向
聲音 까지 記錄 해서 會 進行의 全貌를 鮮明히
밝혀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筆音은 在口時 映函의 台詞本 作成事務에 從事
하던 일이 있는데 當時는 "구두 소리" "복음 소리" 같
은 一功音을 記錄 後에 辨至於는 "徹리프" 와
노어의 混聲區別까지 有. 된 일이 있다.

이와 同樣 會議錄이란 그 會場의 動向이 나
라나 있지 않으면 單 記錄이 못 됨을 自覺 하여
慎重히 聽 하고 다시 速記士라 記錄의 責任을
저시 聽임 없는 會議錄을 出 하는데 있어 全才를 傾

注 하는 義務感 아래 日常 業에 從事 해야 한다.

(4288年度 民院 本會 議 一節 第 2/回 第 32号 中 에 서)



未定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말씀 드린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지만 결론은 긴급입니다. 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방향을... 處理方案

이 (1라)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尹亨南 議員은 失當 하셔서 (1지) 치 시 나가

尹亨南 議員이 所屬해 있는 黨 黨 黨이라고 할 것 같으면 大體 適合이라고

光復 集合 事件이라고 하는 리이드 하지 않는다고 自發 합니다

왜 爭가 崑山 叫 動 鼠 一匹 格으로 단을 쳤지만 결론은 무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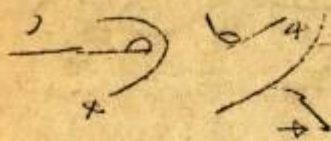
내렸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行政府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하는이 맞습니다)

(別 야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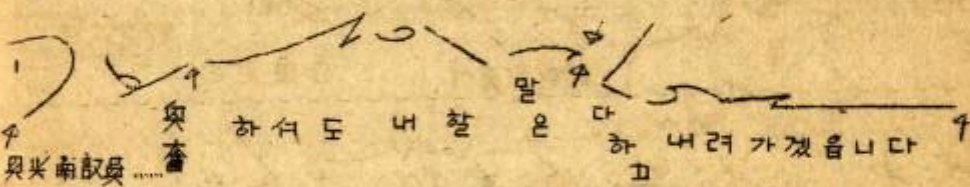


曾家挂 叔賢 吳奮 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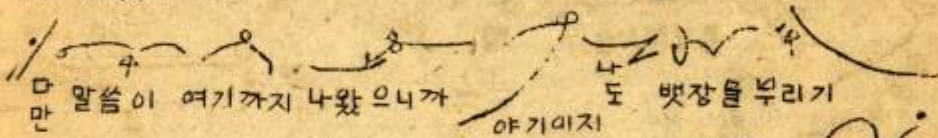


叔賢 (李起鵬) 조용들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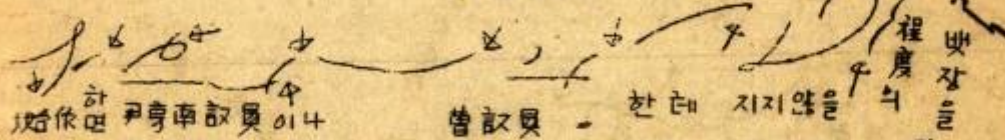
(取消 해라 하는 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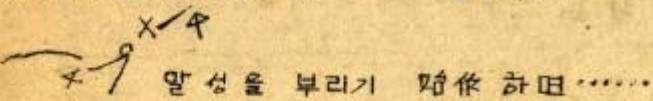
吳興南 叔賢... 吳奮 하셔도 내 할 은 다 하 내려가겠습니다



만 말씀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야기이지 나도 뱃장들 부리기



始依면 尹身南 叔賢 이나 曾叔賢 - 한테 지지않을



말성을 부리기 始依 하면.....

程度의 뱃장들 가지 않고 있고



(場內 騷然)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arrows indicating pitch and rhythm.

政見發表하는 場所로 利用

하지 말자 이 말이 예요.

(大端히 고맙습니다 하느니 앓음)
(습니다 = 고맙습니다)

(9)

(笑声)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座談會 録 申 一 部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with Korean lyrics and annotations:

저 회 구 러 으 로 오 습 始後 하겠 습니다 여 러 先生 任 께서 오 이 같 이

(하+ㅁ = 하시고)

하 日 不 順 하 고 한 우 忙 (산 데 略 字) 바 나 주 셔 서 大 端 히 慶 謝 합 니 다.

더 옥 이 高 麗 大 學 의 李 先 生 任 께 서 는 發 せ 부 러 참 으 시 다 드 니 出 席 을 不 可 하 신 다 는

이 言 이 게 셔 서 大 學 에 向 せ 不 得 오 는 아 기 中 申 이 省 師 이 되 게 되 여

매우 遺憾 千萬입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第十年 초봄 되시는
金先生任任께서 부러

학생들의 謝
수일의 謝
이런것을 主題로 말씀 해주셨
하겠습니다

尹先生... 네
장向만 道단히 죄송합니다
尹先生... 무슨 말씀이신지 마시고 하시지요

尹先生... 高 大學先生任代理로 거 吳先生은 高 田 録이 잘못인데
代理行使는 못 하실는지?... 이

尹先生... (笑) 아는 대로
말씀 하겠습니다만
不 完 全 한 代理 라는 것만은

(지 말으 = 지 말아)
엇지 말아 주십시오
註 (必 必 必)
必 必 必 (시 위치하시오)

附 錄

~ 343 ~

附錄 其 一

實務와 原稿作成要領

實務上 要領

다음 諸點에 極히 留意 하여 尹牙하기 바란다.

A. 平常時 練習에 있어 論文体가 十分時 2800字
以上 完全 記錄 되고 다시 還文 해 봐도 誤
字가 極히 적은 者는 卽 어는 全場에서나 漢
語記錄에 있어 實기를 登擗 할수가 있다고
自覺自覺을 가질수가 있다.

※ 勿論 練習時 어는 一人의 音聲으로 같은 語文
을 2800字 程度로 씬을 말 하는것이 아니고 누
가 읽던지 어는 論文이던지 非露內的用語를 除
하고 同樣記筆 되어야 된다.

B. *roqagram* 은 될수 있는 限 다닥 다닥
그 向隔을 좁히여 紙面浪費를 막고 時間消費
를 덜며 또한 速記文体에 美의 藝術的 面을 주도록
해야 하고 一 旦 誤記해서 지운것은 完全히 거우
로 크게 지울것이니 이는 還文上 實 하나 位置

의 請 寢에 機敏 해야 한다.

D. 演 語의 題 取 條 件이 가장 좋은 자리를 取 하며 精神 記一을 期 하여 周 圍 環 境에 無 礙心 할 것.

E. 心 身을 溫 雅 하고 端 正 하게 가지며 衣 服 차림을 紳 士 답게 하여 衆 人 에게 凶 잡히지 않게 할 것.

F. 正 治 題 取 不 能 인 處 又는 會 內 用 語 나 初 聞 인 人 地 名 等 固 有 名 詞 은 后에 演 者 에게 조 용 히 물 어서 알 後 會 를 가 緊 으 로 卬 記 錄 의 責 任 을 克 遂 할 것.

原 稿 作 成 要 領

다음 請 寢에 特 히 留 意 하라.

A. 原 稿 用 紙 記 入 格 式 을 守 守 할 것.

B. 楷 書 로 쓰 며 請 求 者 의 意 見 을 들 어 修 正 (守 句 又는 文 章 面 에 서 너 무 어 긋 나 言 語 個 所 의 是 正) 을 要 求 하면 作 文 이 아 니 라 實 語 文 記 錄 다 爲 기 言 語 를 十 二 分 詳 悉 가 며 提 出 할 것.

C. 一 切 一 個 人 意 見 을 補 入 하 거 나 하지 勿 고 誤 字 가 없 게 할 것.

D. 必 ず 시 記 錄 日 時 演 者 (會 談 나 座 談 이 면 參

和員 名單) 場所 所要時間等은 原稿初頭に 註
할 것 .

五. 平常時 作文練習을 많이 해서 文章力을 培養 하므
로 俚 俗 條理가 있고 修飾이 豊富한 文기을
갖도록 注意 할 것 .

附 錄 其 二

速 記 士 의 衿 持 論

識 見 과 人 品

비단 速記士뿐만이 아니라 모든 識者가 한결 관이
지녀야 할 處이라겠으나 人品으로서 第一 善惡 處이
野卑한 行動과 阿附 阿諛 阿諛의 族屬과 非良心的
인 虛僞로 佞倖 하여 一面二心之行動 (속달르고
겉 달른 것) 을 일 삼는 者들이 다 .

古來로 一王이 亡하고 一國이 亡하며 一家族이 滅
族 함에 있어서 이런 類의 惡者가 介入하지 않은
예가 없나니 이는 人品으로서만이 아니라 哺乳動物
로서 보아도 가장 劣等에 屬 하고 오기려 數寄生物

보다도 못 생긴 存在인데 그래도 社會에는 純眞한
良心이 이러한 面으로 볼 得기 쉬운 傾向이 많고 게
다가 知識과 實見으로 屢인줄 認知 하면서도 (无來
天賦이 이런 面으로 가기에 適合한 人間性을 가진
者도 많지만) 私利를 爲 하여 卑劣히 取行 하고
反省이 完한 地境에 이르게 된 者야말로 社會의
福이면 福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類人일수록 實力을 無視 하고 名
譽之欲과 虛欲貪欲의 불덩어리 같은 化身이 되어서
他人의 模倣을 일 삼고 中傷謀略의 能手를 속으로
挾藏 하며 同僚를 못살게 굴어 겉으로는 同情
하는체 속으로는 망거스릴 機會만 虛視耽々 노리고
있는 心情의 所 有者 이고 보니 이런 者가 끼인 固體 職務
事務所란 每事에 不平不滿과 人評과 勢가 다름이 벌
어져 제대로 일이 되지를 양고 團和隔合이 버림이 나
서 公財 私的으로 能率이 못 올르고 結局 社會屢만
助成 하는 因果 밖에 볼게 없으니 政治 金錢의
如斯한 醜雜스러운 面을 克服 하려는 人格陶冶의
논이 吾輩의 務임이 卽 速記士의 務임이라든 嘆聲을
받도록 個人의 努力 해야겠음은 勿論이다.

흔히 韓國人은 대수롭지 않은 技術者라 하면 곧
無理를 社會에 要求 하고 自愛之心이 強 해지는게
例事인데 大體 自己自身과 社會 乃至 自己自身の 母體
를 생각하지 않는 忘恩의 일이 速記士들에게는 있어
서 아니 될 일이지 自重과 謙遜의 美德을 살리어 美
理와 友誼에 살고 物心 兩面으로 社會奉仕의 理想
下에 참말로 民主國民의 模範에 살기를 念願하며
이로써 一字를 이룩 하고 一滴을 感化 시키는
人最의 所有者가 되기를 바란다 .

품을 품으로 認知 하면서 그리 끌리는 弱者是 모
름지기 個人의 破滅만이 아니라 社會의 罪戾이다 .

다음에 速記士 願수록 社會 各方面에 걸쳐서 廣範
圍 하게 常識을 修養을 自覺 하여 生活上 必要인
데 꺼지라도 가서 見學 하며 日常 新聞 雜誌를 通
讀 時事 又は 各種 知識을 吸收 하여 늘 工夫
하는 社會人이 되어야 한다 . 한 職場에 파 묻치여
쉬 제 일만 마지 못 해서 끝썩 끝썩 해 놓고 放
逸歲月 한다면 그는 完全한 落伍者이다 . 工夫는 끝
이 없고 社會文明은 限이 없다 우리는 늘 文明의 尖
端을 佔는 知識人이 되어서 社會에 龍소한 보람이 있

도록 해야겠다. 衣服과 놀이의 尖端은 第三種人間에
게 마끼고 우리는 第一種 知識人이 되어서 倫과 理에
살아야 겠다.

이것이 他人의 語彙를 茶飯事로 記錄 해 너는 原
動力이 되는것이요 自身이 文化人으로 自衒 할수 있는
基盤이 되는것이다.

自身을 修養 하라 自身の 不足點을 自覺反省 하여 일
에 自信滿々 하고 마음에 거라짐이 烏足之血 만큼도 없
는 清蘆한 人間이 되자.

異次種의 白血 같은 正義之感에 살아서 뉘고 듣고
배운 眞의 知識을 欺騙 하는 行動을 一切 삼가자.

高尚한 人品이란 自身의 心中에 있는 것인지 他人에게
잘 보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識見과 人品, 速記士는 이 두 뜻에 于先 專斷하기
를 期 해야겠다.

速記學과 速記士

一旦 創案制定한 速記號로 併,
完全無缺 하고 永久不變히 併야 된다는 速記學이라
고는 있을수가 없는것이다.

言語도 變遷 하는데 速記號가 無變이라는 理도 不成立이다.

~ 350 ~

또한 같은 時日에 같은 敎壇場에서 같이 배운 者라도
남말 一의 記號를 記進어서 指示한것 外에는 各 同一한
記號를 使用하지 않고 各기 便利한대로 記號를 驅使
하는것이 通例이다.

뿐만 아니라 職場마다 恒用語가 달라서 略字의 使用例
가 또 相違하다. 다만 原理 原則만 같은 따름이며
略字法 利用素戔의 差로 優劣이 生함은 이亦 人間
個々人의 面相이 相違하듯이 相違한것은 어찌 할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남말 略字法의 進程에 徹함이 未及한 處이
라도 逸波式은 能率을로서 進出 할수 있게끔 記號 構
成이 되어 있는데 要는 逸波式의 構成 眞意를 살리는
데 있어서 個々人의 進歩的 視點을 同座 象論에 拂치
여 改正을 기 할진대 逸波式은 더욱더 그 能率向上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런만큼 이미 先進者는 后輩를 爲해서 研究 練
磨를 게을리 말것이며 또 原理에 벗어난 記號를 使用하
지 말것이며 后輩를 善養할 時는 自己 功限을 一消 하고
此 學費에 圓重 하여 體系를 紊亂하게만 아나 할지면
누구나 同一한 習學 能기를 올릴수 있는것이니 自己의 總
功에 비추서 學과 功과의 區分點이 무엇인지 把握 せ

야 한다. 외나 하면 筆者도 過去 速記実務家이기에
학과 實에 簡한 明確한 区分은 知得 함에 있어 心的
苦痛을 많이 겪은 터이여서 이니 또 나의 前例를 밧
을 后輩를 慕 해서 이를 斷言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速記學이란 것은 教授에 있어 自己가 無不通
知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대로 他人에게 옮겨지지 않
는 理를 깨달아야 하고 個人의 素質이 또한 다름
은 깨달아서 逸波式 速記學은 어디까지나 速記學이 되
어야 되는 原理를 누구나 遵守 하여 自己의 実務와
는 区分을 세워만 준다면 逸波式은 坊々谷々 어디거나
逸波의 뜻대로 先輩가 后輩를 養成 해 별수가 있는
터이다.

此 存心 速記人으로서 自己個人만을 떠
나서 우리나라 速記學의 隆盛과 繁昌을 爲하고 速記文化에
이바지하려는 意圖를 가질진대 必히 勇往하기 바라며 速記學
과 速記士가 各異 其의 國家的인 事務 担当에 寄與가 급이
오져 諸君의 힘에 달렸음을 스스로 認知하여 万難을 除하고
倍加之 功기를 公的으로 傾注 하기를 願으로 밧며 아울러 하
로 速히 此學을 完遂하여 速記能者로서 逸出 하기를 夙
務 하는 바이다.



結 言

此 學書를 刊 行에 있어서 大韓速記學術協會 會員 一
同과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敎養員 諸位의 物心 兩面으로
勵 力이 있었음을 于先 謝 하며 活字版이 아니고 "프린
트" 版인 것이 遺憾이지만 前에 大韓軍營援護 高等技術
學校에 있던 尹 仁 君의 獻身的인 努力으로 그래
도 이만한 書籍이나마 꾸미여진 것이 幸이라겠다 .

勿論 內容에 있어서 筆 畵의 意圖한바를 滿足 시키
기에는 距離가 먼 書籍이 되었으므로 大略 速波式 速
記字의 骨子는 收錄 했고 漏落 된 것 또는 誤記는
機會 있는 대로 附錄으로 添加刊行 할 予定이다 .

尙弱한 韓國의 速記界는 似 以非 速記學에 파묻힌
韓國의 實際中 巍然 頭角을 들이고 實際으로 此 眞을
부르짖는 그 眞意가 此 學書로 此 前分人에게나마 解得
된다면 그를 기뻐할 따름이다 .

著 者 紹 介

己未年 서울대생 東京早稲田式 速記學院에서 速記學
專攻 松竹會社就務 歸國后 서울中央放送局을 거쳐
1926年 每日新報入社 解放五年 6月 韓國最初로 完全
速記學「遠波式」을 創案公表 爾來 韓國의 正常速記
學 鼎拓 偉功을 이룬 國內重要機關 速記業務는 거의 同
氏 門下生이 就務中。

著作權 所有

遠 波 式
速 記 學 概 論
(非 差 版)

著 者 大韓速記學新協會長
遠 波 張 翠 榮

發行者

印刷者 尹 仁

總記 1929年 5月 15日 初版發行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ged, yellowed paper. The notation consists of several staves of music written in a cursive, handwritten style. The notes are connected by long, sweeping lines, and there are various symbols and markings throughout, including what appears to be a treble clef on the left side of the middle section. The paper shows signs of wear, including stains and discoloration.